

수용자 종합문예지

통권 456호 | 2021 겨울호

#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직원 작품 | 테마원고 | 소감문 | 수필 | 기획기사 | 용서의 글 | 시 | 독후감 | 수기 | 서간문 | 감상문

2021 | 겨울호  
통권 456호

# 세 기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2021년 겨울호 (통권 456호)

1948년 4월 1일 창간 2021년 12월 13일 인쇄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 111-1270000-000299-08  
편집인 : 한태환 인쇄 : 서울남부교도소  
디자인실 : 한양애드 (02)2279-0814  
우편번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회복귀과 : (02)2110-3438

## CONTENTS | 목차

### 직원 글

- 04 영화 '신데렐라 맨'을 보고... | 논산지소 교위 조도현
- 07 봉어빵의 위로 | 천안교도소 교도 허승범

### 테마원고 - 봉어빵

- 08 도시어부 | 김대영
- 09 봉어빵 | 이준희
- 10 봉어빵으로부터 | 이성환
- 11 봉어빵 | 김현수
- 12 봉어빵, 네가 좋아 | 이석호
- 13 봉어빵 | 박현준
- 14 봉어빵 심부름 | 최성우
- 15 우유와 봉어빵 | 홍정숙
- 19 봉어빵 | 진정란
- 21 엄마의 봉어빵 | 송수진
- 23 달콤한 봉어빵 | 박영란
- 26 네 가지의 봉어빵 | 황성근
- 28 봉어빵 | 고정현
- 31 봉어빵에 담긴 어린 나의 사춘기 | 이재열
- 33 눈물 젖은 봉어빵 | 전진희
- 36 봉어빵과 어머니 | 엄은우
- 38 추억의 뜨거운 봉어빵 | 이재연

### 소감문

- 40 2021년 제5기 집중인성교육을 마치며 | 윤재훈
- 42 어머니께 바치는 졸업장 <최고의 선물> | 안준영
- 44 인성교육 | 정재호

### 수필

- 46 나의 퀘렌시아(querencia) | 김유리
- 48 겨울만 되면 절로 그리워지는 그곳 | 이경로
- 51 가족캠핑 | 박성훈
- 55 서로 귀한 인연으로 만난 인연이라면 | 정정식

### 기획기사

- 57 현대인의 감로수, 커피 이야기 | 동덕여대 교수 김상철

## 용서의 글

- 65 용서를 구합니다 | 황재혁
- 67 용서를 구합니다 | 이재훈
- 69 피해자에게 드리는 편지 | 조은혜
- 71 용서를 구합니다 | 이지현
- 73 용서 · 화해 | 전광운
- 76 용서를 구합니다 | 이학운
- 78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황우빈
- 80 용서를 구합니다 | 권세환

## 시

- 84 어느 초보 이발사의 첫사랑 | 윤정영
- 85 꽃감 | 이호석
- 86 바다가 없는 해변 | 김수현
- 87 한 겨울밤의 꿈 | 시인숙
- 88 사과는 아프다 | 백의성
- 89 성에 | 차대영
- 90 적절함에 관한 고찰 | 신희창

## 독후감

- 91 「치유: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를 읽고 | 천지연
- 95 「모스크바의 신사」를 읽고 | 신원철
- 98 「니체의 말」을 읽고 | 진정득
- 101 「수소 전기차 시대가 온다」를 읽고 | 주광호
- 105 「에이트」를 읽고 | 김경준

## 수기

- 110 노래 사연 보내기 | 이정만
- 112 번데기 너~어 | 조금성

## 서간문

- 116 사랑하는 어머니! | 박근익
- 120 장모님 전상서 | 윤성식

## 감상문

- 122 2021 새길 가을호를 읽고 | 서정기
- 125 새길 가을호를 보면서 | 김종철



# 영화 “신데렐라 맨”을 보고...

조도현 | 논산지소 교위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감동과 가슴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신데렐라 맨”입니다. “뷰티풀 마인드”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론 하워드 감독과 “글래디에이터”로 알려진 배우 러셀크로우가 만난 감동 실화로 국제복싱연맹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제임스 브래독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입니다.

제임스 브래독과 그의 매니저 굴드는 1928년 미국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유망한 복싱선수와 단짝 매니저로 활약하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승승장구하며 대전료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그의 가정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 행복도 잠시,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 경제대공황으로 브래독의 가정 또한 급격히 가정형편이 어려워집니다.

매일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별이를 하여 생계를 이어 가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심해서 생활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아들은 정육점에서 먹을 것을 훔치게 되고 그런 아들과 함께 정육점 주인에게 사과하고 돌아오는 브래독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런 브래독에게 오랜만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복싱매치”. 돈을 벌기 위해 시합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이 찾아오고 복싱매치에서 졸전을 보이자 복싱협회 간부의 눈 밖에 나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일을 나가야 가족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기에 우리의 주인공 브래독은 다친 걸 숨기려고 깁스에 구두약을 발라달라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겨우 얻은 인력시장 일도 다친 손목 때문에 금방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어느덧 추운 겨울이 오고 브래독의 가정은 전기요금을 못내 전기마저 끊기고 아이들이 독감에 걸리자 브래독의 부인은 아이들을 친척 집에 보냅니다. 어떻게든 아이들만은 지키고 싶었던 브래독과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부인과의 갈등은 깊어만 갑니다.

다급한 처지의 브래독은 빈민구제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빈민구제소의 구제기금 18달러로는 밀린 전기세가 부족하고 결국 브래독은 자존심을 구기고 예전에 몸담았던 복싱협회를 찾아가 구걸을 하게 됩니다(이 대목에서 필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브래독의 안타까운 상황에 협회 사람들은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런 상황이 누구보다 가슴 아픈 매니저 굴드는 부족한 나머지 금액을 채워주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브래독을 위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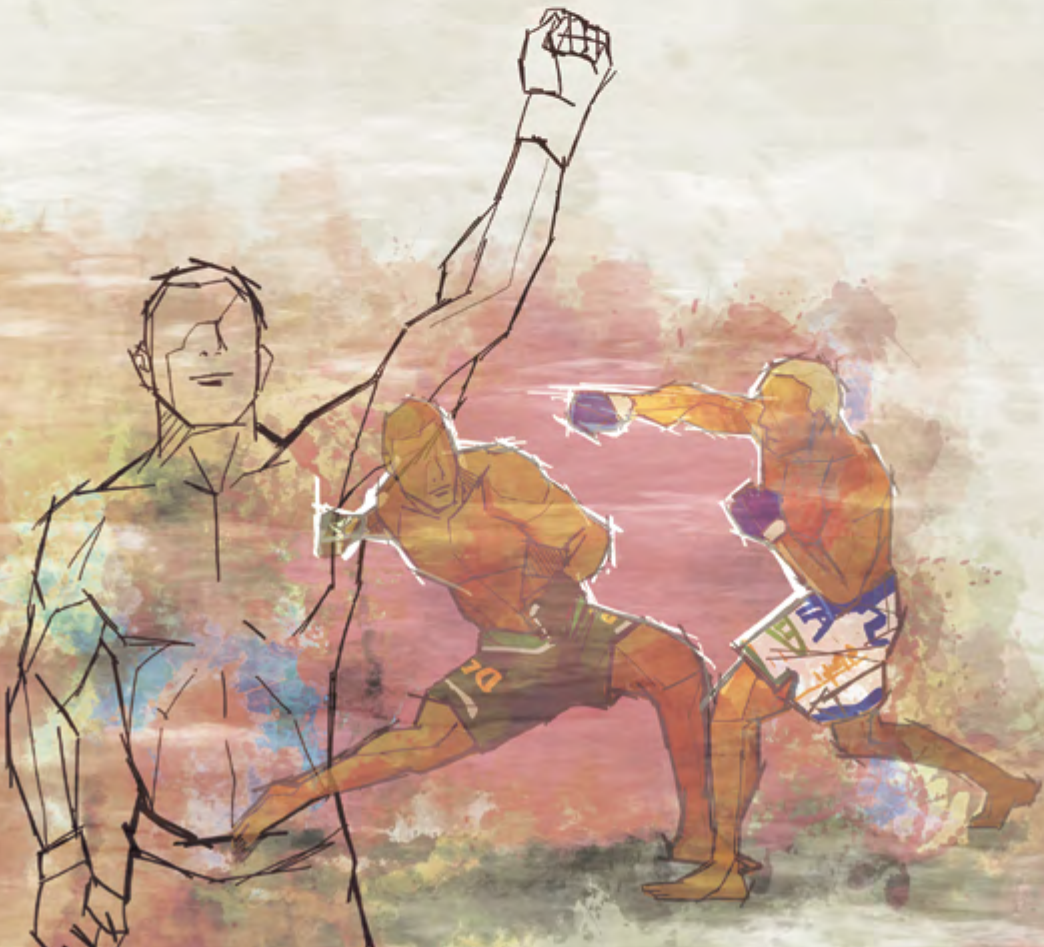
그렇게 해서 브래독은 다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누구보다 브래독을 잘 아는 매니저 굴드는 협회를 설득해서 다시금 브래독이 시합을 할 수 있도록 복싱매치를 성사시키고 다시 시합을 갖게 된 브래독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시합에 승리하게 됩니다. 매니저 굴드의 노력으로 연이어 매치가 성사되고 연습을 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는 그에게 사람들은 “신데렐라 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시합 때마다 어렵고 견디기 힘든 시련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다시는 가족과 헤어질 수 없다는 다짐과 필사의 각오로 브래독은 상대 선수를 다운시켜 버립니다.



드디어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까지 성사되어 브래독은 챔피언인 “맥스 베어” 선수와 시합을 하게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맥스 베어 선수는 지금까지의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서운 핵 주먹의 파워를 가진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와 상대했던 선수들이 뇌 손상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자 브래독의 부인은 챔피언 매치를 말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브래독은 혹여 다치기라도 할까 봐 말리는 부인을 설득하고 마침내 경기에 참여하게 되고 15회의 악전고투 끝에 판정승을 거두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뜨거운 부성애와 가족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실제 주인공인 헝그리 복서 제임스 브래독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제가 집중인성교육 담당을 할 때 교육생들에게 매 기수 마다 보여주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고 여자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보여주었을 때에는 엔딩 장면이 올라갈 때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 붕어빵의 위로

허승범 | 천안교도소 교도

사거리 앞 붕어빵 가게에서  
붕어빵 다섯 개를 샀다.

올해는 입동 소식보다 붕어빵 가게가  
가장 먼저 겨울을 알렸다.

계절의 변화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안다.  
나의 변화도 내가 가장 먼저 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주제를 하고  
몇 장의 몇 페이지쯤까지 왔을까?

각 장을 지날 때마다  
기쁨과 슬픔의 능선과 계곡은 가팔라진다.  
가파름을 견뎌본다.

때로 견디는 것만으로 성장한다.  
봄을 기대하는 만큼 겨울을 견딜 수 있다.

붕어빵이 든 종이봉투는 한해를 돌아보고  
인내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따스한 한기의 위로가 된다.





# 도시어부

하얀 눈 내리는 날,  
도시어부는 붕어를 낚는다

매서운 겨울 바람에  
달빛마저 얼어붙은 밤 늦은 시간까지  
도시어부는 언손 부벼가며 붕어를 낚는다

퐁퐁언길, 조심한 종종걸음  
찬찬손길, 소심한 종종마음  
그 걸음 그 마음 종이 봉투 위에 머물면  
도시어부 흐뭇한 미소 짓는다.

종이로 만든 어항 노랑계 잘 익은 붕어 네 마리  
귀여운 손주 입가에서 장난꾸러기 막내 두손 위에서  
사랑가득 달콤한 꼬리 흔든다

반죽을 비비고 삶을 비비고  
빵을 만들고 붕어를 만들고  
양금을 넣고 꿈을 넣어  
사랑으로 철판 데워지면  
어느새 붕어는 행복한 꼬리를 흔든다

오늘도 하얀 눈 내리면,  
도시어부는 그렇게 붕어를 낚는다.



김대영

## 작품평

붕어빵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쯤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먹을 것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붕어빵은 음식이기 전에 사랑임을 알게 해준 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 마음에 즐거워할 가족을 생각하며 식을까봐 가슴에 품어가는 먹거리. 도시어부는 붕어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 파는 사람 이었네요.

# 붕어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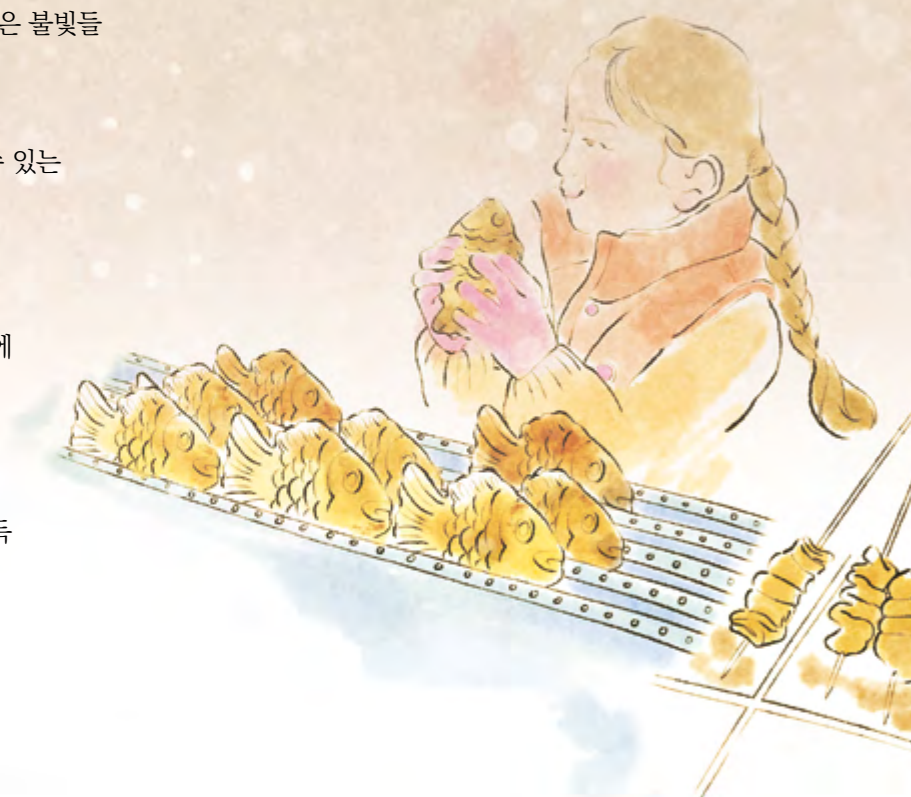
이준희

싸늘한 밤공기에  
겨울마저 짙어지면  
집으로 향하는 축 쳐진 어깨를  
기어코 돌려세우는 길가의 작은 불빛들

붕어빵 한 봉지는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설레는 사랑이기에

싸늘한 밤공기에 오히려  
품속에서 뜨거워지는 붕어빵에  
더욱 빨라지는 발걸음

그새를 못 참고  
하나를 꺼내 베어문 한 입 가득  
겨울이 달다.



**작품평**

기다림은 붕어빵을 만나는데에도 필요한 덕목이네요. 붕어빵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다. 추워도 추운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시간도 기다림을 통해 익어간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흰 입김이 붕어빵이 입속에서 익어간다는 표현도 재밌습니다. 겨울 거리에 핀 붕어빵 가게 앞을 지나칠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 붕어빵으로부터

이성한

마음 다 잡고 저수지 좀 걷자며  
택시비 몇 천원 꼬깃 집어 들고는

저 건너편에 보이는 누런 불빛,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나보다.

겉은 단단하며  
속은 부드럽고 뜨거운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작은 생명이

겨울 밤, 살 얼은 나에게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나에게

자기 한 몸 희생하며  
나를 위로한다.

소박하지만 잊지 못할  
그 달달함과 따뜻함에

택시비를 다 빼앗겨 버렸으니  
새로운 내가 태어났나보다.

지금의 내가 있나보다.

## 작품평

저수지 속 붕어들이 빵이 되어 왔네요. 풀빵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 마음도 몸도 추운 사람에게, 오갈 데 없는 쓸쓸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달콤하게 위로를 하네요. 택시비로 사 먹은 붕어빵의 위로로 지금의 내가 여기 있다는 목소리가 담담하게 들려옵니다. 조금 먼 길 걸어도 그리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붕어빵

김현수

붕어빵하면 떠올리는 그리움  
과거는 오늘에 대한 이야기

떠올리면 생각나는 느껴지는 고마움들  
삶이 나에게 묻는 것

숨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너는  
나를 보고 웃고 있구나!

왜 몰랐을까? 그 비밀을  
호빵보다 좋았던 붕어빵의 속마음

그리운 삶들 붕어빵의 겨울  
결 가득한 붕어빵 속에서  
그리움이란 미소를 풀어본다

알아주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따뜻한 그 속의 삶이

이제는 사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붕어가 익어간다.



**작품평**

겨울 간식으로 붕어빵만 한 게 없지요. 붕어빵이 따뜻한 건 따뜻한 붕어빵을 줄 사람이 있다는 건 사랑이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란 걸 알게 해준 시입니다. 달콤한 팔소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늘 변함없이 겨울이면 길거리를 헤엄치는 붕어빵들과 그리움들을 따라가봅니다.



# 붕어빵, 네가 좋아

이석호

폭신폭신타 빵이랑  
사르르 녹는 단팥이  
내 혀를 포근히 감싸주는 머리도

남들과 다르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지느러미를 띄워주는  
붕어빵, 네가 좋아

달달한 단팥에  
바삭바삭 껍질이  
서로를 채워주는 꼬리도

머리부터는 머리부터 끼리  
꼬리부터는 꼬리부터 끼리

삼삼오오 모이는 친구들 속에서  
때로는 머리라고  
때로는 꼬리라고

근데 난 말이야, 사실은  
바삭함도 있고 폭신폭신타도 있는  
지느러미가 좋아



## 작품평

붕어빵만으로도 즐거웠던 때가 생각납니다. 먹을 게 별로 없는 지느러미부터 먹는 사람도  
흥미롭습니다.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헤엄치는데 추진력을 주는 기관입니다. 등지느러미는  
물고기의 몸을 안정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네요. 붕어빵의 지느러미를 통해 또 한 번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 붕어빵

박현준

그들만의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완성되는 붕어빵!  
우리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다 다르게 생겼다고 하겠지

내 마음 속이 검은 것 같아 걱정되어  
속이 검은 붕어빵에게 물어보니  
사람들 입 속을 행복하게 해주는 나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면 된다고 위로해준다.

날씨가 추워지면 붕어빵이 생각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나무가 앙상해지는 계절  
나를 기다리고 있을 붕어빵이 그리워진다.



## 작품평

우리는 누군가 닮았을 때 붕어빵 같다고 하곤 합니다. 엇비슷 닮은 것 같지만 실은 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입니다. 팔소가 애태운 맘처럼 새카말지만 그런 속사정으로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겨울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 붕어빵 심부름

최성우

“붕어빵 삼천원 어치요”

식을세라 가슴속에 꼭  
안고가는 빵 봉투

도저히 못참겠다  
꺼내먹은 붕어빵 한 개

하나더 먹어도 표 안나겠네  
꺼내먹은 붕어빵 두 개

이런 단팥이 터졌네  
꺼내먹은 붕어빵 세 개

“아빠, 붕어빵 사왔어요”  
얼어맞은 딱밤은 네 대



## 작품평

딱밤 맞는 얼굴을 생각하니 웃음이 납니다. 시도 재미있어야지요. 봉지 속에 몇 마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들 먹다 보니 내민 봉투가 가벼웠겠지요. 딱밤보다 붕어빵이 더 맛있었겠지요. 나도 몰래 손이 가는 따뜻함과 달콤함. 심부름 값으로 재밌는 겨울밤 풍경이 훈훈해지는 시입니다.

※ “테마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 우유와 붕어빵



홍정숙

어릴 적의 나는 우유를 지독히도 싫어했다. 그런 내 기호와는 관계없이 그 시절의 학교에서는 매일 우리에게 흰 우유를 하나씩 나누어줬었다. 그럼 나는 늘 우유를 먹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챙겨가곤 했다. 냉장고 안에 우유를 대충 넣어두고 어느샌가 우유가 냉장고에 잔뜩 쌓이면 엄마는 ‘제발 우유 좀 마셔라. 그러니 키가 안 크지.’ 볼멘 소리를 하시며 유통기한이 지나가버린 것들을 정리하기 바쁘셨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엄마는 포기하신 듯 ‘그럼 우유 터지거나 없게 가방에 넣지 말고 들고 와라.’ 그렇게 말씀 하셨었는데, 내가 무심경하게 넣어 온 우유들이 가방 속에서 곧 잘 터져 책과 가방을 온통 비릿하게 만들어버리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 날도 나는 우유를 먹지 않았었다. 가방에 넣지 못한 우유를 한 손에 들고 텔레텔레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제 막 횡단보도를 건너 왔는데 어디선가 날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날 부른 건 다름 아닌 붕어빵 장수 아저씨. 아저씨는 횡단보도 바로 옆, 길 한 켠에서 붕어빵을 자주 팔고 계시곤 했었는데, 그동안 나는 멀찍이 지나가며 입 맛 만을 다셔왔을 뿐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내 용돈으로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곳이었다.

“저요?”, “그래.” 가까이 오라며 손짓하는 아저씨에게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후줄근한 옷에 추레한 행색의 그 아저씨는 대뜸 내게 이런 제안을 하셨다. “그 우유랑 붕어빵이랑 바꿔먹지 않을래?” 이게 웬 떡이람! 난 고작 해봐야 작은 우유 한 팩. 그것도 먹지 않아 늘 처치곤란이었던



우유가 아니었던가. 그런 우유를 봉어빵 한 봉지와 바꿀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어린 내겐 황재나 다름없었다. “이 우유랑요?” 잘못 들었나 싶어 재차 되물어보아도 아저씨는 내게 봉어빵 몇 개가 든 봉지를 건넸다. 종이봉투를 받아들자마자 차갑던 내 손에 온기가 전해지고 달콤한 팔 내에 마음까지 온통 즐거워졌다.

그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어찌나 싱글벙글 했던지. 우유가 잔뜩 들어있는 냉장고에 하나를 더 보태지 않아도 되니 괜스레 땃땃했고, 게다가 생각지 못했던 달콤한 간식까지 얻었다! 하지만 들뜬 마음도 잠시, 부모님 두 분 모두 일하러 가시고 비어있는 고요한 집으로 돌아와 차분히 방금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자 내 안에서 행복감과는 또 다른 감정이 밀려 왔다.

‘그 아저씨도 우리 아빠랑 연세가 비슷해 보이셨는데, 그 분도 내 포레 줌 되는 딸이 있을까?’  
‘그 아저씨는 왜 봉어빵을 팔지?’  
‘그 아저씨는 왜 우유랑 바꿔먹자고 하셨을까?’

사소한 궁금증부터 조금은 더 깊은 질문까지 내 안에서는 물음표가 끊이질 않았다. 그제서야 종이봉투를 받아들자마자 좋다고 뒤도 안돌아보고 온 내 모습이 조금은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다. 그저 목이 마르던 차에 내 손에 들린 우유가 눈에 띄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는 조금 더 간절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내게 우유는 값싸고 싫어하는 음식일 뿐이었지만, 아저씨께는 봉어빵 한 봉지만한 가치가 있었고, 나는 그것을 어렵פות이나마 가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는 다양한 이웃들이 많다는 사실도, 나는 조금 늦게서야 돌아 볼 수 있었다.

뜨뜻한 봉어빵을 먹었던 속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내일도 계시면 잘 먹었다고 꼭 인사드려야지.’ 어린 마음에 꼭꼭 새기듯 다짐까지 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아저씨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으셨다. 그 날 이후 내게 봉어빵이란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채 걸려있는 음식 마냥 나를 자꾸만 차갑게 만드는 음식이 되었다. 끝내 마무리 짓지 못한 숙제를 둔 아이처럼 난 매일 하룻길마다 아저씨가 계셨던 자리를 바라보아야 했다.

나는 그 날의 복잡했던 기분을 영영 잊지 못할 줄 알았는데, 차가운 쇠창살 아래에 와있는걸 보니 그런 기억 하나쯤은 가뿐하게 지운 채로 커버렸던 모양이다. 남을 위할 줄 아는 삶을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놓고도 여기 이렇게 오고 나니 자꾸만 악이 받쳤다. 이젠 절대 괴로워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마음먹었다.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없겠지만, 내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건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면 세상의 슬픔 같은 건 외면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10년이란 시간동안 나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 사회에서 지낼 때보다 몇 배는 더 치열하게 시간을 보냈다.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선 그래야만 했으므로. 탄탄하게 준비하고 더 웅크려서, 뒤돌아보지 않고 높이 뛰어오르고 싶었다.

물론 나의 이런 억지스러운 오기에 지쳐 회의감이 드는 순간도 적진 않았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높이 도약한다고 한들, 그게 이제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부질없다.' 하는 생각에 빠져버릴때면 몇 주씩 헤어나오지 못해 공허함에 몸부림치기도 했다. 끝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로 치열하기만 했던 나에게 번아웃이 오고 나서야 난 멈춰 설 수 있었다. 복잡하고 심란했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다시 나아갈 원동력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사회로 다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져서 그런가보다며 스스로를 다독여도 보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만 했다. 사회에 돌아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는 '그래서 지금의 나는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만이 남았으므로.

그러던 어느 날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10년 전 재판 당시의 서류를 가방 한 귀퉁이에서 보게 되었다. 이게 무슨 서류더라, 하며 꺼내 들여다보니 당시 오래 알고 지내 가까웠던 친구들이 나를 위해 써주었던 것으로, 십시일반 모아 제출했던 탄원서 봉치였다. 이제는 까마득해 기억조차 나지 않고, 당시에 혼란스러워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조차 않았던 그 글 속에서 나는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 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흔적 중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전 그녀가 다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기도하며 평범한 소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며, 다른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녀가 되기 위해, 그녀가 다시 우울해져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 글을 읽고 나서야 나는 10년 만에 괴로워졌다. 마음이 시리도록 아팠다.

그렇게 10년을 빙 돌아와서야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돌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사람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후회도 많이 했다. 다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던 중 듣게 된 붕어빵이라는 주제에 내가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기억까지 되살려놓고 보니, 아! 나는 참 많은 것을 잃은 채로 살아오고 있었다. 세상엔 따뜻하고 달콤한 온기 속에 가려진 채 추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게 일깨워 준 최초의 기억은 바로 이 붕어빵이었을텐데 말이다.

다시 세상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하지만 세상이 모두에게 똑같이 차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다시 돌아온 겨울일테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난히 더 혹독한 겨울일 수도 있다. 나는 끝끝내 함께 괴로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가끔은 행복에 취해 막 앞서나가다가도 한번쯤 멈춰서 뒤돌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글은 머지않아 사회로 돌아갈 나에게 다짐을 받고자하는 어린 시절 나의 부탁이다. 내 안에서 시리도록 차가워진 그 붕어빵을 잊지 말자고, 괴로움을 모르는 삶을 살지 말자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는 따뜻한 우유로 흐르는 삶을 살아내자고, 그러다보면 어느새 내 마음 한 귀퉁이에 걸려있던 얼음조각 같은 붕어빵도 녹아 없어지는 날이 오겠지.

붕어빵 아저씨가 돌아오는 겨울이다.



#### 작품평

급식으로 나오는 우유를 먹기 싫어해 집으로 들고 가다가 만난 어린 날의 붕어빵 장수 아저씨. 아저씨는 붕어빵을 우유와 바꾸자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을 선물하고는 그날 이후 아저씨는 사라지고 맙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뒤로 하고 그대는 세파로 뛰어들었고 결국 담을 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약착같이 살았지만 추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고요. 차가워진 붕어빵의 의미를 늘 가슴에 새기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음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는 사람이 되시기를.



# 붕어빵

진정란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속에 태어난 늦둥이 딸입니다. 제 나이 5살 무렵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맛별이셨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저는 동네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무서워 tv를 크게 틀어놓고 tv를 보다 쇼파에서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 어머니의 일터로 찾아가려 길도 모르면서 무작정 집을 나서 길을 걸었고 버스도 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다른 길이었고 날씨는 너무 춥고 날이 어두워지자 무서웠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도록 내리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던 버스 기사아저씨는 “집이 어디니. 꼬마야!” 라고 물었고 나는 그만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 기사아저씨는 저를 근처 파출소에 데려다주셨고





저는 파출소에서 어머니가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부리나케 달려온 어머니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다니면 어떻게 하나며 부둥켜안고 한참을 어머니와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어빵을 파는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달콤한 냄새에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께서는 봉어빵 아주머니께 “봉어빵 천원어치만 주세요”하곤 제 손에 봉어빵이 든 흰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어찌나 달콤하던지 어머니께 혼난 것도 잊어버린 채 허겁지겁 뜨거운 봉어빵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큰 지금도 지나가다 봉어빵을 보면 옛 생각이 나서 꼭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옛 생각에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지금은 비록 좋지 않은 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코끝이 시린 겨울이 오면 어렸을 적 울면서 먹었던 봉어빵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예쁜 막내딸이자 기쁨이었던 저였기에 평생을 마음 편히 사실 줄 알았는데 되려 어머니의 인생에 고통과 슬픔을 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니! 어렸을 적 봉어빵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이 못난 딸 출소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더 늦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 작품평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는 늦도록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지요. 집에 혼자 있어 무서워진 다섯 살 꼬마아가가 어머니 일터로 가보려 버스를 탔다고요. 종점까지 갔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집이 어디냐고 묻는 기사아저씨 앞에서 한참 울고 파출소에 온 엄마 앞에서 또 한참 울고. 그날 귀갓길에 먹게 된 봉어빵이니 지금껏 잊히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아, 이제 그대의 출소만 기다릴 부모님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가슴이 봉어빵처럼 따뜻해질 것입니다.

# 엄마의 붕어빵



찬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 되면 유난히 생각나는 겨울 간식 붕어빵이 떠오릅니다. 붕어빵 속에 딱 찬 단팥처럼 붕어빵은 저의 겨울 추억에 딱 차여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항상 겨울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서 오시곤 했는데 집으로 오는 사이 붕어빵이 식을까봐 옷 사이에 품어 오셔서 저희 남매를 부르시며 품속에 있는 붕어빵을 주시곤 했습니다. 겨울철 어머니의 퇴근을 기다리는 소소한 행복을 느꼈고, 어머니는 항상 품에 보듬고 오신 따뜻한 붕어빵을 동생과 제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 입덧이 시작 될 무렵, 밥보다 붕어빵을 유독 더 많이 찾았는데 그때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한겨울의 칼바람이 불어도 저를 위해 붕어빵을 사러 가시곤 하였습니다. 저의 동네에는 붕어빵을 파는 곳이 한곳밖에 없어서 가서 기다려야 하는 일도 종종 생겼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피곤함도 감수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엄마가 되고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 저거’하며 아이들이 가리킨 것은 다름 아닌 붕어빵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나 병원을 가야했던 상황이고 길 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저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생각 중이었는데 봉어빵을 파시는 할머니께서 따뜻한 봉어빵 두 개를 아이들의 작은 손에 하나씩 쥐어주시면서 ‘형이랑 동생도 봉어빵이네, 어여 먹어 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먹은 봉어빵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니 할머니께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곤 미용실 딸이냐고 물어보시며 엄마랑 많이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장사가 도통 되질 않아서 정리 하려던 찰나에 매일같이 봉어빵을 사가는 여자가 있었다고, 한번 두 번 오기 시작하니 봉어빵 좋아하냐고 물으셨는데, 딸이 임신을 했는데 다른 음식은 도통 먹지를 못하는데 이집 봉어빵만 잘 먹어서 사가는 거라고 하면서 식을까봐 옷 사이에 품고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시던 저의 어머니 모습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도 따님이 한분 있는데 본인은 딸에게 늘 식은 봉어빵을 간식으로 준 것이 마음에 걸려 속상했다며 그저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웃음을 드리기자 ‘할머니 봉어빵 먹고 씩씩하게 낳은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 저의 아들을 보시고 ‘네가 이 할미 봉어빵 먹고 자란 아이구먼’ 하시며 함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추억의 겨울 간식 봉어빵이 떠오릅니다. 그 해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그 봉어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먹을 수 없는 할머니의 봉어빵. 어딜 가도 그 맛이 나질 않습니다. 내 딸이 먹는다 생각하고 만드신다던 그 봉어빵 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정성 어린 봉어빵을 주신 것은 단순히 봉어빵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따뜻한 봉어빵에 저의 겨울은 그리 춥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작품평**

짧은 글이지만 동화 한 편을 읽은 느낌이 듭니다. 입덧이 심했을 때 봉어빵은 잘 먹었나 봅니다. 입덧하는 딸을 위해 한겨울에 줄 서서 기다리기도 하면서 사오곤 했던 봉어빵. 봉어빵을 팔던 할머니는 아들을 낳은 그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자 미용실 딸임을 알아봅니다. 모녀가 봉어빵이었기 때문이겠죠. 또한 할머니가 형제에게 “형이랑 동생도 봉어빵이네, 어여 먹어 봐.”하며 봉어빵을 건넵니다. “할머니 봉어빵 먹고 씩씩하게 낳은 아들입니다.”하며 작은애를 소개시켜 드리는 대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본인은 자기 딸에게 늘 식은 봉어빵만 주었다며 눈물짓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그 겨울 이후 할머니는 왜 장사를 그만두었을까요? 돌아가신 걸까요? 아아, 슬프고 아름다운 동화를 읽었습니다.

# 달콤한 붕어빵



눈 내리는 날은 붕어빵을 굽던 순규네 아버지가 떠오른다. 뒷집에 사는 순규네 아버지는 어린 시절 우리 집 뒷집에서 살았고 붕어빵을 트럭에서 구워서 파시는 분이셨다. 순규어머니께서도 아저씨 옆에서 오뎅이랑 호떡을 구워서 팔았던 기억이 난다.

순규네 집 붕어빵은 통통하고 전지분유가 들어간 바삭바삭한 정말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맛있는 붕어빵이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맛있는 붕어빵이 줄을 맞추어 나열되어 있으면 손님들이 금방 사가고 또 실 새 없이 순규아버지는 구워내고 서서 먹고 가고 사서 갈 만큼 입안에서 살살 녹는 영양 만점인 붕어빵이었다.

비가 내리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은 어김없이 팔다 남은 딱딱딱한 붕어빵을 우리 집에 종종 한 봉지씩 가지고 오셨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네 3천원이라도 받으시게”라며 돈을 건네주시면 “이러려고 가지고 온건 아닌데 감사히 그럼... 받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집에 가져 갈 호떡도 몇 개 주시고 가셨다.

팔을 직접 삶아서 만든 붕어빵인데 중국산 팔이 아닌 국산 팔을 사용해서 소문난 맛집이었다.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서 그런지 단골손님이 많았다. 어린 시절 가족끼리 모여서 붕어빵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내 친구 순규는 어린 시절에 공부도 잘 하고 얼굴이 통통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아이였다. 장난치면 그냥 씨익- 웃으며 “난 붕어빵 별로 안 먹는데 호떡을 더 잘 먹는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순규네 집 붕어빵은 한입 깨물어 먹으면 파끈파끈하고 입안에서 사~알 살 굴리면 팔에 알갱이가 느껴지고 담백한 맛이 기분을 업시키고. 학교 앞에 설치된 붕어빵 트럭 스피커에선 경쾌한 동요 노래도 흘러 나와서 기분 좋게 들으며 먹을 수 있었기에 기분이 좋았다. 학교 마치고 붕어빵 사먹으러 가면 1개만 먹으면 “배고플텐데 1개 더 먹어라 1개는 이빠서 아저씨가 보너스로 주는 거다.”하시며 웃으셨다.

단골손님들이 줄지어서 붕어빵을 사기 위해 줄서서 대기 중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시기까지 순규아버지는 붕어빵을 구워서 파셨는데 순규는 공부를 엄청 잘해서 대학교 3곳에 합격을 했고, 서울로 이사를 가신다고 순규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오셨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영란이 아버지 덕분에 힘든 시기도 잘 극복했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사실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웃을 못 보게 되어 많이 섭섭하네요.”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선 “나도 많이 섭섭하네.”라고 하시며 “정 들었는데 자식 교육을 위해 가긴 가야지.”했고, 어머니께서는 “순규네 붕어빵이 맛있는데 이제 못 먹게 돼서 아쉽네요.”라고 말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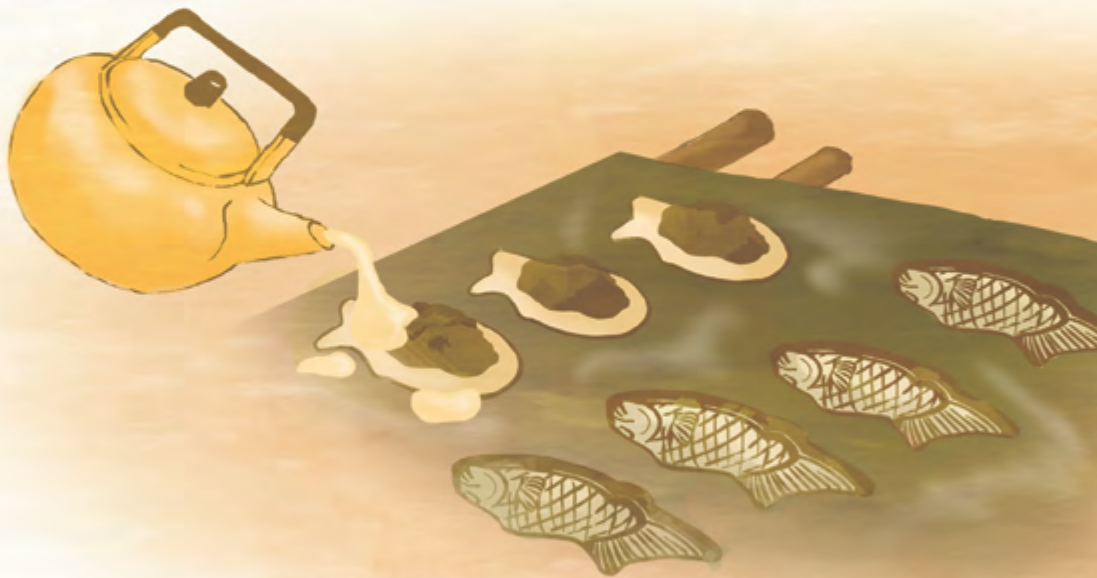
두 분 다 섭섭해 하셨고, 나도 섭섭했던 기억이 난다. 서울 가서도 노점상 붕어빵 장사를 하신다고 하시며 가셨다. 그 후 순규네 집이 이사 간 후 붕어빵이 생각나셨는지 붕어빵 한 봉지를 사오셨다. 어머니께선 “맛이 순규네 보다 못하다. 그런 맛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먹어보니 밀가루 향이 가득 나는 그냥 맛있는 평범하고 아주 단맛 가득한 붕어빵이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순규네 붕어빵은 그냥 붕어빵을 구운 게 아닌 아들을 키우기 위해 지극한 정성과 따뜻한 사랑으로 구워낸 고귀한 붕어빵이었던 것 같다.

비록 붕어빵을 구워서 파셨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히 트럭 위에서 붕어빵 기계 앞에서 날마다 사랑 가득한 붕어빵을 구우시면서 일하셨기에 아직도 순규네 붕어빵을 잊을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아버지 말씀이 또 떠오른다. 순규아버지께서 하셨던 말도 붕어빵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니 생각에 잠긴다.

사회로 돌아가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되새김질하고, 법 없이도 사실 분이라는 부모님께 결코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자 다짐해본다.

그렇게 성실히 살았다면 이곳 쇠창살 속에 갇히지 않았을텐데 후회도 되지만 과거는 중요치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오늘도 지루한 하루를 접고, 괴롭고 울적했을 심신을 이불에 눕히고. 잠이 들면 나는 그 무엇에도 그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는 맑고 청순한 영혼으로 돌아가 나풀나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 그리운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운 형제들에게로 날아가 어린 시절 순수하고 아름다운 예쁜 몸짓으로 정성 가득하게 구워낸 순규네 집 붕어빵을 가족들과 함께 미소 지으며 먹고 있으려나... 달콤한 그 붕어빵을 먹는 그 꿈! 너무 일찍 깨지 않기를 꿈꾸며 잠들어야겠다.



**작품평**

뫓집 순규의 부모님은 트럭을 몰고 다니며 붕어빵을 파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호떡과 오뎅을 팔았다고요. 팔고 남은 것을 앞집에 가져다주면 아버지는 “세상에 공짜는 없네. 3천원이라도 받으시게.” 하면서 돈을 주셨다고요. 순규가 서울의 대학에 합격해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웃이 없는 요즘 세상에서 이웃 간의 정을 듬뿍 느끼게 하니깐요. 순규 아버지가 그대 아버지에게 법 없이도 살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딸이 수용자가 되었으니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인간만사 새옹지마라고, 앞으로가 중요하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진리로 삼고 열심히 살면 그대의 인생 후반부는 달콤한 붕어빵이 될 것입니다.

# 네 가지의 붕어빵

황성근



붕어빵을 생각하면 내겐 네 가지의 의미로 다가온다.

## 1. 인내의 붕어빵

고교시절 같은 동네 살았던 친구 '석희'는 나와 함께 6km 거리의 학교를 다녔다. 등교 때는 상쾌한 기분으로 걸어갔지만 오후 귀가 때는 지치고 배도 고파 버스를 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끔 둘은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가방을 좌우 손으로 바꾸어 쥐어가며 먼 길을 걸어 집으로 왔다. 의기투합하여 걸어온 목적은 아낀 버스비로 골목어귀에서 팔고 있는 붕어빵을 사먹기 위해서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며 먹는 달콤한 붕어빵은 인내로 얻은 붕어빵이었다.



## 2. 사랑의 붕어빵

젊은 시절 우리 부부는 영화를 좋아해 주말이면 영화관을 찾았다. 맛별이하는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느긋한 식사는 생략하고 붕어빵을 택했다. 팔장을 끼고 나란히 걸으며 붕어빵을 먹다가 마지막 하나가 남으면 서로 먹게 하려고 한동안 소란을 떠다. 그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붕어빵이었다.

## 3. 교육의 붕어빵

가끔 우리 부부는 손녀 둘을 데리고 동네 공원에 놀러간다. 가는 길엔 붕어빵 가게가 있고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붕어빵이 구워져 나오면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이 먼저 집어 들고 자기 입으로 가려다가 나의 헛기침 소리를 듣고 “아참!” 하며 나를 쳐다보며 웃는 듯 찡그린 듯한 묘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에게 권한다. 우리는 “고마워”하며 붕어빵 꼬리 부분을 조금 떼먹은 뒤 손녀들에게 되돌린다. 세월이 조금 지나자 무엇을 먹든지 내 헛기침 소리 없이도 우리가 먹기 전엔 자기들이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때 같이 먹은 붕어빵은 교육의 붕어빵이었다.

## 4. 기다림의 붕어빵

같은 거실에 시골 장터에서 붕어빵을 구어 판 경력을 가진 동료가 있다.

우리는 서로 마음 맞는 친구가 되었고, 가끔 붕어빵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도 나눈다. 우리는 약속하기를 나중에 출소하면 그가 일하는 선상장터에서 만나자고 했다. 더욱 환한 모습의 그가 솜씨 좋게 구워주는 잘생기고 맛있는 붕어빵 먹는 날이 기다려진다.

### 작품평

붕어빵에 얽힌 네 가지 에피소드를 모았습니다. 고교시절 친구와 버스비를 아껴 6km를 걸어 오면서 사먹었던 붕어빵. 주말에 아내와 영화관에 다니며 사먹던 붕어빵. 마지막 한 개를 서로 먹게 하려고 소란을 떠는 장면이 아름답습니다. 손녀 둘을 데리고 외출해 붕어빵을 사주었을 때 먼저 먹으려다가 할아버지의 헛기침소리를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권한 손녀. 붕어빵 장사를 하는 친구를 장터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으니 기다림의 붕어빵이라고요. 세 가지 추억과 한 가지 기대, 모두 붕어빵이 선사한 것이네요.



# 붕어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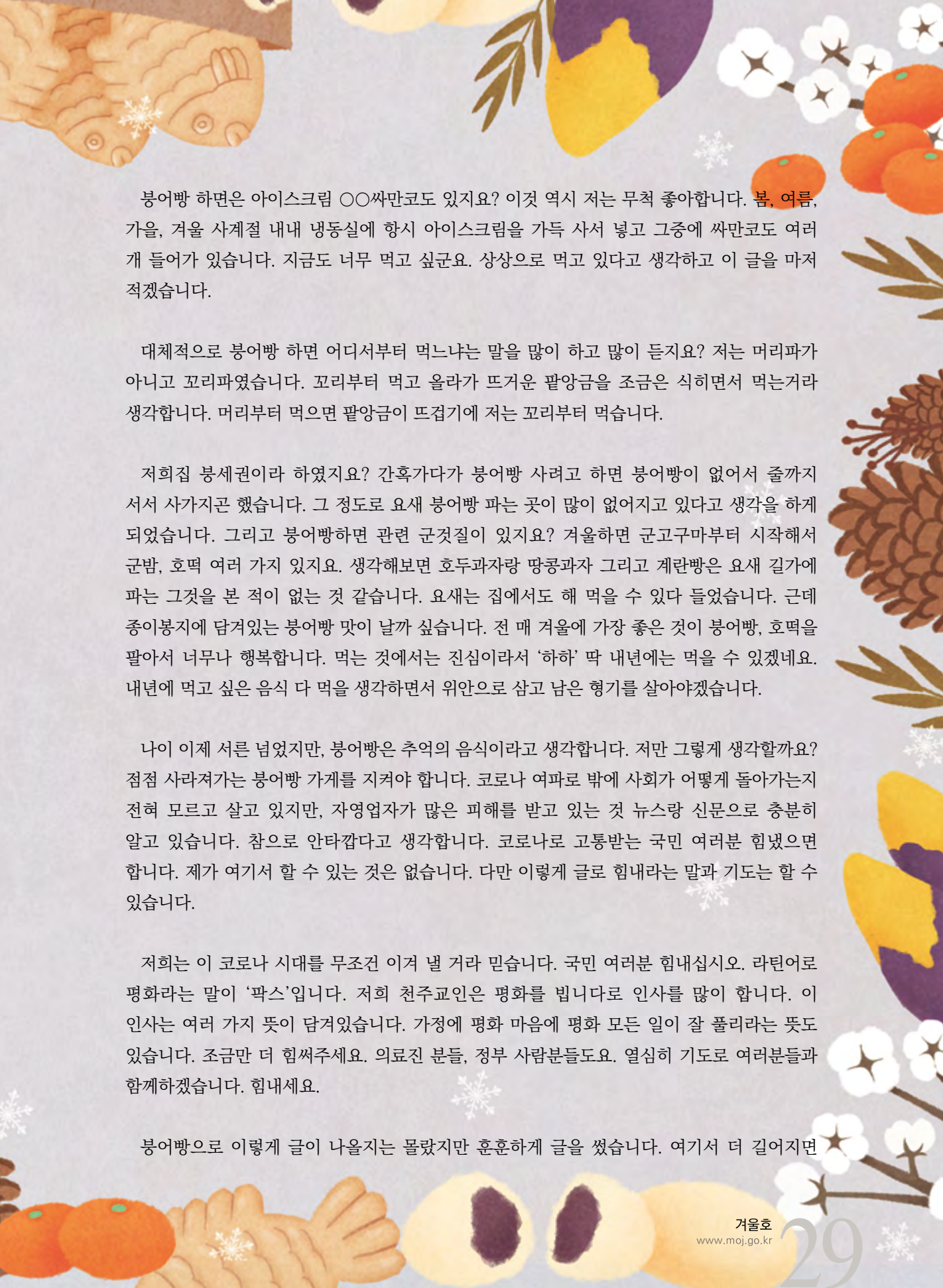
고정현

글을 쓰기에 앞서 제가 글씨를 그리고 띄어쓰기를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가방끈이 짧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필체도 좋지 않고 문장력, 어휘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참가하는 큰 의미를 두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 큰 계기는 ○○로 오기 전에 ○○에서 독후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1등을 하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장으로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을지 모를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붕어빵’이라는 단어로 글을 작성하라는 안내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받자마자 머릿속에 글을 쓸 내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글을 쓰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는 호랑이라는 고양이랑 둘이 살고 있었고 저희 집 근처는 1분 거리에 편의점 24시 조금 큰 마트 그리고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구멍가게는 분식이랑 같이하는 가게였고 붕어빵도 파는 가게였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붕세권’ 이였습니다. 붕세권이란 붕어빵을 파는 곳 근처가 붕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전 굳것질을 좋아하는 편이라 붕어빵 역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붕어빵을 엄청나게 좋아하여 일하던 중에도 혼자 몰래 사 먹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몰라도 몰래 먹는 붕어빵은 너무나도 맛이 있었습니다.



붕어빵 하면은 아이스크림 ○○짜만코도 있지요? 이것 역시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냉동실에 항상 아이스크림을 가득 사서 넣고 그중에 짜만코도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먹고 싶군요. 상상으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마저 적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붕어빵 하면 어디서부터 먹느냐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지요? 저는 머리파가 아니고 꼬리파였습니다. 꼬리부터 먹고 올라가 뜨거운 팔랑금을 조금은 식히면서 먹는 거라 생각합니다. 머리부터 먹으면 팔랑금이 뜨겁기에 저는 꼬리부터 먹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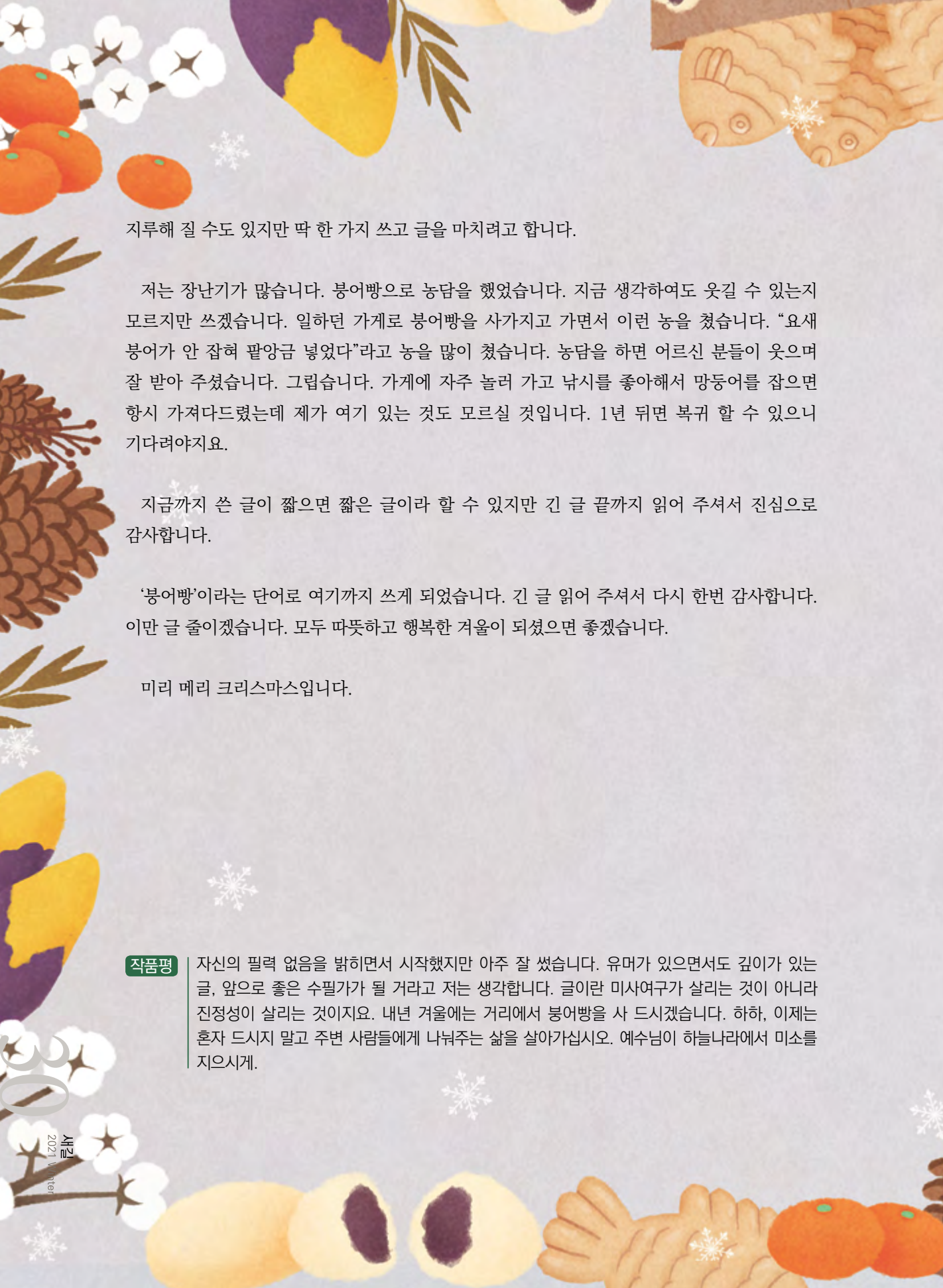
저희집 봉세권이라 하였지요? 간혹가다가 붕어빵 사려고 하면 붕어빵이 없어서 줄까지 서서 사가지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요새 붕어빵 파는 곳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붕어빵하면 관련 군것질이 있지요? 겨울하면 군고구마부터 시작해서 군밤, 호떡 여러 가지 있지요. 생각해보면 호두과자랑 땅콩과자 그리고 계란빵은 요새 길가에 파는 그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근데 종이봉지에 담겨있는 붕어빵 맛이 날까 싶습니다. 전 매 겨울에 가장 좋은 것이 붕어빵, 호떡을 팔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먹는 것에서는 진심이라서 ‘하하’ 딱 내년에는 먹을 수 있겠네요. 내년에 먹고 싶은 음식 다 먹을 생각하면서 위안으로 삼고 남은 흥기를 살아야겠습니다.

나이 이제 서른 넘었지만, 붕어빵은 추억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점점 사라져가는 붕어빵 가게를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밖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 뉴스랑 신문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 힘냈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글로 힘내라는 말과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무조건 이겨 낼 거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라틴어로 평화라는 말이 ‘팍스’입니다. 저희 천주교인은 평화를 빕니다로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이 인사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습니다. 가정에 평화 마음에 평화 모든 일이 잘 풀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의료진 분들, 정부 사람분들도요. 열심히 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붕어빵으로 이렇게 글이 나올지는 몰랐지만 훈훈하게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더 길어지면





지루해 질 수도 있지만 딱 한 가지 쓰고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장난기가 많습니다. 봉어빵으로 농담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여도 웃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쓰겠습니다. 일하던 가게로 봉어빵을 사가지고 가면서 이런 농을 쳤습니다. “요새 봉어가 안 잡혀 팔앙금 넣었다”라고 농을 많이 쳤습니다. 농담을 하면 어르신 분들이 웃으며 잘 받아 주셨습니다. 그립습니다. 가게에 자주 놀러 가고 낚시를 좋아해서 망둥어를 잡으면 항상 가져다드렸는데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실 것입니다. 1년 뒤면 복귀 할 수 있으니 기다려야지요.

지금까지 쓴 글이 짧으면 짧은 글이라 할 수 있지만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봉어빵’이라는 단어로 여기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작품평**

자신의 필력 없음을 밝히면서 시작했지만 아주 잘 썼습니다. 유머가 있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글, 앞으로 좋은 수필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이란 미사여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살리는 것이지요. 내년 겨울에는 거리에서 봉어빵을 사 드시겠습니다. 하하, 이제는 혼자 드시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미소를 지으시게.



# 붕어빵에 담긴 어린 나의 사춘기



이재열

2007년 겨울, 경기도 ○○군 어느 시골에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13살이었습니다. 전교생이 겨우 120여명뿐인 시골학교에서 유년시절을 보내 제게는 학교 앞 분식집은 TV 드라마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날, 그 시골에서 선물처럼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붕어빵' 장수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학생의 어머니께서 시작하신 시골 마을의 작은 사랑방 같은 곳이 생겨났습니다. 학교 후 학교 앞 슈퍼마켓이라고 부르기에라도 작은 구멍가게 뿐이었는데 학생들은 새로 생긴 그 붕어빵가게 앞으로 모이곤 했습니다.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그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용돈이 3,000원 이었는데 붕어빵은 1,000원에 4개씩, 처음 맛본 붕어빵은 용돈 받기 무섭게 제 지갑을 가볍게 만들곤 했었지요. 그래도 배불리는 먹지 못해 항상 아쉬웠던게 기억이 납니다. 친부의 부재로 편모의 가정에서 자란 제게 홀로 먹는 저녁이 싫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식사 대신 붕어빵을 먹고 싶다.' 라는 생각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추억의 붕어빵은 제겐 왠지 모를 아픈 기억입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자란 저는 성인이 되고 군입대전 서울 ○○○ 고시원에서 지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그 시절 고시원 또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8만원에 월세 38만원,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에 불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곳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대략 4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지내는 고시원에 하나 있는

밥술, 언제 지은지 모를 색 바랜 누런 밥에 김치로 배 채우던 그때….

저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소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라는 다짐입니다.

남들이 먹는 밥보다 못한 밥을 먹을 땐 먹을수록 열등감이 정신적으로 나를 더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고 자리를 잡아갈 즈음, 이제는 저는 붕어빵을 돈이 부족해 아쉽게 자리를 뜨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 붕어빵으로 배를 채우고 식사대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의 꿈꾸었던 소박한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허나, 욕심을 부려 면허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계속된 운전으로 한 번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직업은 영업이기에 어쩔 수 없다’ 라는 자기 위로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고 결국 2020년 11월 13일 이곳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 돈, 돈 거리며 쫓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곳에 와서 생각해봅니다. 삶에 있어 내 그릇이 굉장히 크고 깊은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 제 기대치만큼의 크기가 아니라 상당히 작고 소박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른의 사춘기는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끝이 난다는 제 사춘기를 끝내고 진짜 어른이 되어야겠지요.

다시 사회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며 호호 불며 붕어빵을 나눠먹을 수 있는 그때가 찾아오길 바라며, 저는 남은 행기를 더 보람차게 보내야 겠습니다.

#### 작품평

행복이 별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 붕어빵을 같이 먹는 것, 손잡고 산보하는 것, 뭐 그런 것이죠. 요양병원에 문병 가거나 상갓집에 가거나 수용시설에 특강하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영어의 몸이 되게 합니다. 사회에 복귀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고서 호호 불며 붕어빵을 나눠먹을 그대의 소원이 이뤄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 눈물 젖은 붕어빵

전진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겨울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는데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로 시간이 흐름을 느끼네요. 이런 날씨에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저는 유독 생각나는 지난 시간이 있습니다. 붕어빵... 지금같이 쌀쌀한 시기에 작은 따뜻함을 주는 행복이지만 저에겐 마음이 찢어지는 따뜻함입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10여년전 세상을 무서움에 떨게 했던 신종플루 기억하시나요? 그때에 심각한 전파와 치료제의 부재로 병원들은 비상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저에게 가혹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죽지못해 살아야했던 시간이었죠.  
정말 살길이 막막했어요. 하지만 저 또한 지켜야하는 저의 보물 아들이 있었기에 주저앉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힘들 때는 시련과 고통이 같이 오는 걸까요?  
어린 아들이 고열로 심하게 아픈데... 선뜻 병원에 갈 수가 없었죠.  
신종플루면 어쩌지? 당시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검사비에 격리실에... 그래도 아동병원이 있어 아픈 아이들 데리고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때 처음 아동병원을 알았어요.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됐고 저는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일용직으로 벌수 있는 것도 힘이 들었죠.



남편 혼자 벌어야 했고 그곳에는 아이 또래 아이들이 많았어요. 어린 아이는 속도 모르고 다른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간식거리에 저를 졸랐고 그런 아이를 달래며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때 너무 없던 처지에 그저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우리 아들이 제일 즐거워했던 시간이 아빠가 일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당시 외진 곳에 있던 병원 근처에는 편의점도 없었는데 작은 봉어빵 노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봉어빵을 사주며 달래주었거든요. 어린 아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봉어빵을 사주면 그저 행복하다며 양손에 들고 엉덩이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그때 아이 미소는 정말 세상을 갖은 듯 했어요. 하지만 퇴원시기가 다가오면서 저는 병원비 고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걱정이었는데, 멀리서 아들이 양손에 봉어빵을 갖고 오면서 제 입에 쑥 넣어주며 “맛있어 엄마 먹어~”라며 얘기하며 씨익 웃는데…

한손에 든 봉투에는 4살 아이가 들기 힘들 정도의 봉어빵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 앞에 노점으로 갔는데 주인 노부부님은 씨익 웃으며 아들이 효자예요. 돈을 모두 냈으니까 그냥 드세요 라고만 하시며 제 등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계속 마다하시는 두 분을 뒤로하고 아들에게 물었는데 아들은 계속 엄마 준수가 돈 냈어. 준수 예쁘지? 착하지?를 말하는데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가서 꼭 전해주라고 무슨 일인지 알아오라고 했더니 또 아이의 손에는 봉어빵이 한가득 담긴 봉투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어 남편을 바라보았더니 눈물이 글썽이는 아이 아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저의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 아들이 효자더라고요. 정말 그걸 보며 한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 손에는 장난감 돈 천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신이 나서 봉어빵을 잔뜩 물고 있는 아이를 정말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도 봉어빵 좋아한다며 아이가 장난감 돈을 내면서 “3천원어치요”라고 했는데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 신이나 있어서 두 분이 거절을 못했다고 짧으니까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식 위해서 못할게 어딴냐고 다독여주셨다고…

진료가 모두 끝나고 불이 꺼진 2층 휴게공간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잠든 아이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엄마이니까 강해져야 한다고….

그리고 붕어빵을 먹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났지만 너무 행복했고 맛있는 붕어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큰 아이나 작은 아이가 그 아동병원을 갈 때면 꼭 들렀던 붕어빵 가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꼭 갑니다. 그때 그 눈물 젖은 붕어빵을 먹으면서 나 스스로와 약속한 맹세를 다시 생각하며, 이곳의 시간을 가족에게 미안함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거든요. 처음부터….

전 두 아이의 엄마이니까요. 그리고 격려해주신 두 노부부께 감사하다는 말 다시 꼭 전하고 싶네요.

쌀쌀한 날씨에 따뜻함과 달콤함을 전해주는 붕어빵처럼 이제는 두 아이와 함께 따뜻함을 전하는 봉사도 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은 붕어빵 엄청 좋아합니다.



**작품평**

네 살짜리 아들이 장난감 종이돈을 내밀었는데도 붕어빵을 잔뜩 주신 아동병원 근처 노부부의 아름다운 마음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가난한 젊은이(남편)에게 해준 말을 잊지 않고 있네요.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 신이 나 있어 붕어빵을 주었다고, 젊으니까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식 위해 못할 게 어디 있냐고.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는 눈물 젖은 붕어빵을 드셨다고요. 그래요, 이제는 따뜻함을 전하는 그 붕어빵 상인 노부부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 붕어빵과 어머니



엄은우

어머니는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셨다. 국도 찌개도 부침개도 가장 뜨거울 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음식을 만드셨다. 팔팔 끓여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국을 식탁에 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스 불을 끄지 않고 불 앞에 서계신 어머니를 보며 뜨거운 국만큼이나 식을 줄 모르는 어머니의 가족 사랑도 함께 느껴져 마음속까지 훈훈해지는 식사시간이 되었다.

추운 겨울이 되어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 길거리에서 따끈하게 구워낸 붕어빵을 팔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한 번씩 붕어빵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다. 바삭하게 구운 비늘무늬 몸통에 달콤 따끈한 팥 앙금이 들어 있는 붕어빵은 추위가 심할수록 더 맛있고 그 따끈함에 빠져들게 되는 정감 있는 먹거리였다.

어머니는 입맛이 없으실 때 밥 대신 붕어빵을 더 맛있게 드시곤 했는데, 갓 구워낸 뜨거운 붕어빵 몇 봉지를 사서 집에 가면 식어 버리는 탓에 뜨거운 맛이 사라져 어머니는 몹시 아쉬워 하셨다. 뜨거운 붕어빵을 드시고 싶은 어머니를 위해 패딩 옷 속에 붕어빵을 품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붕어빵의 온기가 체온을 데워주며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기분 좋은 느낌까지 덤으로 따라왔다. 따끈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붕어빵을 집에서 나눠먹는 행복감은 겨울마다 찾아오는 선물 같은 느낌이었다.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 부부는 미리 구워 놓은 붕어빵 말고 방금 구운 뜨거운 붕어빵을 가져가려고 기다리는 나를 처음에는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금방 구운 붕어빵을 담아가면 들러붙어서 납작해진다고 잔소리를 했지만 덕분에 차츰 나를 기억하게 되어 나중에는 붕어빵 한 두 개씩 더 담아주었다. 겨울이 올 때마다 그 붕어빵 노점을 찾아가는 동안 가끔씩



주인아저씨가 안보이고 다른 분이 대신 나와서 붕어빵을 굽고 담아주는 때가 많아졌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몸이 안 좋아져서 한 번씩 신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다시 돌아온 지난해 겨울, 붕어빵의 계절이 되자 다시 찾아간 그 붕어빵 노점은 몇 번을 오가며 보아도 사라지고 없었다. 추운 겨울 내내 길거리 찬바람을 맞으며 매일 붕어빵을 만들어 팔다가 몸이 상해서 결국 장사를 그만둔 모양이었다.

해가 지날수록 겨울 거리 붕어빵 노점은 점점 보기 힘들어 지는데다 늘 찾아가 사먹던 붕어빵도 이젠 맛 볼 수 없게 되어 그냥 돌아오는 길은 더 춥고 썰렁한 느낌뿐 이었고 “붕어빵 몇 마리 드려요?”라고 정감 있게 대해주던 노점 주인 부부도 더 이상 안보이니 마음까지 행해져서 지나간 겨울이 그리워졌다.

이제 곧 겨울 그 동안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당뇨병이 생기셔서 붕어빵 같은 단 음식은 피해야할 음식이 되고 말았다. 요즘은 붕어빵이 아니라도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 나지만 겨울거리에서 몇 천원 주고 사먹던 붕어빵만큼 소소하지만 마음에 와 닿던 겨울의 행복감은 이제 느끼기 힘들어지니 지나가 버린 겨울철 붕어빵이 더 그리워진다.

내가 누리는 일상의 행복도 붕어빵처럼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지난 겨울 깨닫게 되었지만, 이번 겨울은 붕어빵뿐만이 아닌 이전에 누리던 많은 것들과 소중한 가족과도 떨어져서 보아야 하는 많은 것이 달라져버린 겨울이 되었다.

겨울이 다가와도 붕어빵은 이제 지나간 과거 속의 기억으로만 남아있겠지만 떠올릴 때마다 붕어빵을 좋아하시던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추억으로 살아나듯이, 올 겨울은 내가 떠나 왔지만 마음속에 남아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과 추억을 많이 떠올릴수록 더 가슴 훈훈한 겨울이 될 듯하다.

**작품평**

“내가 누리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구절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갓 구운 붕어빵을 사가려 추운 길에서 기다린 아들, 패딩 옷 속에 품고 간 효자가 지금 그곳에 왜 계시는 겁니까. 하지만 어느 겨울, 어머니와 손잡고 길을 가다가 붕어빵 노점을 지날 날이 오겠지요. 그럼 새 붕어빵이 구워지길 기다리며 떨며 서 있던 그 시절을 얘기하십시오. 참 죄송했던 겨울이 너무 길었노라고.



# 추억의 뜨거운 붕어빵



이제연

붕어빵에 대한 추억은 어렸을 적 다니던 눈 내리는 학원가 앞에서 시작되었다.

학원에서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뛰쳐나와 동그란 새하얀 눈을 던지고 던지며 놀다가 어느덧 쉬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재빠르게 학원가 앞에 있는 붕어빵 집으로 달려가 외쳤다. “슈크림 3개랑 팔 3개요!! 5분 안에 가야 해요! 빨리해주세요!” 총 2,000원, 친구들 3명과 함께 각자 500원씩 모아 2,000원을 낸 뒤 아주머니가 만드는 붕어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뜨겁게 달구어진 모형 틀 팬 안에 팔, 슈크림, 낫은 노란 주전자에 담긴 반죽을 들이부었다. 5시 28분이다. 2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마침 “맛있게 먹어라.”라는 말소리와 아주머니는 붕어빵 6마리가 담긴 흰 봉투를 건네주셨다.

무엇이 슈크림인지, 팔인지 구별할 틈도 없이 한 개를 집어 물어 삼키며 학원 계단을 5층까지 단숨에 뛰어올라 도착했다. 1분 남았다. 학원 문 앞에서 남은 붕어빵 2개를 먹을 사람 2명을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였다. 친구 1명과 내가 먹게 되었다. 붕어빵, 붕어빵이 뭐라고 그때의 난 진심으로 행복했던 것 같다.

학원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했다. 남은 뜨거운 붕어빵을 불어먹을 기세도 없이 입천장 다 까져가며 굴~떡 넘기니 5시 30분 딱 맞게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임무를 완수한 것 같은 느낌에 짜릿하고 동시에 지각하지 않아 안도감이 들었다. 붕어빵이 뭐라고 열정을 쏟아부은 느낌이었다. 어렸을 적을 떠올려 보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았는가?

나에게 붕어빵이란 어린 날의 시절 같다. 돌아가고 싶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제는 맞서

싸우고 부딪혀야만 하는 벽이란 현실이 무섭기만 하다. 그 붕어빵은 알고 있었을까? 아무것도 몰랐던 붕어빵이 좋았던 것 같다. 뜨거운 붕어빵은 촉촉 시린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남게 한다. 달디단 팔과 바삭한 겉껍질로 이루어진 붕어빵을 먹던 계절이 오고 있나 보다. 나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20살의 시작과 끝을 보내고 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은 밖에서 놀고 있을 시간인데’, ‘친구들 앞에 내가 보이면 기억이나 할까?’, ‘가족이 아프고 사고를 당하진 않을까?’ 수많은 잡념이 쉽 없이 내 머릿속 안을 강타해온다. 그럴 때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거나 어느 날에는 더 열심히 책도 읽어 깨우치고 영어 공부도 한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며, 자려고 누우면 학창 시절 내 방황으로 슬퍼하셨던 부모님이 선명해져 소리 없는 눈물을 닦으며 많은 다짐과 함께 잠이 든다.

변화는 해야 한다. 끝없는 자책과 후회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것 또한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고충이 있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짐을 업고 살고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서 목표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말 쉽다. 자그마한 목표도 어쨌거나 목표다. 내 1차 목표는 일기다. 일기를 1년간 꾸준히 써서, 지난 1년의 얘기를 써서 나만의 책을 출판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내를 투자하고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 많은 시련과 외로움, 고독함과 싸워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영원한 행복이란 결코 없다. 언젠간 불행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럴 때, 잘 대처해야 불행이라는 고된 산을 넘어서 빛이 바랄 수 있다. 많은 해가 지나야 자유의 빛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시린 날들을... 추억의 뜨거운 붕어빵 하나가 녹아내리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품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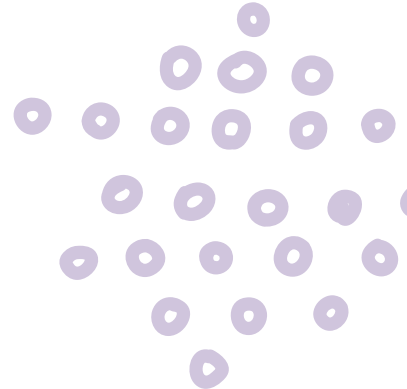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곳에 계신 것입니까. 학원에 다니던 학창시절, 네 명 악동(?)이 붕어빵 여섯 마리가 든 봉지에서 한 마리씩 먹었으니 두 마리가 남았네요. 이것을 가위바위보로 결정해 두 친구가 먹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되어 느꼈던 행복감에 대해 썼습니다. 인생의 기쁨이나 행복은 사실 별게 아니죠. 저녁 반찬으로 평소 좋아하는 게 나오면 그게 기쁨입니다. 나만의 책 출간. 그 기쁨을 함께하고 싶네요.

“테마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소감문



# 2021년 제5기 집중인성교육을 마치며 (PLUS ULTRA)

윤재훈

유럽축구의 광팬인 저는 선 굵고 힘있는 플레이의 영국 축구 스타일 보다는 티키타카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스페인의 축구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자연스레 스페인에 대해 공부했었고, 공교롭게도 스페인 국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와 지금 나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교정시설의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집중인성교육 대상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살짝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생활의 작업장을 벗어난다는 기쁨도 잠시 일 뿐이었습니다. 교육 둘째날까지는 신선함도 있었고 비록 녹화영상을 이용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었지만, 점차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국기에는 두 개의 기둥 그림이 있고, 그 위쪽에는 'PLUS ULTRA'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그리스·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의 사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우스의 외도로 태어난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의 분노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 12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저도 범죄를 저질러 이곳 ○○교도소에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 과정에서 집중인성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 교육과정 가운데 12가지의 강의(내부강사 교육 및 외부강사 중복 강의 제외)를 받아야 했습니다. 과업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끝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요정의 황금사과를 훔쳐오는 것(절도)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 절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고, 세상의 끝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후 그 기둥에 'NON PLUS ULTRA' 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집중인성교육 과정에는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교육은 없었습니다. 둘째날 교육부터 슬슬 새로움이 사라져갈 때쯤, 셋째날 집중인성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실시간 영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교육을 하니 외부강사가 실제로 현장에

와 강의를 하는 듯한 현장감이 느껴졌습니다. TV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영상의 딜레이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속결정 이후 계속해서 무의식 중에 자리잡은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질대로 떨어진 내가 교도소 너머에서 무얼 할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516년 스페인의 왕이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카를 5세는 헤라클레스가 세워둔 두 개의 기둥과 그 문구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끝은 지금의 지중해의 끝인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카를 5세는 헤라클레스가 새겨둔 문구에서 'NON'을 뺀 'PLUS ULTRA'를 통치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 후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라 여겼던 지브롤터 해협 너머 나아갔고, '무적함대'라 불리며 전세계를 제패했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새긴 'NON PLUS ULTRA(넌 플루스 울트라)'의 의미는 '이곳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지중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고, 지브롤터 해협 너머로는 항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중세 유럽인들처럼 저에게도 '구속되었으니 내 인생은 완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지브롤터 해협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카를 5세는 컬럼버스의 항해 계획을 수용했습니다. 그의 통치의 모토였던 'PLUS ULTRA(플루스 울트라)'는 '이 너머로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저 아무 도전 정신없이, 희망과 의욕없이 자리만 지킨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한걸음 한걸음 내딛었던 것입니다.

교육기간 동안 감사하는 삶, 나를 알아가는 시간, 희노애락 감정컨트롤 등의 강의와 음악치유, 힐링아트 등의 활동 등을 하며 제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던 지브롤터 해협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금방 지루해졌다고, 교육이 그저 그럴 것이라며 지레짐작하여 집중인성교육 시간을 허비했다면, 여전히 갇힌 생각 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실시간 영상교육과 같은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양질의 강의를 듣고, 마음 속으로 끝이라 생각했던 부정적인 무력함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였을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PLUS ULTRA(플루스 울트라)' 이 너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스페인 국기에 '이 너머로 나아가라'는 문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너머'에 대한 사유가 현실의 씨줄 날줄로 엮여가며 쓰여진 글이네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자신만의 방향은 스스로 선택해가는 것. 인성교육을 통해 미래를 위한 성찰이 이렇게 이뤄진다면 인생의 결말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지요.

# 어머니께 바치는 졸업장 (최고의 선물)



안준영

저는 중학교까지 나오지 못한 “일명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든 증줄 딱지를 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이곳에 와서는 5년 6개월이란 시간에 1/3은 재판으로 보내고 그 중에 남은 시간은 취사장에서 출역하며 바쁘게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빨리 흘러 사회에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검정고시 예비 시험 모집 방송을 접했습니다. 사실 저희 취사장은 라디오가 나오지 않아 방송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날은 조기입방 하게되어 때마침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순간 어릴 적 생각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더라구요. 저는 어려서 참 개구쟁이였고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가출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죠. 그 때문에 학교 수업을 나가지 못해 매일 결석 처리되었고 졸업장을 딸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 빌어서 우여곡절 속에 저를 중학교 졸업을 시키셨고 증줄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며 고등학교 진학도 하지 않은 채 매일 당구장에 오락실에 친구들과 어울리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다지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대학 졸업장이 중요하지 않았고 별로 신경쓰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깟 학교 많이 만나와도 돈만 잘벌고 잘살면 되지 뭐가 중요해 하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니 얼굴과 예전에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지 뭐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애야 그래도 니가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나중에 너의 아이 학교 부모 학력란에 고졸이라고 쓸거 아니니. 아이 창피하게 중학교 졸업이라고 쓸래? 다른 건 안 바란다.



대학은 안 나와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그렇게 제 귀에 못이 박히게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왜 그때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는지….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은 그 순간 그날로 6월 예비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여서 8월 본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본 시험때까지 독학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다 때가 있구나, 나이가 드니 머리가 굳었는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8월 11일 결전에 날이 왔고 열심히 한 만큼 후회 없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8월 30일 시험 결과가 나오던 날 너무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그때 교육팀 주임님께서 시험결과를 알려 주셨습니다. “합격.” 전과목 점수도 우수했고 국사는 만점이라며 칭찬과 함께요. 너무나도 기뻐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합격증서를 받아보았고 바로 어머니께 편지와 합격증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저에게 “정말 고생했다, 엄마 소원 중에 하나를 니가 이뤄줬구나, 우리 아들 엄마한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어서 고맙다.” 하시는 말에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며칠 후가 추석 명절이었는데 살면서 받은 명절 선물 중에 최고라는 말도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그날로 목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머니께 대학교 졸업장과 학사모를 씌워드릴 목표와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를 이곳에서 끼웠고 이제 그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을 해나가려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여서 꼭 가방끈 긴 사람이 될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수용자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그 소망하는 것이 간절하면 이를 수 있다, 그 말어요. 코로나19로 힘든 수용생활이지만 힘내세요. 다 잘될겁니다. 또한 저의 공부와 합격을 위해 지원해주신 교육팀 직원분들과 취사장 이우열 계장님, 박인수 주임님, 박재현 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취사장 반장님과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 작품평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만 온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결과를 보여줬으니 앞으로의 계획도 분명 이루고 말 것이라 믿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 도와주신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를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 인성교육



정재호

인연이라는 단어는 가끔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향기를 지니고 있다. 어떤 종교에서 설파하는 설명이 아니라도 사람 사이의 인연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실타래 속과 절대로 완전히 날개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매듭 중에 하나와 하나의 실타래로 묶여있는 것이란 생각에 이르면 인연으로 만난 사람끼리는 어떠한 계기나 환경을 떠나 우선 무척 소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교도소 생활 중에 이 또한 각별한 인연으로 마주하게 되었던 인성교육은 담장 바깥 생활에서의 인연에 의한 어떠한 경험이나 교육보다 더욱 각별한 인연이고 좋은 기회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누구나 나뉠의 생각과 주장으로 억울함을 느낄 수 있고 억울함과 개인적 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로 힘들고 어려운 영어의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박탈이라는 무서운 형벌로부터의 중압감으로 도무지 여유로운 사고나 행동의 미학은 냉정하게 거절되는 교도소 수형 생활에서 만나는 인성교육은 그 고유의 목표인 재범 방지와 교화, 사회적응을 떠나 그동안 너무나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밖에서의 생활을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인연이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 중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과 가장 잘한 일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몇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건 행운이었고 보람이었다.

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여러 사정으로 돌이켜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었고 돌이켜 볼 기회가 없으므로 인해 잊고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매듭이 되었다. 반면 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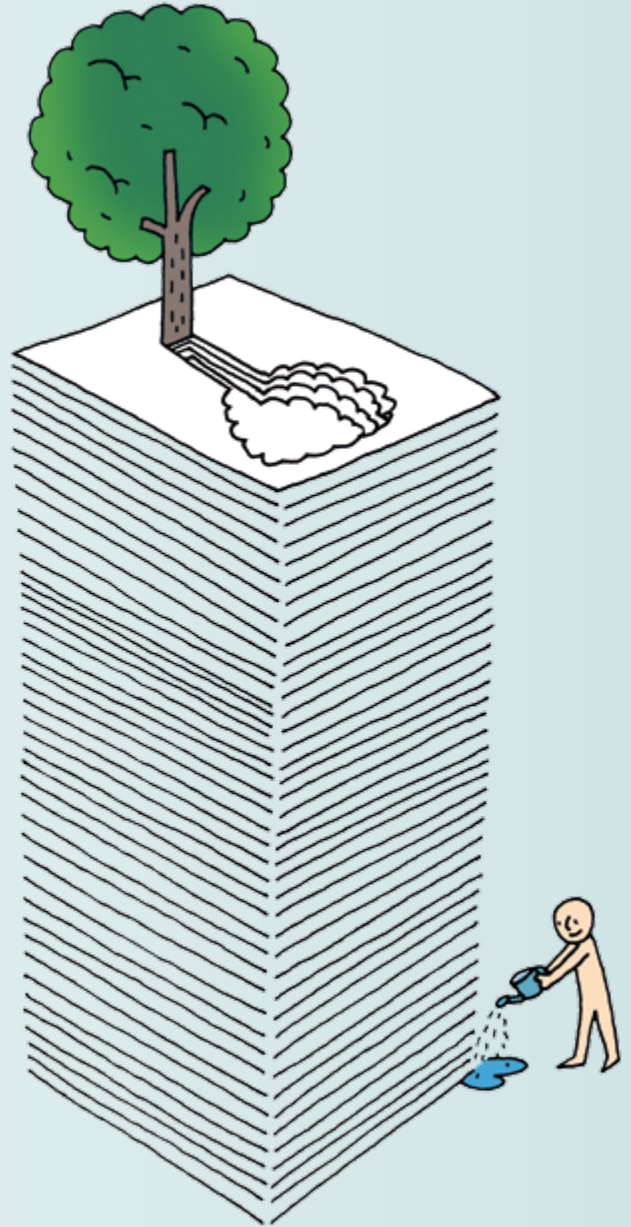
교육, 가정폭력 교육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 해당 원인으로 이곳에 와있는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시간(순서)에 있었던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과목에 비해 본래 인성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여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엔 무리이고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교과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효과적으로 단축된 56시간의 인성교육 속에 분포된 여러 프로그램과 강사들의 열정적인 강의는 매우 감동적이었고 인위적이고 억지로 듣고 학습하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나라와 남아있는 가치가 충분한 교육이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

“소감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



**작품평**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바른 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인성을 갖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더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은 배움으로 나눔으로 채워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자세라 여겨집니다.



## 나의 퀘렌시아 (querencia)



김유리

퀘렌시아(querencia). 스페인어로 소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본능적으로 경기장 한 편으로 가서 자신의 피난처를 삼는 장소이다.

삶에서 소중한걸 잃었을 때, 매일이 단조로워 주위가 무채색으로 보일 때, 상처받아 무너질 때, 정신이 고갈되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갈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퀘렌시아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21년 5월 12일, 법정에서 구속이 되어 법무부 차를 타고 오면서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가 구치소에 도착해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잠기는 소리에 첫 두려움을 느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대신 'OOOO' 라는 수용번호로 불린다고 한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된 기분이다, 수용번호라니, 이름대신 숫자라니. 이런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는데.

구속되기 전, 이 재판이 길어지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에 종양이 생기었고 수술하였던 기록이 있어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외부검진을 하게 되어 보호자인 엄마가 OOOO병원으로 오셔서 만날 수 있었다.

교도관 직원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내 검진이 마칠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수속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나는 구치소로, 엄마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휠체어에 타 있는 채로 “잘가고, 몸 조심히 건강챙겨”라는 인사를 듣고 방향을 주차장쪽으로 돌려 가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주차장쪽으로 눈치를 보시며 꾸벅꾸벅한 걸음으로 따라오시며 계속 “잘가, 우리딸”을 해주시는 것이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신채로, 울음을 참으신 채. 그 모습을 보고 본 거실로 돌아와 서러움이 터져서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다음날, 이모에게 온 인터넷 서신에 엄마가 “내 딸인데, 내가 낳은 내 딸인데. 김밥 한 줄 못 먹이고 남의 손에 맡겨야 하고. 말 한마디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남의 손에 맡긴채 데려가는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게 이제 말이 되니, 내 딸인데”라며 나를 보내신 그 주차장에서 이모에게 전화하셔서 목이 메이실 정도로 우셨다는 이야기에 설움이 폭발했다.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걸까, 내손으로 대못을 박았구나, 평생을 내 뒷바라지만 해오신 엄마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안겨드렸구나, 그럼에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매일 서신을 보내주시며 늘 마지막엔 “사랑해. 우리딸”로 마무리 해주시는 모습에 나의 퀘렌시아(querencia)는 엄마의 곁이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 들어온지 회사로 치면 벌써 반년차 인턴,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호저의 딜레마’라는 말처럼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 밀착하지만 닿으면 고통을 느끼는 고슴도치들처럼 사람에게 의지하고, 상처받고, 또 믿어보며 사람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걸 그 길고도 짧은 시간 속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를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작은세상, 작아보이지만 큰 사회, ‘형기’라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임을. 남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뉴스에 나오는 일들은 나와는 관련없는거라 생각하고 살았던 나 자신의 오만함에 고개를 떨구게 됐다.

남들과 조금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지만, 나뿐이 아니라 누구나 끝을 향한 카운트다운의 인생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 인생의 엔딩크레딧은 내가 만들어 가는거고, 내 인생에 얼룩이 생겼다고 해서 나의 전부가 엉터리가 되지는 않는거라고, 아무도 나 자신의 힘듦의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거고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니 자신만의 퀘렌시아를 찾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작품평** :길을 잘못 선택해서 실수를 했다 해도 나만의 퀘렌시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취적인 기상을 충전한다면 나의 퀘렌시아는 인생에 있어 선포와도 같은 필요한 것임을 간결한 글을 통해 잘 보여준 글입니다.

## 겨울만 되면 절로 그리워지는 그곳

이경로

백두대간의 덕유산에서 서쪽으로 내려 뺀 노령 산줄기는 완주 운장산과 김제 모악산, 그리고 정읍 내장산을 거치며 고창 선운산까지 이어진다. 그 여러 산 중 김제 모악산의 어느 산자락 아래에 가면 지붕 낮은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외딴 마을 하나가 나오는데, 작은 산골 마을답게 마을 안팎이 워낙 조용하고 아늑해 운치 가득한 고즈넉한 정경이 절로 펼쳐진다. 그래서인지 그 마을에 들어서면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정취에 젖게 하는 구조물 하나가 눈에 띄며 가장 먼저 시선을 잡아끄는데, 다름 아닌 구불구불 길게 늘어서 있는 아주 오래된 돌담길이다. 마치 세월이 내려앉은 듯 검푸른 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 그 돌담길은 흡사 복잡한 미로처럼 마을 안쪽으로 쭉 이어지며 시골 마을의 정겨움까지 한껏 자아내는데,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시나브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세월의 흔적이라도 되는 것 마냥 여기저기 허물어 내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하긴 그 옛날 황량한 땅을 전답으로 개간하다 그 과정에서 나온 돌들을 마을로 옮겨와 벽돌담 대용으로 대충 쌓아 올렸기 때문인데, 물론 줄속이라고 해도 말이 쉽지 그 돌담을 쌓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돌담을 쌓기 위해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 수고가 꽤 오랜 시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시골 마을 중 어지간히 큰 마을이라고 해도 돌담길을 찾아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하튼 이른 봄 돌담 위로 하얀 목련이 불쑥불쑥 피어나는 그 돌담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 골목 끝 마을 한 귀퉁이에 허름하기 그지없는 집 한 채가 나오는데, 바로 내 고향집이다.

비록 누추하고 보잘 것 없는 집이지만, 그래도 그 고향집에 들어서면 사시사철 언제나 늘 정갈하고 단정하게 쓸려 있는 나부죽한 마당이 먼저 반긴다. 그 마당 한구석엔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군데군데 갈라진 두터운 수피를 투박하게 매단 채 높은 키를



자랑하며 우뚝 서 있는데, 세상을 붉게 물들였던 가을 끝자락 만추가 지나고, 겨울로 접어들 무렵이면 언제나 그랬듯 높디높은 가지 위엔 까치밥으로 남겨진 홍시 몇 개가 위태위태함을 무릅쓴 채 옛붉은 자태로 매달려 있었다. 그 감나무 아래부터 시작된 불품없는 돌담은 나뭇한 마당을 빙 두르고 있는데, 불품조차 없어서 그런지 산뜻함이나 화려함 같은 멋스러움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 뭉치 모르게 허술하게 보이고, 웬지 모르게 너저분하게 보이는데,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아주 오래전 농지 개간을 할 때 이리저리 밭에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돌들을 하나 둘 주워와 정해진 설계나 일정한 규칙도 없이 그저 눈이 가고 손이 가는 대로 대충 쌓아 올렸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리 높지 않은 돌담은 앞마당을 한 바퀴 빙 돈 다음 뒤뜰까지 이어져 있다. 그 뒤뜰은 찾아오는 여름마다 접시꽃과 봉선화가 자줏빛 붉은 꽃을 매년 수줍게 피워 냈는데, 이따금씩 꽃들의 소곤거림에 어디선가 불어온 산들바람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괜시리 제자리만 빙빙 돌며 해찰하기 일쑤였다.

그 여름날 산들바람이 헛되이 땀뭍았던 뒤뜰 한쪽엔 울망줄망한 장독이 단출하게 모여 있는 장독대도 자리하고 있는데, 불같은 땀방울이 내리쬐는 한여름엔 그 염천 덕분에 장이 맛있게 익어 갔고, 요즘같이 하얀 함박눈이 소복이 내려앉는 겨울날에는 도란도란 들려오는 누이들의 수다를 하나하나 알뜰하고 소중하게 담아 뒀다.

세월이 한참 지나면 훗날 추억 가득한 옛이야기로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 특히 매년 이맘때가 되면 뒤뜰을 빙 에워싸고 있는 불품없는 돌담과 그 아래 다소곳이 자리하고 있는 장독대에 실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다. 다름 아닌 돌담 위로 하얗게 휘날리는 함박눈 때문인데, 그렇게 돌담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으면 그게 효시가 되어 장독대에도 곧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가는 하얀 눈과 들쭉날쭉 모여 앉은 장독 위로 소복소복 쌓여 가는 하얀 눈은 새하얗다 못해 눈부시기까지 하는데, 심지어 눈이 웬만큼 쌓여 가면 춥고 차갑다는 느낌은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고 일순 포근한 감정이 일며 외려 따듯한 느낌마저 느껴진다.

요컨대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가는 그 광경이야말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없는 절경 중에 절경이고, 진풍경이 따로 없는데, 하지만 지금의 내 처지는 유년 시절 내 그림자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 요즘처럼 하얀 겨울만 되면 마냥 그리워지는 그곳인데, 질곡에 의해 손발이 묶인 신세이다 보니 자의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당금의 현실 때문이다. 대신 되지도 않는 시 한 편을 지어 어쭙잖게 한번 읊조리며 잠시나마 그 그리움을 달래 본다.

## 하얀 그리움

동천(冬天) 어느 밤 고이 잠든 이곳에  
함박눈 소리 없이 소복이 내려앉으면  
박꽃 닮은 고운 미소 절로 떠오르고  
한 송이 두 송이 밤새 내린 하얀 눈  
잠든 어둠 살며시 하얗게 밀어내면  
높다란 담장 위로 그리운 얼굴 그려진다  
아무것도 없는 횡령그렁한 하늘 위  
그림자 하나 달랑 매단 저 둥근 달아  
곱디고운 은빛으로 세상 밝히느라 정신없겠지만  
내 고향집 비출 때 내 소식 좀 전해 주렴아

홀로 뜬 달 벗 삼아 정처 없이 떠돈 세상  
배운 것 하나 없고 건진 것 하나 없이  
가슴 한 칸 얽혀진 커다란 바윗장만  
헛살았던 젊은 날 효양(孝養) 한 번 못하고  
늘그막 뒤편길에 남겨진 단 하나는  
새까맣게 새겨진 홀어머니 얼굴뿐  
담장 너머 빈 하늘 한 점 그림 되어서  
머나먼 고향 찾아 날개 젓는 저 철새야  
수만리 귀향길 날갯짓하기도 바쁘겠지만  
고향 하늘 지날 때 사랑한다는 말 좀 전해 주렴아



작품평 :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사계의 풍경들이 영화처럼 펼쳐지는 내용이 따뜻한 문체와 함께 돋보이며 이 얼마나 알알이 소중한 기억들인지 작자의 마음이 잘 전달된 글입니다.



## 가족캠핑



박성훈

2018년 추운겨울, 금요일 오후 사무실 창밖엔 싸리눈이 휘날리는 것이 굳이 나가보지 않아도 코가 시린 추위가 느껴진다. 퇴근시간 까진 2시간여 남았지만 벌써부터 와이프의 카톡이 쉴 새 없이 울려 댄다.

삼겹살, 닭, 야채, 생수, 고구마, 맥주 등등등... 퇴근하며 사야할 목록들이다.

난 20년째 거의 매주 금요일 밤 가족캠핑을 가고 있다. 20대 초반 건설업에 뛰어들어 나는 일과 여행 이 두 가지 목표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평일 늦은 밤까지 일하며 틈틈이 주말 여행지를 검색하는 것이 힘든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낙이었다. 제시간 퇴근한 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어느 정도 회사가 자리를 잡아갈 쯤 과도한 피로누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평상시 주말에 쉬었으면 없을 일이었지만 내겐 회사만큼 여행도 중요했다.

입원한 시간도 아까운 차에 눈에 들어온 예쁘고 상냥한 간호사, 이참에 결혼해야겠다는 본능에 몸을 습관처럼 간호사에 최선을 다해 구애했고, 결국 세 아이를 낳아준 와이프가 되었다.

처음 만나 20년간 매주 떠나는 여행이 힘들 법도 한데 매주 짐싸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천생연분인 듯하다. 많은 곳을 여행하다보니 언젠가부터 매주 여행지를 선택하기 어려워질 때 즈음, 와이프가 평일 TV '여섯시 내 고향'을 보고 그 주에 나온 곳 중 여행지를 선택하는 곳 아이디어를 냈다.



자연스레 매주 새로운 지역, 계절 먹거리, 지역명소, 특산물 등...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 간혹 TV에 나온 가게 등 현지 분들을 만나면 TV보고 왔노라면 반갑게 많은 애정을 보여주어 항상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우리 가족의 여행 짐은 아이의 숫자만큼 늘어났고 5식구가 매주 짐싸는 일은 아마도 남들은 버리고 해야 할 일이지만 아이들마저 익숙해진 우리 가족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텐트, 타프, 의자, 난로, 침낭, 주방용품 등등등...

끝도 없는 장비들은 와이프차 트렁크에서 특별한 날(계절의 변화 등)없이는 항상 실려 있고 떠나기 전 옷가지와 식료품등 만 챙기는 것으로 간소해 졌다.

5시 땡!

사무실을 나와 마트에서 황급히 장을 보고 집 주차장에 도착하니 가족들은 와이프 차에 이미 타있다. 지각생이라도 된 듯 장본 것을 내려놓고 집에 들러 옷만 갈아입고 핸들을 잡는다. 숨가쁜 하루 드디어 출발이다.

차는 출발 했지만 이번 주엔 딱히 여행지를 정하지 못했다. 가끔 이럴 때면 우리 가족의 최애 여행지, 이미 수십 번은 다녀온 '충북 괴산 화양계곡'으로 향한다.

속리산 뒤편인 화양계곡. 수려한 산새 깨끗하고 넓은 계곡, 기암괴석, 계곡에선 보기 드문 백사장 등 계속에 줄이어 9가지 절경이 있어 화양 9곡이라고도 한다. 짐채만 한 바위위로 흐르는 계곡은 여름엔 물놀이를 하면 신선이 부럽지 않다(국립공원 이지만 계곡 물놀이가 가능한 국내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이다).

지금처럼 겨울엔 온통 새하얀 캠퍼스의 멋진 산수화를 보는 듯 착각이 들 정도이다. 특히 극심한 휴가철 외엔 아는 이가 많지 않아 조용히 자연을 만끽하기 매우 좋은 곳이다.

달리는 차 창밖으로 내리던 싸리눈은 '괴산'이란 이정표가 나오자 큼직큼직한 함박눈으로 변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집 떠난 지 2시간여 어두운 밤 도착한 캠핑장, 새하얀 멋진 산수화, 화폭 안으로 들어온 우리 가족으로 인해 그림속이 아닌 현실로 바뀌고, 보드득 보드득 눈 밟는 소리가 재미난 듯 한발





한발 감촉을 느끼며, 소리에 웃으며, 아이들이 무수한 발자국을 찍는 사이, 손발이 척척 맞는 우리 부부는 들판의 느티나무 밑에 금세 대형 텐트를 치고 온갖 짐들을 일사분란하게 정리한다.

우리가족 외엔 인기척조차 없는 깊은 산중, 새하얀 설산에 둘러싸여 우리 앞에 넓게 흐르던 계곡은 눈 덮인 산길이 되어 설산들을 연결하고, 새까만 하늘 금화같이 둥근 달은 황금빛을 밝히고 무수히 많은 반짝이는 별들은 함박눈이 되어 떨어지는 광경을 보니 신선이라도 된 듯 흡족한 우리 부부는 역시 잘 왔다는 눈빛을 건넨다.

와이프와 큰애가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난 캠핑장 빈 관리실 작은 리어카를 끌고 와 오픈카라며 두 녀석을 태우고 언젠가 보아둔 간벌한 나무를 모아둔 곳으로 신나게 오픈카를 몰고 깔깔대며 좋아하는 두 녀석의 웃음소리에 추위도 잊은 채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늦은 저녁식사 설산들 틈에서 먹는 삼겹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의 맛이다! 식후 오늘의 하이лай트 모닥불을 준비한다. 차곡차곡 장작 탐을 쌓고 나만의 노하우인 불붙인 양초를 장작탑 가운데 세우고 그 위로 각종 폐지를 넣자, 어두운 밤 전등을 켜듯 주변이 환해졌다 이내 어두워졌다가 다시금 천천히 밝아오며 따뜻함도 같이 전해졌다.

모닥불 곁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자 밤 10시 FM라디오에서 울리는 반가운 목소리 '최백호의 낭만시대' 70·80에서 90·20까지 내 어릴 적부터 젊은 시절까지 들었던 노래들이 두 시간 동안 나를 학창시절 추억으로 빠져들게 한다.

고등학생이 된 큰 아이는 종종 옛날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냐 감탄하며 가수는 누구며 제목은 무엇인지 묻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

지금 들어도 참 좋은 노래들이 많다. 활활 타던 모닥불도 지친 듯 암전히 붉은 숯만을 남기자 이내 고구마가 등장한다.

은박호일을 적당히 끊어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제법 능숙한 솜씨로 싸서는 눈치껏 숯이 좋은 곳에 묻어 둔다. 고구마를 넣으려 숯불 가까이 간 막내는 고구마를 급히 숯불에 던지곤 얼굴이 뜨겁다며 획 돌아 앉아 눈을 한 움큼 집어 얼굴을 문지르더니 이내 갑자기 등이 뜨겁다고 소리 지르며 눈발을 뒹구른다.

온가족이 깔깔 웃으며 고구마가 익어가는 동안 각자의 이야기를 건넨다. 붉은 빛을 잃어가는 숲더미 속에서 꺼낸 고구마들을 눈발에 던지자 사방에서 치이익~치지직~하얀 수증기를 뿜으며 맛깔스런 소리를 낸다.

껍질을 벗기자 노란 속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한입 베어 물자 부드럽고 달콤한 고구마가 끈적이며 목을 타고 내려가니 뱃속까지 따뜻해지며 절로 가족들 얼굴엔 미소가 번진다. 그저 행복하기만 하다.

항상 불평 없이 씩씩하게 잘 노는 세아이들. 마음속에도 여러 추억들이 마음깊이 자리 잡아 어른이 되어 큰 향소로 남길 바라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여행을 같이 하자 다짐을 한다.

사업하며 생긴 분쟁으로 1심 무죄 받은 것이 2심에서 뒤집혀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 되었다. 2년간 이곳에서 괴롭고 힘들 때 마다 사색에 잠겨 지난 추억을 하나씩 꺼내 회상하며 마음에 큰 위안을 삼았다. 이렇듯 힘들고 지칠 땐 추억이 여행이 큰 위안이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낀 나는 힘들어 하고 있을 와이프에게 아이들과 예전처럼 여행 갈 것을 권했다. “말도 안 된다 싫다 나오면 그때 같이 가자”라고 하던 와이프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지금은 한 달에 한번 아이들과 여행을 간다. 처음엔 내게 미안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던 가족들도 이제는 재잘재잘 어디를 어떻게 뭐하며 놀았는지 편지만 읽어도 나 역시 같이 다녀온 듯 느껴진다.

가족들이 다시 웃고 행복을 찾은 듯하여 난 이젠 편한 마음으로 남은 기간을 지낼 수 있을 듯하다. 이젠 내가 매일 '6시 내 고향'을 보며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운다.



**작품평** :가족들과의 캠핑을 통해 가정생활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들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감동을 주는 글입니다. 다시 새롭게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행복해하는 작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 서로 귀한 인연으로 만난 인연이라면

정정식

생을 살아가며 겁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불교에서 겁(劫)이란 천년에 한번 떨어지는 빗방울이 집채만 한 바위를 뚫는 시간이라고 한다. 옷깃 한번 스치는 것도 500겁(劫) 생(生) 인연(因緣)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500번 죽고 태어나야 옷깃 한번 스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귀한 인연으로 만난 우리들인데,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최소한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디서 뭐가 잘못 되었는지 정성이 가득 베인 그런 풋풋한 인정과 끈끈한 믿음과 고마움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매번 자신이 한 약속과 전혀 다른 말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이다. 처음에는 모르고 그런가 했지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는 아닐거란 생각이 들어 마음에 새기며 이 글을 쓴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속사정이 분명 있지만, 요즘 시쳇말로 약간은 장삿속이 있는 듯하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가상하고 한때 잘하여 나는 상대방에게 훈훈한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생각해보니 나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본인에게 했다고 하면 나의 마음을 구하고 인정받는 일이 아닌가. 또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누구든 마음이 움직이는 법인데 과연 이 사람은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헤아려주었을까? 다시금 묻고 싶다.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여 이것을 오해하여 모른체 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 웃어넘기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쓰름 하기도 하다. 착각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착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 술 한잔하고 필름이 끊길 때 오는 착각에서의 허상이랄까, 또렷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인데 말이다. 누구든지 간에 허상에 빠지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다 잘될 것 같은 자기만의 상상으로 일을 벌이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허상이 체면과 형식에 빠지는 것, 포장 광고와 영웅 만들기 그리고 조작된 통계들이다. 그래서 허울 같은 착각과 허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닌 올곧은 마음과 소통하고 진실과 만나야 그게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이 아닐까 한다.

소박한 한 떨기 구절초에도 별과 나비가 반응하듯, 마음속 천사가 자기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지을 때 누구든지 심장은 뛰게 마련이다. 이는 서로 마주 보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가식적인 말이나 인위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거짓과 가식 그리고 마음의 욕심 그 강한 집착들이다. 사실이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꿈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정다감한 편이라 절친한 친구로부터 간혹 참 순진(純眞)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이는 마음 씩씩이가 꾸밈이 없고, 참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약삭빠르지 못해 착한 바보 같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래서 손해 아닌 손해를 볼 때도 있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을 좋아한다. 인과관계에서 끊고 맺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탈이 없기 때문이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뒷말하는 경우를 이웃이나 직장에서 종종 본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남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이 보다는 서로 상생(相生)하여 잘살아 보자는 말이 어울릴 것 같다. 덕을 쌓으려면 작은 것이라도 꾸준하게 계속 쌓아가야만 한다. 필요한 때만 “하는 척”하고 “하는 체” 해서는 안된다. “척”과 “체”는 맑은 물을 흐려 놓기 때문이다. 덕을 쌓는 그 중심에는 가식이 아닌 진심이 자리해야만 한다. 그 사람의 노하우나 지위, 권력이나 돈 그리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참과 순수성이 절대 필요하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진심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 가식이 판을 치면 공존이란 허울 속에 허울뿐인 개혁, 허울뿐인 변화, 허울뿐인 실험 도구, 이 모두 무슨 소용이 있는지 개탄할 일이다. 죽음이 던지는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듯 우리가 힘들게 만난 인연 속에 금쪽 같은 시간이라면 그런 소소한 오해는 당장 풀어야 할 일이고 허울로 대하지는 말자는 제언이다.

서로 자성하며 매사에 진지하고 의미 있게 담아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면 어떨까 싶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오리라 믿고, 이왕 떠날 인연이라면 나 자신도 그런 인연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의 평소 지론이다.



**작품평** :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들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작자의 진솔한 성격처럼 만남과 헤어짐에 연연하지 않으며 진지하고 의미 있는 현실을 살아간다면 서로에게 귀한 인연이 되지 않을까요?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원정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커피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 놓을 수 없는 상징이 되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았다.

# 현대인의 감로수, 커피 이야기

김상철 | 동덕여대 교수

요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커피일 것입니다. 아침 바쁜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종종걸음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기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자리마다 커피잔, 혹은 포트가 놓여 있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틈만 나면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리마다 카페가 넘쳐나고, 커피의 종류와 맛도 참 여러 가지여서 때에 따라서는 커피를 통해 세대 차이를 실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다반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듯이 일상적이고 빈번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가 바로 차를 대신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은 세계 7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 문화의 종주국이라는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차는 점점 커피에 밀려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커피에 좀 더 가까운 때문이겠지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대중적인 음료는 커피라 할 것입니다.

커피는 영어로는 'coffee'라 쓰고, 식물학적으로는 'coffea'로 부릅니다. 이 말은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양치기 소년 칼디는 염소들이 붉은 콩 열매를 먹고 집단적인 흥분 상태를 보이는 것을 보고 커피의 효능을 직감하였다. 그의 발견은 커피 기원설의 하나이다.

에티오피아의 'caffa(힘)'라는 아랍어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교역이 증가하고 나라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커피도 아랍도 유럽 각국으로 퍼져 나갔지요. 그리스에서는 'caffa', 아라비아에서는 'gahwa', 터키에서는 'kahve', 유럽에서는 'café'로 불렸고 영국에서는 '아라비아 와인'으로 불리다가 1650년경 대단한 커피 애호가였던 헨리 블런트경이라는 사람이 커피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중 음료가 된 커피지만, 이를 마시게 된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분분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적어보면 먼저 에티오피아의 칼디(kaldi)라는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염소들이 붉은 커피열매를 먹고 집단 흥분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자신도 그 열매를

먹어보니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황홀함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를 인근의 이슬람 사원에 있는 사제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빨간 열매에 잠을 쫓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사제들에 의해 이후 여러 사원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커피 원두를 콩처럼 빻고 볶아서 빵에 발라 먹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라비아의 사제였던 '셰이크 오마르(SheikOmar)'가 잘못을 저질러 산으로 추방되었는데 며칠 길을 헤매다 너무 배가 고파던 나머지 새가 쪼아 먹고 있던 빨간 열매를 먹게 되었답니다. 열매를 먹은 오마르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이 열매가 가진 효능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이 열매로 잠을 쫓아 정신을 맑게 하고 피로를 덜어주는 약으로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여 성자로 높은 존경을 받았다는 설입니다.



**이슬람의 커피 하우스** | 모든 남자들이 커피잔을 들고 있을 정도로 커피는 이슬람을 상징하는 음료였다. 남자가 하루 마실 양의 커피를 준비하지 못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커피를 액체 형태로 추출하여 약으로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에티오피아 지역에서는 커피나무의 열매를 다른 곡류와 함께 분쇄하여 식량으로 취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급된 커피콩은 점차 아라비아의 여러 지역으로 뿔어나갔고, 11세기 초 아라비아의 의사들이 '위장의 수축을 부드럽게 하며 각성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하면서부터 약이 아닌 기호음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6세기쯤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던 군대가 아라비아의 남부 지방(지금의 예멘) 지역을 공격하면서 커피 또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커피를 음료로 만들어 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커피 열매를 불로 건조해 보관하던 아랍인들이 실수로 커피를 볶게 되었는데 더 좋은 맛과 향이 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를 음료로 만들어 즐기 시작했다는 설입니다. 커피가 가진 각성효과는 밤새 기도를 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했던 수도승들에게 몹시



**이슬람 귀부인의 커피 타임** | 커피 잔은 받침도 없고 손잡이도 없다. 잘 구운 과자를 곁들인 커피를 우아한 동작으로 먹는 귀부인은 무표정하지만 여유와 절제가 드러난다.

유용한 음료였겠지요.

이후 십자군 원정을 통해 커피는 유럽에 전해졌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커피가 본격적으로 유럽인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이슬람 이교도의 음료라는 이유로 "이교도의 음료, 이슬람의 와인, 악마의 유혹, 사악한 검은 나무의 썩은 물"이라고 불렸지만, 점차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침내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이 좋은 음료를 이슬람인들만 먹게 할 수 없다.'라며 커피에 세례를 내림으로써 이후 유럽 곳곳에 본격적으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커피는 1896년 고종황제가 일본의 박해를 피해 당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서 처음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그전에도 이미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으며, 궁중에서도 서양의 선교사들이나 외교관들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고종황제가 처음 마셨다는 이야기는 당시 조선의 상황과 커피의 씹쓸하고 어두운 색깔이 서로



**할렘의 여인** | 남성중심의 이슬람 사회는 남성 전용공간인 '할렘'으로 대변된다. '할렘'의 아름다운 여인이 커피를 들고 오고 있다.

닭았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커피를 '가비차'나 '가배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가배'는 '커피'의 한자 발음입니다. 또 검고 쓴맛이 나니 '서양의 탕국'이라는 뜻의 '양탕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이 인삼보다 몸에 좋다는 소문이 나기도 해서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커피나무는 200여 종류가 있는데, 보통 10m 정도까지 자라지만 대부분의 커피 농장에서는 재배와 수확의 편리를 위해 3m 정도로만 재배합니다. 심은 지 2년이면 꽃을 피우고, 3년째부터 커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열린 커피 열매를 재료로 사용하여 커피를 만드는데 열매 안에는 콩같이 생긴 열매 두 쪽이 들어있지요. 이 콩을 건조 시킨 것이 바로 '원두'입니다.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은 건식(Unwashed)과 습식(Washed)법이 있습니다. 건식법은 커피나무에서 열매가 검은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하는 방법이고, 습식법은 익은 열매를 하나하나 손으로 따 물에 넣고 가라앉은 열매들을 건져 발효시켜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건식법은 이물질이 섞일 확률이 높지만,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이 풍부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커피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습식법은 이물질을 잘 걸러낼 수 있으나 건식법에 비해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 원두의 품질이 낮아지기 쉬운 단점이 있지요. 원의 가운데 선이 짙은 갈색이면 건식, 흰색이면 습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원두를 곱게 갈아서 고온의 물에 추출해서 먹으면 한잔의 커피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커피의 품종은 크게 3가지로 구별되는데 아라비카(Arabica), 로부스타(Robusta) 및 리베리카(Liberica)입니다. 아라비카는 부드럽고 향기가 있는 커피로 해발 900~2,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생산되며, 기계를 이용한 대량 재배와 수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일일이 심고 가꾸고 거두어야 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커피의 황제'라 불리기도 합니다. 로부스타는 아프리카 콩고가 원산지로 평지에서 기계로 재배하기 때문에 콩이 여문 정도나 크기, 결손 원두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꺼번에 가공합니다. 아라비카 종보다 기생충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해발고도





**파란 병 커피집(The Blue Bottle Coffee House)** | 168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문을 연 '파란 병 커피집(The Blue Bottle Coffee House)'의 내부 풍경을 묘사한 그림. 유럽을 침공한 오스만튀르크가 빈을 포위했을 때 전공을 세운 한 병사가 튀르크군이 패주하며 남기고 간 커피공으로 카페를 열었다고 한다.

800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기후변화나 토양 등 환경적인 변화에 잘 견디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20~30%를 차지하지만 아라비카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많으며 쓴맛이 강하고 향이 부족하지만 경제적 이점이 있어 주로 인스턴트커피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리베리카는 아프리카의 리베리아가 원산지인데 쓴맛이 강하고 향이 적어 전체 약1% 수준으로 생산량이 적습니다. 로부스타종에 비해 단맛, 신맛, 감칠맛, 향이 뛰어나 가격이 더 비싸고, 카페인 함유량이 로부스타보다 적습니다.

세계적으로 커피가 생산되는 곳은 남위 25°부터 북위 25°사이의 열대, 아열대 지역으로 커피 벨트(Coffee Belt) 또는 커피 존(Coffee Zone)이라고 하지요. 중남미의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자메이카 등에서는 중급 이상의 아라비카

커피가 생산되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예멘, 탄자니아, 케냐 등 나라는 커피의 원산지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나라보다 커피산업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지역에서는 대부분 로부스타 커피(Robusta Coffee)가 생산되고 있는데, 소량의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하여 최상급의 커피로 인정받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중 세계 3대 커피는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 하와이의 코나(Kona), 예멘의 모카(Mocha) 커피를 꼽습니다.

이런 원두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커피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카페에 가면 참 다양한 이름의 커피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 몇 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Espresso)라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어인 에스프레소는 영어의 익스프레스(Express)의 의미로 '빠르게 추출되는 커피'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를 압축하여 짧은

순간에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의 양이 적고 커피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요. 에스프레소는 쓴맛이 매우 강하지만 카페인은 드립식 커피보다 적게 함유돼 있으며, 특히 에스프레소를 뽑으면 원두에 포함된 지방 성분이 증기에 노출되어 떠오른 크레마(crema)라는 옅은 갈색의 크림 층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전 10시 이전에만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이후에는 라떼 종류를 마신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바탕으로 하기에 커피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 우유를 넣으면 카페 라떼가 되는 것이지요. 누구는 미국에 이민 간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던 에스프레소가 너무 써 미국인들이

물을 부어 마신 것이 아메리카노가 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스팀기로 데워서 부어주는데, 우유를 뜨겁게 스팀으로 데우면 자연스럽게 거품이 형성되고 우유와 거품의 부드러운 맛이 강한 커피를 부드럽게 먹지 좋게 만들지요. 라테(Latte)라는 말은 이탈리아로 우유라는 뜻입니다. 이밖에도 에스프레소에 우유와 우유 거품을 올린 다음 계피 가루를 뿌리면 카푸치노가 되고, 에스프레소에 초코 시럽과 우유, 혹은 휘핑크림을 더하면 카페 모카가 됩니다. 이밖에도 우유와 바닐라 시럽을 더하면 바닐라 라떼, 헤이즐넛 시럽을 더하면 헤이즐넛 라떼 등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구구마 라떼, 녹차 라떼, 연유 라떼 등도 마찬가지로 이치이지요. 그중 카페 모카는 에티오피아와 예멘에서 생산되는 아라비카로



**영국의 커피하우스** | 지나친 음주로 인한 숙취 등의 문제로 커피하우스가 남성들의 사교 공간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치열한 정치 토론은 혁명으로까지 이어졌다.



**감자먹는 사람들** |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 비록 서민들이지만 감자에 곁들여 커피를 마시고 있다. 네덜란드는 커피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만든 커피로, 호박색과 녹색을 띠며 원두 크기는 중간 정도이고 고급스러운 맛과 풍부한 향을 지니고 있어 즐겨 찾는 이들이 따로 있을 정도지요. 캐러멜 마끼아또는 마끼아또의 뜻이 '얼룩진, 표시 난' 등으로 우유 위에 커피 자국을 내거나 캐러멜로 얼룩지게 만드는 커피를 말합니다.

이런 커피들은 흔히 바리스타라고 말하는 커피 전문가들이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카페에 갈 필요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며 간편하게 즐기는 커피로 인스턴트커피가 있지요. 인스턴트커피는 바로 오늘날 커피가 세계적인 대중 음료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스턴트커피는 1901년에 일본계 미국인 카토 사토리라는 사람이 커피 액을 농축시킨 액체 형식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와 같은 고체 상태의 인스턴트커피가 만들어진 것은 1940년대입니다. 당시 커피의 주요 생산국이던 브라질에서는 유례없는 커피콩 풍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자 커피콩의 시세가 폭락해서 많은 농민들이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브라질 정부는 식품회사인 네슬레에 커피의 잉여 생산량을 해결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하였습니다. 네슬레는 1938년 네스카페(Nescafe)라는 상품명으로 인스턴트커피를 시판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인스턴트커피의 대명사는 바로 네슬레가 되었습니다. 이후 제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을 치르면서 줄음을 참을 수 있는 인스턴트커피는 전투식량에 포함되었고,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믹스는 한국인의 성격과 창의력이 어우러진 히트상품이다.  
(이미지출처 : e유지엄)

인스턴트커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흔히 봉지커피라고 말하는 커피믹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 10선 중 5위에 오르기도 한 히트상품입니다.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맥스웰 하우스라는 회사의 커피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스턴트커피의 배합비율은 이른바 222의 법칙으로 통용됐습니다. 커피 2, 설탕 2, 프림 2 스푼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 매번 이를 번거롭게 여긴 어떤 이가 1976년 이를 미리 배합하여 고급 방습포장재에 넣은 것이 바로 커피믹스입니다.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커피믹스는 연간 61억 잔, 16cm의 봉지를 이어 놓았을 때 97만 6천 km로 지구를 24바퀴 도는 분량이 팔린다고 하니 엄청난 히트상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년대 말까지의 평범한 도시인들의 약속장소나 휴식공간은 다방이었습니다. 다방 중심을 중심으로 한 커피 문화는 1980년대에 들어 크게 변화하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외식산업의 성장이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인스턴트커피가 전부였던 커피 시장에 원두커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스타벅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의 기업들이 진출함으로써 커피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테이크아웃 시장의 성장입니다. 이는 기존의 길거리 음식에 대한 문화적 보수주의를 타파한 것으로, 걸으면서 음식을 섭취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커피 잔을 들고 걷는다.'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제 커피는 현대인의 필수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각성 효과나 만남을 위한 매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는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사실 우리는 '커피 문명'이라 말할 수 있는 전에 없던 세상을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커피는 이제 현대인들의 '감로수'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 용서를 구합니다



황재혁

저는 1998. 8. 30. 부산 ○○병원에서 장장 14시간을 어머니를 괴롭힌 끝에 3.5kg의 우량아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을 하셨다. 태어날 때 괴롭히더니 유년시절, 학생시절은 말을 잘 듣는다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어른들 사이에서 착하다고 소문이 나있고 어떤 누구보다 순하다고 순딩이라고 별명을 붙여 동네에선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이런 제가 교도소에 들어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 pc방 알바를 하다가 토토라는 것을 알게 되고 토토라는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고 나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썩 다 탕진하고 동네선배에게도 빚을 지게 되고 후배에게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점점 후회의 늪으로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권유로 차 뒤에 타있으면 돈을 준다 하길래 저로써는 먼일이야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차 뒤에 타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이나 같은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주기에 아차 싶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불구속 조사를 받고 이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절도, 사기를 하는 등 악질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빚이 쌓일 대로 쌓인 저는 도망가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부모님의 전화에 “아들아…. 너 수배되었다. 그만 자수하고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 귀하게 키운 내 아들…. 아들아 난 널 믿는다.” 라는 말에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자수를 하여 조사를 받고 긴급 이송되어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용서를 구합니다

---

교도소 안에서 부모님과 피해자 분들께 속죄하며 있던 도중에 아버지는 간경화가 더 심해지셨고 어머니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더기로 오는 공소장 저의 죄명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위반”, “절도”, “죄물손괴” 제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거 같았습니다. 아파하는 도중 첫심리 재판 검사님이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인 점을 감안하여 구형을 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반성”, “미래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돈은 쉽게 벌고 경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뭔가 구린내가 나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 사람이 다가올 때는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 돈 벌기 쉬운 직업은 없다는 것, 부모님은 제가 제대로 효도할 때 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 이번 기회에 피해자 분들께 속죄를 하고 아버지가 합의 보러 다니신다는 말씀에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출소를 하면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 더위와 추위와 싸워가며 일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 이 교도소는 제 마음을 다듬어 주고 추스려주는 단계인 곳 같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지 못한 저에게 이번기회에 다시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터닝 포인트 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병원 다니기, 일하기 바쁘실 텐데 접견을 와서는 다시 나와서 잘하면 된다, 늦지 않았다 하시면서 아들이 굶진 않을까 생각해서 접견물이라 영치금을 항상 넣어주시고 가십니다.

저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하시지 않고 귀하게 외동아들로 키워주신 저의 부모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나가서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에 모시고 가서 밥한 끼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어렵게 버신 돈 꼭 제가 변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품평** :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토토'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다니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네요. 빚을 지고 수배되어 전국을 숨어 돌아다녔으니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버지의 간경화가 더 심해졌고 어머니도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에 빠지면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출소하면 자신의 땀으로 돈을 벌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돈을 말입니다.



## 용서를 구합니다



이재훈

저는 어릴적 배운 부탄가스에 빠져 이름도 생소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 물질 흡입)’이라는 죄명으로 소년원에 들어간 이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 판결문과 공소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혼자서 자기 자신에게 저지른 범죄이기에 피해자가 없는 단독행위로 범죄사실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코로나19로 인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는데, 영치금과 편지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어머니와 누나는 제 걱정을 하였고, 아버지는 과거에 아버지 자신이 폭력적이었을 때의 시절을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가 온 날 저녁, 혼자 독방에서 울면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는 없었던 게 아니라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지 어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슬픔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루라도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자책하는 저의

## 용서를 구합니다

---

후회에도 야속하게도 저는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일 때문에 구치소에 와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난날의 잘못과 앞으로 가족들이 받을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폭력적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는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언제인가. 가족들이 용서하고, 용서받을 날이 오게 된다면, 가족여행을 같이 가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가족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날이 온다면, 꿈에도 그리는 그 날이 온다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작품평 :** 아버지의 폭력이 부탄가스를 흡입케 된 한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를 둔 세상의 모든 아들은 약에 의지해 살아가야 할까요? 오히려 삶이 어려울수록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마약은 의지박약의 결과입니다. 아버지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니 이제 정말 새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 피해자에게 드리는 편지



조은혜

피해자님께.

저혈압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다니는 일을 좋아하는 제가 추심회사 수금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가명 아닌 실명을 사용하고 이용수단 결제는 족적이 남는 카드결제로 하며 열심히 뛰어다닌 일이 피해자님께 이렇게 큰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상처를 남길 일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돌이켜 보니, 그들이 사용하는 현금거래 방식이 이상해서 질문했을 때 탈세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받아들인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〇〇〇외에는 거의 탈세한다는 주위 친구들 말에 그 회사도 추심회사로서의 탈세는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저의 몰상식과 욕심이었습니다.

피해자님께 평생 빛진 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님께서 피담 흘려 수고하셔서 이루신 것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저 포함) 때문에 사라졌으니 얼마나 원통하실지 그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블랙홀로 삶의 일부가 빨려 들어가 버린 허탈함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 피해자에게 드리는 편지

취조 받을 때 형사님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입금통장번호를 다 드리며 부탁드립니다. 그 계좌로 입금만 되고 출금 안되게 제한을 해서 피해자님들께 일부라도 찾아드릴 수 있지 않은지 실낱같은 희망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님께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형을 제게 내려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는 비실용적인 형을 받고 그걸로 끝내면, 제가 피해자일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분납으로라도 장기에 걸쳐 갚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나가면 빛진 자로 살겠습니다.

실제 대출금 갚듯이 갚아나가야 제 마음의 짐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시는 일에 신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작품평 :** 추심회사 수금원으로 살아가다 그만 죄를 짓게 되었군요. 스스로를 '빛진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평생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자는 그 마음은 이타주의요 자기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남을 도울 줄은 잘 모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디서나 두 다리 쪽 뻗고 잘 수 있을 것입니다.



# 용서를 구합니다



이지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번 이지현입니다. 저는 제 어린아들에게 아파로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 용기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33살 2019년 5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며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탁송, 대리운전 등을 하며 저의 과한 욕심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시절 아버지께선 머구리(잠수부)를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일하시던 중 선장에게 살해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선 집을 나가셨고 당시 제 나이 3살... 그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없이 할머니 손에 중학교 2학년(15살)까지 자랐습니다. 그 후 저는 할머니 손에 버려졌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거리를 방황하였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이 비행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저에게도 봄이 온 듯 2018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고 동거 후 다음 해 아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얻었고 그 얼마되지 안 된 시점에 새벽2시 퇴근 후 집 현관 밖까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100일도 안 된 아이가 몇 시간을 혼자 울었는지 그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합니다. 아이 엄마를 수소문하여 찾았지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 용서를 구합니다

---

살았던 터라 이왕 이렇게 된거 잘됐다 싶었습니다.

아빠인 저 혼자서 아이를 제 앞으로 하기엔 힘들었습니다. 시청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인지등록을 하고 아이엄마는 친권을 포기하여 완벽한 제 아들이 됐습니다.

아이를 돌보아 줄 부모도 아무도 없는 저는 혼자서 아이를 보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돈도 벌어야했고, 육아도 해야 하고 가사일도 함께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 하다보니 나쁜 생각만 들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부모없이 자란 저에겐 아이의 양육을 해줄 곳은 보육원 시설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친구내 부부가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찾아가서 아이의 안부를 접견과 전자서신으로나마 전해 듣고 있습니다. 3살(29개월)된 아들이 아빠를 찾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다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보니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여 최대한 빨리 사회로 복귀하여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같이 살 수 없지만 제 헛된 욕심으로 어린아들께 상처와 아픔을 준 지난 날 제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루하루 미안함으로 자책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빠가 아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날을 사회로 복귀해서 행복하게 살자!!!!  
아들♡ 사랑한다 보고싶다!!

**작품평 :** 아버지의 이른 죽음, 아내의 가출, 갓난아이와의 이별이 지금까지 겪은 큰 아픔이었겠네요. 보육원에 맡긴, 이제 29개월 된 아이가 많이 보고 싶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출역 나가고 있지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서 출소 후엔 아들과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몸만 아프지 않으면 한창 젊은 나이이니 따뜻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빠가 있으니 아이가 나중엔 외롭지 않을 겁니다.



## 용서 · 화해



전광운

1997년 12월 7일 나는 전남 ○○ 처녀와 예배당에서 조출한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는 사귀면서 난 자신감에 넘쳐서 사귀는 여자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평생을 호강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나의 여자는 뻔한 허풍인 줄을 알면서도 너만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덜 성숙한 내게 소중하게 고이 간직해온 자신을 주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규모는 적어도 실속 있는 사단법인체에 준 공무원 자격으로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었으나 당시 IMF는 국가적 위기가 시작되어 각종 회사가 문을 닫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시절이었다.

내 나이 34세, 여자의 나이는 30세 둘 다 늦은 나이에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여자의 나이가 30세를 넘기기 전에 결혼식을 서둘러 올리자고 하여서 우리는 겨울에 식을 올렸다. 신혼 초부터 매스컴에서 IMF 국가부도라는 암울한 소식이 들려오더니 드디어 정리해고의 바람이 나의 직장에도 들이닥쳤다. 어쩔 수 없이 위 서열의 국장님 몇 분과 신입사원들이 해고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나도 실업자가 되었고 신혼 분위기는 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아내도 다니던 가구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상태였다. 그나마 아내와 나의 퇴직금이 조금 남아서 몇 달을 보낼 수가 있었다. 인천의 조그만 서민 아파트, 거기가 눈물과 한숨 신혼생활의 시작이요 보금자리였다.

## 용서·화해

---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조강지처란 말이 있는데 어려운 시절 조와 같은 험한 음식을 같이 먹고 함께 고생한 아내라는 뜻이다. 내게 우리 아내는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통과한 동반자였다. 몇 달을 힘들게 보내다가 드디어 이력서를 들고 아는 선배를 찾아갔다.

선배는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었다. 나의 사정을 듣고 선배는 그러면 마침 자기 학원에서 역사 선생님 자리가 비어 있으니 한번 맡아서 가르쳐보라고 했다. 대학교 전공이 사학과였지만 애당초 남 앞에서 말을 하는 강사는 나의 적성에는 맞지 않았다. 나는 말수가 적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가 안되었기에 강사 자리라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의 강사 인생은 시작되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학원 생활을 2년 가까이 했다. 워낙 박봉이기에 한번 랍스터를 먹여주겠다는 약속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랍스터를 사주겠다고 하면 지금은 아니고 내가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드디어 2000년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위기는 어느 정도 벗어 나고 사회 분위기는 호경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도 어느 때까지 선배 밑에서 강사 노릇을 할 수만은 없어서 영어로 전공을 바꾸고 다른 학원 영어 강사로 변신을 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나의 꿈은 영어학원을 만들어서 우리의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었다. 2002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물들여지고 있을 때 나는 영어학원 전문 강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 짜 짜 짹짹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는 나의 첫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둘째가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그 당시 신혼살림이 다 그렇듯이 우리도 학원에 가까운 곳에서 전셋집을 얻어서 방 2개와 거실이 있는 곳에서 4식구가 용기종기 살았다. 그 흔한 에어컨도 없이 여름날 선풍기를 돌리며 창문을 열어놓고 자던 추억이 떠오른다. 아내는 포대기를 하고 시장을 보아서 두 손에 장바구니를 킁킁 들고 들어와 찬거리를 준비하던 구차하고 고생시런 모습이 회상된다. 아무리 각박하고 모진 시절이라 해도 그래도 젊음이 있을 때 '왜' 아내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듬뿍 주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에 젖는다. 나 하나만을 믿고 온 마음을 다 바친 사람인데 왜 아껴주지 못했나 하는 자책이 든다.

그러다가 2006년쯤 내 나이 40 초반에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운영은 잘 된 것이

---

---

아니었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했다. 이때는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생이 될 때였다. 학원 운영에 고심하며 아내와 가족에게는 쌀쌀해져 가는 남편이요 아버지가 되었다. 학원 사업은 최전성기를 지나서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리 만만치만은 않았다. 역시 멋진 남편, 훌륭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을 사업이 어려웠다 해서 핑계를 대는 나 자신이었다. 따뜻한 방에서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아내를 사랑하고 웃음꽃이 피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 나는 그리 어리석고 마음이 굳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후회가 든다. 어쨌든 2019년까지 학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까지 터져서 비대면 수업이 되니 그나마 적었던 학생 수가 아예 줄어드니 폐업을 하고야 말았다.

아! 남자의 인생이란 고달프기만 한 것인가!

이제는 할 일조차도 없어진 50대 중반의 남자에게는 일탈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학원장으로서 갖췄던 품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술 마시고 친구 찾아다니면서 기행을 벌이는 일상이 되었다. 이를 만류하는 아내를 대하여 허전하고 공허한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타박하며 별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취한 사건이 터지고 나는 이곳 구치소에서 1년 6개월을 받은 복역수가 되었다. 나의 죄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사랑치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이것저것 불평하며 감사치 않은 삶이었다. 이런 삶의 결과가 사랑이 아닌 분쟁으로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나의 운명을 이끌어 나를 여기에 가두어 놓은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재기를 꿈꾸고 있다. 소수정예 영어학원을 운영하려고 미진했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출소하면 못다 해준 사랑과 애정을 아내와 가족에게 주는 삶을 이제라도 회복하려고 만반의 각오와 준비를 하고 있다. 얼마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사랑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나이인가 보다.

**작품평 :** 시절이 하 수상하여도 술에 의지하면 안 되는데 좌절감을 술로 달래다 사단이 났나 봅니다. IMF 때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학원 경영으로 권토중래하셨다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데 너무 일찍 자포자기한 것일까요. 다시 기회를 노렸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50대 중반이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출소 이후 다시 학생들 앞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공부하는 나날이면 하루가 가는 게 아까울 것입니다.



# 용서를 구합니다



이학윤

안녕하세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으로 부끄럽지만 저는 2020년 12월 14일 24살이라는 나이에 보호관찰특례법위반과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10개월째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 또다른 추가사건으로 인하여 10월 28일에 있을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학윤이라고 합니다.

이곳 생활을 하기 전 제 과거사를 말씀드리면 저는 2019년 1월 21일에 군대에서 전역한 후 12년간 유방암이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 병세가 많이 위독하신 어머니를 7개월간 혼자서 간병을 해왔지만 어머니의 상황이 급격하게 안좋아지셔서 2019년 8월 22일 오전 7시경에 어머니를 제 곁에서 떠나 보내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과 불화로 인하여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하다 배달대행이라는 일을 구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나름대로 삶을 살기 위해 방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24시간으로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가 친구들과 함께 마트물건을 훔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용생활을 하면서 2년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신은 나에게 왜 이런 가혹한 고통을 주지?' 생각하며 신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며 잘못된 현실을 남의 탓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이 '내 탓이다'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큰 돌맹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어 죄를 지었기에 영어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사회로 복귀하여서는 제가 생활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 또 다짐을 해봅니다. 간절하게 원하면 꼭 이뤄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겨 이 몸이 존재하는 순간까지 저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해드리고자 매일매일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을 꼭 믿고 싶습니다.

생각이 말이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고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시기는 지났기에 곧 새벽이 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선하고 진실된 생각만을 하며 운명 또한 정해진게 아닌 자신의 노력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니 제 스스로 앞날에 대한 운명을 바꿔 나갈것입니다. 아마 교정시설에 저와같이 수용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는 저의 아픔 또한 어떠한 어려움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어려움속에서 일어나 '환골탈태'를 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 피해자분들과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판사님께 약속한 반성문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깨어나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저의 간절한 반성이 피해자분들께도 메아리가 되어 전달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도울 것이며 제 스스로에 대한 진성성 있는 참회의 마음으로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오늘 드리는 참회를 매일매일 되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회에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셨던 가족과 저에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다시한번 고개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품평** : 어머니와는 사별을, 여자친구와는 이별을 했군요. 인생의 큰 시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거꾸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지, 바닥까지 왔으니 올라가기만 하자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봉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겠다는 그 마음 편치 않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황우빈

안녕하세요.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황우빈이라고 합니다. 저의 한순간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상처받고 힘들어 하실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21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탓에 부모님께서서는 항상 바쁘셨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 집에 있는 날이 잦았습니다. 아직 부모님도 서툰 탓에 저에게 표현을 못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19살 때 부모님과 다툰 후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와 이곳저곳에서 방황을 하다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도래에 비해 큰 수입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오면 외로움과 공허함이 저를 감쌌고 저는 이런 감정을 달래고자 유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 만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입에 몇배가 되는 돈이 유흥비로 나가자 돈이 부족해진 저는 결국 불법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몇 달 후 결국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되었고 유치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님께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말에 겁이 났지만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를 만나주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던 부모님께서서는 연락을 받고 바로 유치장으로 달려와 주셨고, 5년간의 방황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이런 한심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뵙고는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숙여 아무말도 못하던 저에게 되려



---

부모님께서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셨고, 저 또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제 불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부모님을 걱정시켰고, 이제는 3년 2개월의 형을 받고, 부모님에게 징역 수발을 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제는 제 덕분에 미소 지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제는 부모님 곁에서 좋은 아들이 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작품평** : 돈이 좀 있다고 유흥의 세계에 빠지게 안 되지요. 욕망이나 쾌락은 만끽하면 할수록 더 강한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에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같은 것은 중독성이 강해 인간을 피폐케 합니다. 술도 적당히 마시면 생의 윤희유가 되지만 폭음을 일삼으면 중독이 됩니다. 5년이나 부모님 속을 썩였는데 3년 2개월 형을 받았더니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하하, 농담입니다. 집에 돌아가 좋은 아들 노릇 꼭 하기를 바랍니다.



## 용서를 구합니다



권세환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41살 권세환이라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및 하나뿐인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나 아는 조미료회사에 이사로 근무하셨고, 사회에 어떤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때도 굳건히 본인의 자리를 잘 지키셨던 분이었습니다.

단지 흠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 제 나이 5살 때부터 군 입대 이후까지 부모님은 주말부부로 떨어져 지냈던 것 이외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겐 큰 산이었던 아버지는 제가 군입대한지 반년 만에 타 지역에서 혼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수술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몸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생계 걱정애 가장이란 책임감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200평정도 크기의 마트(슈퍼)를 지인 분에게 인수하셨는데 온전히 못한 몸으로 일을 진행하시다보니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시고 인수하셨는데 얼마 못가 건강 악화로 사업을 정리하시고 요양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군인 신분이었던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났었고, 하루 빨리 전역하기만 기다렸는데 이번엔 제가 집안에 도움은 되지 못할망정 혹하나 더 붙이는 격으로 군 전역을 1달 남기고 1년 전 헤어졌던 여자 친구가 아이를 낳았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

전역 후 집안을 일으켜야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전역 한날 여자 친구에게 찾아갔었고 여자 친구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서로 갈 길이 달라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알았고, 다음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품에 안겨 아با인지를 아는 것인지 생글생글 웃는 아이를 보니 다시 한 번 정신을 차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교는 휴학 중이라 고민 중이었던 저를 보고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스펙이 좋아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대기 중인 사람도 있겠지만, 100% 합격 한다는 보장도 없고, 집에 있는 건 백수랑 같다. 단돈 100원을 벌더라도 남자는 밖에서 사람과 어울려야하고, 남자 백수는 게을러서 백수다.”

그 말이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머리에 선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연찮게 ○○대학교 ○○의료원 대학병원 보안팀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하는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원무과 선생님의 권유로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게 되었고, 단번에 시험에 합격하여 보안팀에서 간호과 소속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주위에 매일 마주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들과 자연스럽게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일 친한 친구가 1급 응급 구조사였는데 하는 일이 제가 봐도 멋있고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급 응급 구조사는 응급 구조과를 졸업해야하는데 친구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굳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병원근무하며 2급 응급 구조사를 따면 된다고 멘토 역할을 해주었고, 친구 덕분에 생계 걱정 없이 돈 벌며 ○○전문대 교육권 등록 후 그 뒤로는 병원 당직실에서 살다시피 먹고자고 공부하며 1년의 노력 끝에 합격하고, 대구 ○○병원으로 이직을 하고 조금씩 저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니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을 보는 그런 되돌이표 아바가 되어있었습니다.

주말에 한번만 보는 아바가 그렇게 싫었는데 그 행동을 제가 하고 있었고 15년이 넘는

---



## 용서를 구합니다

---

시간동안 사원에서 사무장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대구가 아닌 타 지역이든 저를 필요로 하면 어디든 달려갔는데, 이제는 가족과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병원 일을 하며 금전적으로 좀 더 도움을 주고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독도새우와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형의 권유로 병원 퇴근 후 야간에 알바를 하며 주방일 및 장사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잠이 모자란 것도 모르고 2~3년 하다 보니 내 가게를 해보란 말에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하여 아는 분과 같이 “○○○○대계”란 가게를 오픈하였고, 투잡을 하며 부지런히 살았지만 병원 근무 중인 저는 모든 명의를 동업자에게 맡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자의 배신으로 명의의 중요성을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 그 충격으로 가게도 돈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니 만신창이가 되어가던 중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아는 의사분의 소개로 부산 ‘○○ 산부인과’ 사무장 스카웃 제의를 받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떠나기 전날 아이는 또 떨어져 지내야 하는 걸 아는지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장가 가서서 동생 낳아주면 안되요?”란 말에 그동안 크게 관심도 없이 일만 하며 살았는데…

아이 는 있지만 결혼생활을 해보지 못한 저는 결혼에 대한 로망은 있었지만 크게 인연을 이어간 사람도 없었는데, 때마침 우연찮게 선자리가 들어왔고, 저는 부산, 상대는 안산,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진지하게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여자 분은 저의 아이와 통화를 원하였고, 아이와 통화하며 대화를 하던 중 아이에게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라고 말을 하니 그 사람과 쪽 이어 갈 줄 알았는데 사람을 만나다보니 처음처럼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아니란 걸 알았을 때 깨끗이 마음 정리를 해야 했는데 괴로운 마음에 한두 번도 아닌 음주운전을 또 하고 술김에 일어난 사고들이 처음엔 전부 그 사람 때문이란 생각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 상처는 치료되었지만 흉터는 남았던 생각이 들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 전부 내 잘못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제 잘못을 반성하며 지내다보니 아프신 아버지 생각과 03년 당시 45살이셨던 어머니, 아들이 군 전역과 동시에 30일 된 아이를 안고와 손자를 낳둥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접견 오실 때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밖에서 코로나검사를 해주는 의료인들을 보면 너

---

---

생각이 많이 난다. 밖에서 검사해주는 그런 의료봉사나 하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속상해 사시는데 죄송할 뿐입니다.

지금 공황장애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저지른 음주운전 및 나쁜 잘못에 비하면 비교도 안될 만큼 큰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없이 할머니 손에서 컸지만 아프지 않고 올바르게 잘 커준 우리 아들 준!!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앞으로 너의 아빠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 올해 수능 잘 치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할게,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작품평** :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있으니 효자가 되는 것과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몸이 되었으니 불효자임이 분명하고 아빠 없이 아이가 커가게 했으니 좋은 아빠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대 나이 이제 41세 아닙니까. 출소 이후 효자가 되고 멋진 아빠가 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인생이란 것이 슬픔과 아픔만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간에 따뜻한 정이 있으면 세상은 결코 추운 곳이 아닙니다.



---

“용서의 글”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



어느 초보 이발사의 첫 사랑

이문영

맨 처음  
사람앞에 섰을 때

이발을 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절단이 아니라  
살아있는 날 것을 숨 고르는  
것이였다.

그건  
떡먹한 숨처럼 다시 끊어지고  
살아나는 나의 숨 이야기...

지친 내 마음의 멍을 같은  
검은 소나무가 내 깊은  
가슴속으로 스며들 때  
팽팽한 긴장감은 어김없이  
다가섰다.

어느 초보자가 찬란한 전선에  
들어서는 것을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빗 한 개와 가위 한 몸이  
내게는 신랄한 삶의  
시작이 되었다.

오늘...  
사람앞에 다시 섰을 때.

혹자인 나는  
미세하게 떨리는 심장을  
꼬옥 부여잡고

허공 속에 펼쳐지는  
검은 피부들을 섬없이  
재단하고 있다.

부서지듯 아름답게 떨어지는  
고귀한 나의 사랑과  
나의 웃음을 위해.

**작품평 :** '처음'은 언제나 낯설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순간. 이발이라는 것이 빗 한 개와 가위로 살아있는 날 것을 숨 고르는 일이란 말에 고개가 절로 고덕어집니다. 머리카락을 검은 피부라 여긴 시선도 참 좋습니다. 타인의 경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시의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 곳 감

이  
호  
석



구름이 달을 두고 가는 밤

가슴 아린 시간 목은 때처럼  
벗어던진 너는 처마 밑 못별이 되어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너의 날 선 생채기 보듬으려  
열어붙은 바람이 문고리 붙잡고 흐느끼던  
겨울밤  
달빛은 조각도처럼 시간의 발자국 따라  
달의 흔적을 남기려 했다

너를 품는다는 건  
시린 달을 품어 내는 것  
한 입 베어 문 너의 영혼마저 내 뜨거운  
심장으로 보듬을 때  
시간은 달팽이를 따라 달의 뒷면을 훑고  
있었다

별들이 함박눈처럼 밤하늘에 흩뿌려지던  
아련한 밤  
입안에서는 겨울이 병글거렸다

**작품평 :** 겨울 간식 곳감은 햇살과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인생도 건담과 기다림을 품고 있어야 달콤해지는 건가 싶습니다. 너라는 처마 밑에 걸린 겨울밤 풍경. 조각도가 되어 깎이는 달, 아무도 본 적 없는 달의 뒷면을 닦아가는 곳감이 단 이유 알 것 같습니다. 눈 없는 겨울밤에 빛나는 별이 함박눈처럼 내리는 것도요.



# 바 다 가 없 는 해 변

김수현

나는 너를 기억해  
내 험거운 가지를 또 태워  
붙게 추억하는 일

아래로 아래로 자라  
무겁고 낮아진 나는  
그저 예전의 발자국을 더듬어 보는 일 뿐이다.

궤도가 궤적이 되어가는 시간을 넘어 왔고  
그 기억들이 폐허가 되었을지언정  
나는 언제나 서향에서 턱을 괴고 너를 기억해.

하지만 밤이 오면, 밤이 찾아오면  
나는 조금 웅크리고 있다.

흔적도 자주 더듬으면 얼룩이 되어 버린다.  
헌신짝은 신발장에 두고,  
이젠 새 신발을 신어야 할 텐데.

뿌리 내친 곳은 모래밭  
저마다의 아픔을 나누고 나눠  
바다가 보이지 않는 사막 같은 곳  
그래도 끝엔 파도가 부서 지는  
그저 넓은 해변일 것이다.

하루도 꺼지지 않는 햇빛에  
한기처럼 스미는 부정은  
그저 감기 같은 거야.

밤새 눈에 품고 있던 그들을  
두 손으로 비비며 일어나 보면  
멈춰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심지어 마침표조차도

**작품평:** 생의 사막도 걷다 보면 언젠가 파도 부서지는 바다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헤어진 인연을 향해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긴 겨울밤을 건다 보면 얼룩진 아픔도 발자국 뿐인 해변에서 그리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기억들 속으로 그렇게 우리를 데려다줄 것입니다.







한  
겨울  
밤  
의  
꿈

시인  
숙

창문을 열어 달라고  
세차게 흔들어 대는  
바람의 아우성은  
어떤 소식의 전령사인지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곳에서  
가슴가득 감동으로 설렘으로  
벽차 오르고  
기쁜 소식 누가 왔는가?  
한참 동안을 그렇게  
눈이 내리고 있었나 보다

창 밖의 좁은 하늘을 보며  
내가 볼수 없는 그리운 별들은  
지금 저 하늘 어느곳에 떠 있을지

사납게 눈보라 치던 그 계절에  
계절을 잃은 흰 나비가  
나의 창문에 날아서 뛰어 드는데

무슨 사연의 안타까운 녀인지  
그 작은 꽃 잎 날개에  
무슨 인연의 녀이 깃들었는가?

먼 곳의 하늘을 보며  
이제는 자연이 되신  
이미 하늘이 되신  
어린 시절 그리운 엄마의 모습  
어린 시절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

아득한 꿈결 속에도  
바람 소리는 그토록 무서웠는데  
하얀 나비는  
먼곳의 하늘을 향해  
흰 눈 속으로, 흰 눈 속으로,  
흰 눈 속으로

밤새도록, 밤새도록, 밤 새도록  
그렇게 눈이 내리고  
있었나 보다.

**작품평** : 장자의 호접몽이 생각납니다. 나비가 되어 오는 흰 눈은 분명 전령사라 여겨봅니다.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인 지금, 겨울밤을 보내는 시인은 흰 눈의 날개 빌려 부모님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물아일체, 누군가의 소식이 되려고 눈은 밤새 그렇게 하염없이 내리나 봅니다.







# 사과 는 아 프 다

백이정

잡다하고 흐지부지 하며 애매모호한 사과  
궁색한 되풀이만을 간직하다가 조잡스러움을 풍기는데  
그 사과는 짹짹하고 쿵쿵하다.

앞뒤가 빼곡하고 휘양찬란하며 과도하게 화려한 사과는  
웅장한 변명만을 간직하다가 경솔한 거짓이 풍기는데  
그 사과는 조잡스럽고 응큼하다.

철두철미하고 완고해 보이며 비판적인 혼계를 동반한 사과는  
공명정대해 보이는 자기합리화를 간직하다가 제풀이 꺾이는데  
그 사과는 별레를 품은 속꿎은 1등품이다.

우둘투둘하게 거칠고 뾰족하며 호통의 억박이 동반한 사과는  
사과를 주는이와 받는이가 바뀌어 버리다가 아둔한 똥고집이 풍기는데  
그 사과는 표독스럽고 흉악하다.

세평남짓한 속죄는 사과농장에 흉년이 깃들어서  
그 곳의 사과들이 심상찮다.  
명들고 구멍이 난 이 괴팍한 사과들을  
키워버린 내 굵고 썩은 마음을 도려내어 본다.

움푹썩은 마음을 깊이 도려내어 새살이 보안하게 드러나면  
새빨간 선홍색의 핏빛 수치심이 적셔나와 흉물스런 사과들을  
물들여 번지게 하니 몹시 아프다.  
그래..... 진짜 사과는 아픈 것이다.  
정말 미안합니다.

**작품평 :** 사과의 이중적 의미가 읽히는 재미있는 시입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사과를 우린 압니다. 그 상한 사과들이 상황이나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의 맛, 아프지만 회복을 위한 열매라는 것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 성 에

차  
대  
영

창밖으로 당신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대화도 나눌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이 공간 속에 나와 당신만이 있는 것처럼.

하얗게 얼어붙은 창가에 얼굴을 파묻고  
보드득보드득 서리로 뒹아내어 보지만  
이내 나의 숨결이 성애를 만들어 냅니다  
이 얇고 가느다란 유리 한 장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입김이 담배 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지자  
당신은 신기루처럼 불현듯 사라지고  
나는 또다시 홀로 이 길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숨을 멈췄더라면  
당신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한 유리처럼  
나의 숨결이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애를 만들지 않게 되는 날  
당신에게 말할 거예요  
나의 숨결 안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다고.

**작품평 :** 유리창에 얼어붙은 서리처럼 보고 싶은 당신이 유리창에 어리는 것. 뒹아내어 보지만 이내 유리창에 얼어 붙어버리는 당신. 성애 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보였던 사라졌다 하는 당신이 내 숨결에 항상 있었음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지극한 이 그리움으로 긴 겨울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적  
절  
함  
에  
관  
한  
고  
찰

신희창

낮이 올라가고 밤이 내려앉은 해질 즈음인 노을 녘  
빛의 끝자락과 어두움의 첫 장이 어우러져  
그 치우치지 않은 적절함이 아름답다.

나는 두드러짐 보다 적절한 것들이 좋다.

발 동동거리며 살을 에는 겨울 추위나  
땀샘들이 폭발하는 뜨거운 여름 태양보다  
적절히 따사로운 봄별과 적절히 선선한 가을바람이 좋다.

쓰디쓴 에스프레소나 달달한 프라프치노 보다  
커피에 물을 적절히 섞은 아메리카노가 좋다.

머리카락 휘날리게 바쁘거나 졸릴 만큼의 나른함보다  
작더라도 활력이 있는 소소한 하루가 좋다.

친구관계에서도 남녀관계에서도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은 바로 그 만큼이 좋다.

그 적절함을 지키지 못했음에  
나, 지금 여기에

**작품평** : '적절한' 이나 '가운데 중'은 모호한 곳입니다. 치우치기 쉬운 위치입니다. 모든 것과의 거리, 관계에 있어야 할 거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시입니다. 시적인 완성도보다는 이 시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사물이나 재물과의 거리, 유지하기 힘든 사이와 거리를 생각해보게 하는 시입니다.

---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





# 「치유 :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를 읽고...

천지연



• 지은이 : 루이스 L 헤이

• 출판사 : 나들목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나는 징벌중의 상황에 있었으며 꽤 긴 시간을 혼자 생각으로 보내야만 했다. 운동 또한 제한인 상태라서 주 1회 15분 딱 별만 쫓 정도로 방밖을 나갔다 들어오곤 했다. 징벌(금치)를 받고 해벌되는 날 다시 별건으로 조사 수용되어 또 다시 금치를 받는 중이었고 진짜 딱 죽고 싶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였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돕고 도움을 받고 감정을 주고 받고 교류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흔히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칭하곤한다. 그래서 그랬던걸까? 그날 운동을 시켜주신 주임님께 갑자기 대뜸 내 어린시절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병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꾀꾀 숨겨둔 비밀 보따리를 하나하나 꺼냈고 주임님과 함께 운동장을 도는 그 시간동안 누가 시키기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계속 이야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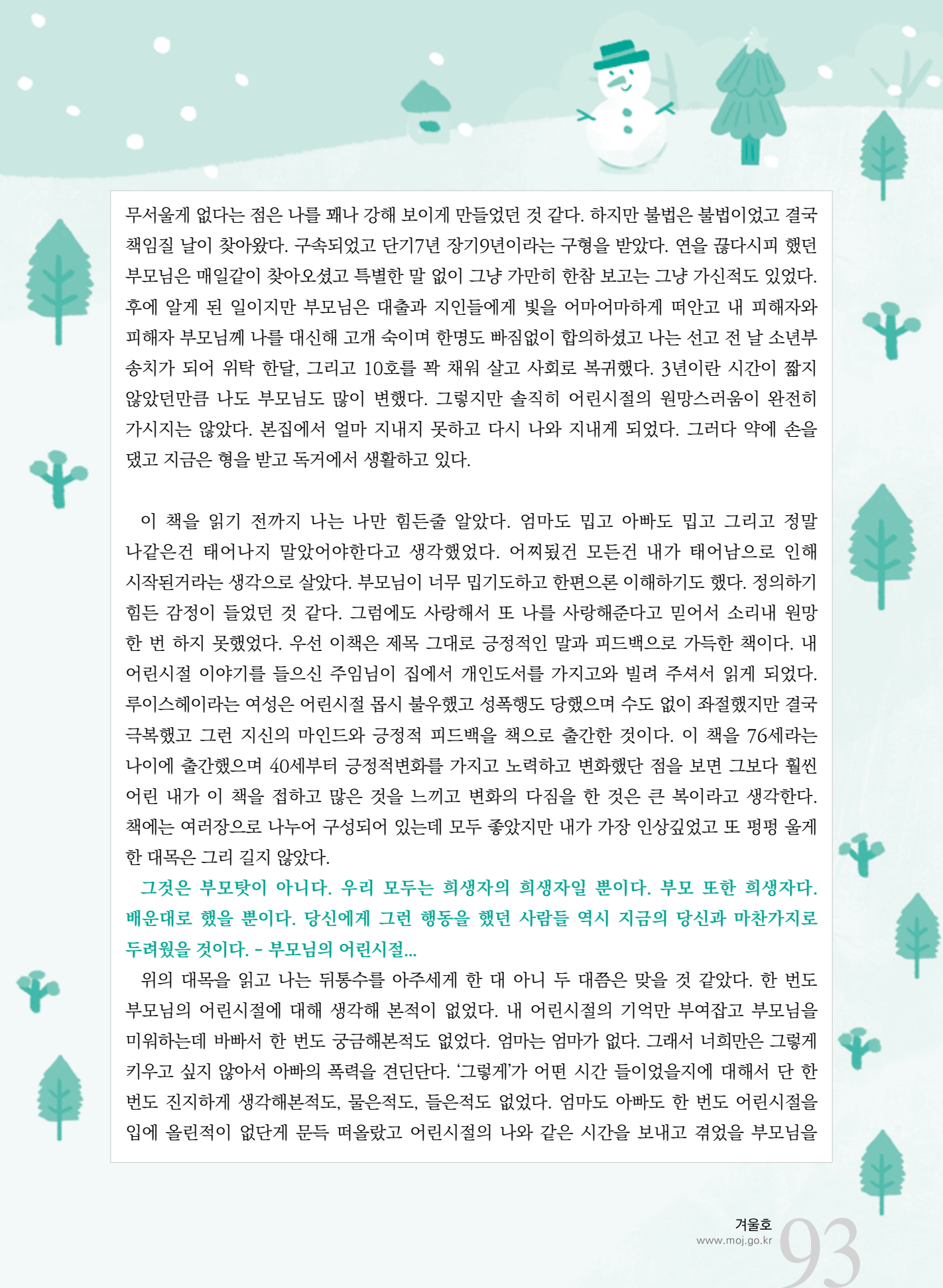
사실 내 어린시절은 불우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잔인했다. 내가 가장 어린시절의 기억, 그러니까 내 인생 첫 기억이 아빠가 엄마를 커튼봉으로 때리는 장면이었고 여기저기 터지고 찢긴 엄마는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다 나때문이라고, 나만 없었으면 엄마인생은 달랐을

거라고, 나를 원망하는 말을 수도없이 쏟아냈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엄마가 흠씬 두들겨 맞던 그날 동생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것이다. 솔직히 셀수 없을만큼 엄마는 맞았고 그 폭력은 나에게도 동생들에게도 자비롭지않았다. 엄마는 20세에 나를 가지고 같은해 말에 나를 출산하셨다. 아빠는 엄마보다 네 살 많았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고자 결혼생활을 시작하셨고 준비없이 시작된 결혼생활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던 것 같다. 양가 부모님은 모두 인정해주지 않았으며 나는 늘 배가고팠다.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치킨을 시켜먹고 피자를 시켜먹고 외식을 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나는 모두 나처럼 사는 줄 알았다.

나에게는 두살 터울의 큰남동생과 일곱살 터울의 작은남동생이 있었는데 큰동생은 태어날때부터 눈이 초점이 맞지 않는 사시였다. 매번 찢기고 부러져 어딘가 상처를 달고 다녔던 나는 엄마가 가르쳐 준대로 “놀다가 실수로” 다쳤다고 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에 가서 동생과 내가 먹을 밥을 챙기고 숙제를 해야했던 나는 어느새 천방지축 말괄량이 혹은 말쑥꾸러기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사실 마냥 아니라고는 할 수 없던 것이 나는 그시절 참 많이도 싸웠다. 맞벌이를 시작하신 부모님대신 동생들을 챙겼던 나에게 동생들은 그 이상의 존재고 의미였다. 그치만 어린나이 어린마음에 동생친구들은 동생의 눈에 대해 놀리고 괴롭히고 손가락질했고 나는 한명 한명 절대 지지않으려 발악하며 싸워댔었다. 성인남자에게 찢기고 부러질만큼 맞는게 일상이던 나에게 까짓 또래친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찌면 쌓인 설움을 그렇게라도 해결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다. 사이좋은 가족 단란한 가정 그런건 TV에나 있는거야 행복한 저 친구들도 사실 집에선 조금은 맞을거야, 어떻게 안맞고 산단거야? 하고 친구들의 행복하다는 일상을 믿지도 못했다.

나를 보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아빠와 차라리 죽여버리고 싶다면 엄마 둘중 누가 더 잔인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나하나 적자면 아직도 울컥울컥하는 마음에 상처를 마주하는 것조차 겁났고 열넷 가출을 밥먹듯 하다가 열다섯 결국 완전히 출가했으며 내 시간은 거기거 멈췄다.

나는 자연스레 불량스러운 무리와 어울렸으며 어린나이임에도 특별히 겁이 없던 탓에 큰 범죄에 연루되었고 매일 수백만원의 돈을 TV를 보면서도 쇼핑을 하면서도 꼬박꼬박 벌수 있었다.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니 정확히는 착취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 나를 팔고 싶지 않아 남을 팔았고 꽤나 체계적을 구축해 여자를 관리해주던 사람들까지 있었고 2~30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게 되었다. 범위가 커지고 암암리에 소문이 돌면서 흔히 생활한다는 오빠들과도 손잡고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종류의 불법에도 이것저것 손대게 되었다. 고작 10대 소녀였지만



무서울게 없다는 점은 나를 꽤나 강해 보이게 만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었고 결국 책임질 날이 찾아왔다. 구속되었고 단기7년 장기9년이라는 구형을 받았다. 연을 끊다시피 했던 부모님은 매일같이 찾아오셨고 특별한 말 없이 그냥 가만히 한참 보고는 그냥 가신적도 있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부모님은 대출과 지인들에게 빚을 어마어마하게 떠안고 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께 나를 대신해 고개 숙이며 한명도 빠짐없이 합의하셨고 나는 선고 전 날 소년부 송치가 되어 위탁 한달, 그리고 10호를 딱 채워 살고 사회로 복귀했다. 3년이란 시간이 짧지 않았던만큼 나도 부모님도 많이 변했다. 그렇지만 솔직히 어린시절의 원망스러움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본집에서 얼마 지내지 못하고 다시 나와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 약에 손을 댔고 지금은 형을 받고 독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나만 힘든줄 알았다. 엄마도 밋고 아빠도 밋고 그리고 정말 나같은건 태어나지 말았어야한다고 생각했었다. 어찌됐건 모든건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 시작된거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부모님이 너무 밋기도하고 한편으론 이해하기도 했다. 정의하기 힘든 감정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사랑해서 또 나를 사랑해준다고 믿어서 소리내 원망한 번 하지 못했었다. 우선 이책은 제목 그대로 긍정적인 말과 피드백으로 가득한 책이다. 내 어린시절 이야기를 들으신 주임님이 집에서 개인도서를 가지고와 빌려 주셔서 읽게 되었다. 루이스헤이라는 여성은 어린시절 몹시 불우했고 성폭행도 당했으며 수도 없이 좌절했지만 결국 극복했고 그런 자신의 마인드와 긍정적 피드백을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을 76세라는 나이에 출간했으며 40세부터 긍정적변화를 가지고 노력하고 변화했던 점을 보면 그보다 훨씬 어린 내가 이 책을 접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변화의 다짐을 한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책에는 여러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좋았지만 내가 가장 인상깊었고 또 평평 울게 한 대목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것은 부모탓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의 희생자일 뿐이다. 부모 또한 희생자다. 배운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 역시 지금의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것이다. - 부모님의 어린시절..**

위의 대목을 읽고 나는 뒤통수를 아주세게 한 대 아니 두 대쯤은 맞을 것 같았다. 한 번도 부모님의 어린시절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내 어린시절의 기억만 부여잡고 부모님을 미워하는데 바빠서 한 번도 궁금해본적도 없었다. 엄마는 엄마가 없다. 그래서 너희만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아빠의 폭력을 견딘다. '그렇게'가 어떤 시간 들이었을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적도, 물은적도, 들은적도 없었다. 엄마도 아빠도 한 번도 어린시절을 입에 올린적이 없던게 문득 떠올랐고 어린시절의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겪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참을수 없이 속상해서 영영 울었다. 사실은 정말 어린시절 그 모든 것들보다 동생들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와 타락하고 망가진 내가 미웠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란 것도 안다. 지난 날의 용서하기 가장 힘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였다. 그 사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어서 엄마, 아빠를 미워한다고 퐁퐁 숨겼지만 이 책을 통해 비로소 문제를 직면했다. 내가 뛰쳐나왔던 15세에 내 시간이 멈춰있던 동안 아버지는 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콜중독과 폭력성을 말끔히 고치셨고 엄마는 가시돋친 말대신 내말에 좀더 귀 기울여 주셨으며 집안 형편도 당시와는 다르게 꽤나 넉넉해 진 것 같았다. 동생의 눈도 괜찮아졌고 이제는 양가에서 인정도 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나도 다 안다. 나 혼자 과거에 머물며 온갖 세상에 원망만 해대던 때 나만큼이나 가족들도 힘들었을 거란걸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고 어찌면 엄마, 아빠도 나만큼 혹은 나보다 큰 응어리가 가슴에 남아 풀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하고 진심으로 궁금해졌고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날 이해 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거라 여겼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사랑받고 있었던것도 느꼈다. 솔직히 책 한권으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한 거짓말이다. 그렇지만 확실한건 읽기전의 나와 읽고 난후 나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나는 이책을 다섯 번 정도 읽고 돌려 드렸고 이번달 사책구매에 루이스헤이의 신작이자 유작인 '하루한장 마음챙김'을 시켰다. 매달 한권씩사서 매권 소리내 마음에 꼭꼭 눌러담아 읽을 계획이다. 그렇게 한 권 한 권 조금씩 나를 변화해 나가면 출소 즈음에는 정말 환하게 웃으며 집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엄마가 내 방을 예쁘게 꾸며놓겠다는 편지가 왔었다.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졌다.이 책이 정말 제목처럼 굽히고 쓸려 찢어지고 덧난 상처들을 조금은 따뜻하게 치유해 준것같다. 나와 비슷한 어린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꼭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고 생각했고 그래서 용기내 서툴지만 내 경험에 빚대어 독후감을 써보게 되었다. 읽고나면 마음이 따뜻해 지는 책이다.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책이다. 그리고 나는 또 이책을 수차례 읽을 준비가 되어있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일이 순조롭다. - 루이스헤이(치유)중**

**작품평 :** 독서가 왜 필요한지, 책의 위대함이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독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한 것이겠지요. 진솔한 자기 고백으로 달라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책 한권이 인생을 바꾸었듯이 누군가에게 이 독후감은 또 다른 변화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 「모스크바의 신사」를 읽고

신원철



불교에서는 ‘억겁(億劫)의 인연’이란 말이 있다. 한 겁의 시간이란 천지가 개벽하여 그 다음의 천지가 개벽까지의 시간을 말한다고 하니, ‘억겁’이면 얼마나 무한히도 긴 시간 일까? 그런 인연이니, 소중하고도 뜻 깊은 ‘인연’이 아니겠는가! 나에게도 그런 인연이 찾아왔다. 수용자의 신분으로 수형생활 중에 있는 필자는 교정본부의 방송프로그램의 하나였던 ‘명리심리학’이란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고 도서 <명리심리학>의 저자인 양창순 전문의가 추천한 책이 바로 <모스크바의 신사>이다. 서른 세 살의 주인공 알렉산드로 로스호프 백작은 그가 지내던 모스크바 메트로폴 호텔 밖으로 평생 나갈 수 없는 ‘종신 연금형’을 선고 받게 되고 그때부터 호텔이 감옥이자 세상의 전부가 되어 그 속에서 새 삶에 적응해 나가는 내용의 소설이다.

평소 외국의 여러 나라들을 거론하자면 대부분 우리나라와 친밀한 그리고, 친숙한 우방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필리핀 등이 TV나 신문에 자주 나오곤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와는 반대로 중국, 북한 등의 정치, 외교, 경제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다. 그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인 셈이다.

‘영국 신사’라는 말은 하나의 관용어처럼 자주 사용되고 듣게 되지만 ‘모스크바 신사’라는 말은 생소했고 그런 연유로 책 제목부터가 나의 호기심을 끌기에도 충분했고, 그렇게 ‘억겁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1922년 6월 21일 주인공 로스호프 백작이 인민위원회 재판을 받는 장면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20세기 초 볼셰비키혁명 이후, 로스호프 백작이 1913년에 쓴 시(詩) 〈그것은 지금 어디 있는가?〉 때문에 반동이란 이유로 33세의 백작은 호텔에서 평생 갇혀 지내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 소설은 1922년부터 1954년까지의 32년 동안의 세월을 주인공의 삶에 대해 시간적 구성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모스크바에 있는 메트로폴 호텔에 갇혀 지내는 동안 그 곳에서 새로운 손님과 사람들과의 끊이지 않는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주인공 로스호프백작은 금발의 노란색을 좋아하는 성향의 9살 배기의 여자아이 '나나 쿨리코바'를 만나는 인연이 시작되면서 주인공의 새 삶이 전개 된다.

'나나'라는 어린 소녀와 친구가 되어 호텔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호텔 직원 뿐만 아니라, 손님들과도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인공 로스호프백작. 메트로폴 호텔의 공간은 주인공 백작에게는 인생의 무대이자, 삶의 현장인 것이다. 호텔 내부의 '보야르스키(귀족이라는 뜻) 식당'의 종업원과 주방장과의 인간관계, 로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피아차(이탈리아어로 광장의 의미) 식당'에서의 에피소드, 야로슬라프 이발소, '살라핀'이라 불리는 미국풍의 술집에서의 에피소드는 소설의 흥미는 한층 더해만 간다. 나는 소설을 읽는 동안 내가 있는 이곳이 메트로폴 호텔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소설에 심취하게 되었고,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갇혀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주인공 로스호프백작.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지식과 상식 등의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그 중 영국의 젊은이와 독일인 여행자가 '살라핀'에서 술 마시는 장면의 에피소드가 아직도 나의 기억에 선명하다. 잠시 그 부분을 회상해 보면, 독일인 여행자가 뚱한 표정으로 빈정대듯이 주인공 백작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러시아인들이 서구에 기여한 유일한 것은 보드카의 발명뿐이야. 그 외에 자랑할 것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로스호프 백작에게 묻는다. 백작은 자신의 조국 러시아를 무시하는 독일인 여행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러시아가 기여한 바를 하나씩 말 할 때마다 보드카 한잔씩을 마시라"고 주인공 백작은 제안을 하게 된다.

그 세 가지 자랑거리는 이렇다. 첫째, 체호프와 톨스토이 문학의 신전에 자국의 위대한 문학가들이 있다는 것. 둘째,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셋째 '캐비아'라고 독일인 여행가







에게 상기시켜주는 장면은 로스호프백작의 지적인 매력을 재미있게 묘사했고 나에게도 러시아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인상적인 대목이었다.




또한 소설의 전반부는 ‘니나’와의 에피소드로 채워져 나가며 유명배우였던 ‘안나우르 바노바’와의 로맨스도 작품 속에서 그려진다. 주인공은 호텔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고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는지를 지혜롭고 흥미롭게 보여준다.




시간은 흘러 1938년 어느 날 168cm키의, 곧은 금발, 옅은 푸른색의 눈을 가진 젊은 숙녀로 성장한 ‘니나’와 재회하게 되고 그녀의 딸 ‘소피아’와의 인연을 만들게 되고 아이를 키워 본 경험도 없는 주인공 백작은 또 다른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소피아’가 13살 되던 해에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주인공 백작은 자신의 처지의 위험을 무릅쓰고 호텔 밖으로 ‘소피아’를 안고 병원으로 가는 장면은 진정한 부성애를 느끼는 감동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소피아’의 재능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벗어나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실천하는 장면 또한 주인공 백작의 지혜로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의 끝은 자신의 친딸도 아닌 ‘소피아’의 성공을 위해 펼쳐지는 백작의 모험적인 활약상과 함께 로스호프백작의 고향에서 로맨스의 여인과의 재회로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된다.



소설에서는 두 가지를 가슴 깊이 새겨 준다. 하나는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가장 현명한 지혜는 늘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몽테뉴의 격언인 것이다. 나는 모스크바의 신사, 주인공 로스호프 백작과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상상의 나래로 줄곧 행복했다. 주인공 백작은 러시아의 혁명의 거시적인 이념의 시(詩) 때문에 수인(囚人)이 되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수인(囚人)이라 결코 ‘모스크바의 신사’처럼 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교훈을 상기하며 나의 지금 상황에 맞게 본분(本分)을 지키며 ‘오늘도 최선을 다했나?’ 자문(自問)하고 참회(懺悔)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귀중한 ‘모스크바의 신사’와의 인연을 가슴에 품고 먼 훗날 수의(囚衣)를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노모(老母)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서울의 신사’가 되고 싶다.



**작품평 :** 나라와 시대가 다르고 처한 환경과 수인(囚人)이 된 이유가 다르며 소설과 현실이 다르지만 만나는 지점이 있네요. ‘신사’로 만나요. 백작이 조국 러시아의 자랑거리를 말했듯 우리의 자랑거리도 무척 많지요. 멋진 ‘서울의 신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니체의 말」을 읽고...

진정득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몸도 마음도 시려운 계절이 시작 되었지만 또 한 번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새길에 독서 감상문을 써 보려 한다.

독서 감상문을 쓰려면 우선 책을 읽어야 하고 읽은 책 중에서 기억에 남거나 가슴에 울림이 있는 책을 선택하고 기억을 뒤집고 떠올려 회상한다. 그럼 그 때 당시 느껴졌던 삶의 무게와 시련 또한 함께 다가와 마음을 아프게 시렵게 그림계 두근거리게 하는 거 같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몸도 마음도 시리고 아프지만 아프다고 엄살 부리는 것 또한 사치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괴짜 철학자의 「니체의 말」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나에게 있어 무너져 버린 자존감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상처 받은 내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고 안정을 되찾아준 소중한 명언이 많았던 책이다. 그 동안 수많은 소설책들을 읽었지만 소설책은 재미있고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면 이 책은 솔직히 재미는 없지만 나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가르쳐 준 책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 프로이센 왕국 작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900년



20세기가 밝아 오기 전 세상을 떠났다. 24세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지만 교직에 몸담은 것은 불과 10년 남짓으로 그 이후 요양을 위해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독특한 저술과 사색을 이어갔다.

니체는 철학자이기는 했지만 난해하고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 사색하며 그 이론을 풀어냈던 사람은 아니다. 그는 당시의 기독교적 도덕이 지나치게 내세적이라 비판하는 이 세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진리나 선도덕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현대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철학을 피력한 것이다. 니체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때문이다. 핵심을 찌르는 듯 날카로운 시점, 강인한 생기, 불굴의 영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굳은 의지가 참신하고 짧은 명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그의 말은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짓히고 마음 깊이 아로새겨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니체의 명언 가운데 우리 현대인의 이성과 감성을 흔들며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매서운 질타가 되는 것 같아 읽는 동안 아프고 기쁘고 용서 받는 두근거림이 많았다.

특히 꿈에 책임을 지는 용기에서는 잘못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 어째서 꿈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꿈이지 않는가? 내 꿈은 이것이라며 드높여야 하지 않는가? 그 만큼 유약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인가? 애초 자신의 꿈에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면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많이 어리석고 나약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변명을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에 꿈만 꾸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게 되었다.

얼마 전 아내에게 서신을 한통 받았다. 과거 우리의 삶은 항상 풍요로웠고 윤택했으며 호화롭다 못해 사치스러운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모든 걸 잃었고 우리에게 남은 건 사랑하는 우리 딸과 힘들게 수감생활을 하는 우리 남편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음에 만족한다고 했다.

만족. 지금은 향락주의자 또는 쾌락주의자라는 잘못된 의미로만 사용되는 에피쿠리언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 어원이 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삶에 있어 쾌락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도달한 정점이 만족이라는 사치였다. 그러나 그 사치를 누리는데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아담한 정원 그 곳에 심어진 몇그루의 무화과, 여기에 약간의 치즈와 서너 명의 친구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사치스럽게 살 수 있었다. 니체는 19세기 후반에 벌써 지금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글로 표현해 놓았다.

만족이라는 사치는 '소확행'이라는 현대 사회의 문화를 정의해 놓았다.

만족이라는 기준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 같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이뤄놓은 것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사치하며 살겠다고 기도했다.

연말이라 많이 외롭고 그립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어야 한다.

밖에서 딸아이 키우며 고생하는 아내가 참 그립습니다. 매일이 같은 내일이지만 연말이고 또 새해가 밝아옵니다. 반성하고 용서 빌면 용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연말이고 계획하고 소원 빌면 이루어 질 것 같은 새해입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작품평** : 자존감을 바로 세우면 못 할 일이 없지요. “잘못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 꿈에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오래 남네요. 꿈에 책임지고 늘 노력하여 꿈을 펼쳐 보아요. 당신 꿈을 응원합니다.

# 「수소 전기차 시대가 온다」를

## 읽고...

주광호



각종 매스컴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수소 산업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 대부분은 수소자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소관련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또한 수소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도 가스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이기에 좀 더 수소가스를 공부할 수 있고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이해 하고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책에서 국민들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수소관련 내용을 여섯 가지 정도 요약하여 최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첫째, 수소

주기율표 가장 윗줄 왼쪽위치에 자리한 원자번호 1번 H로 수소라고 하며, H<sub>2</sub>로서 가연성 가스이며, 분자량은 2, 일반 공기 무게의 1/14 정도로 가장 가벼운 가스이다. 수소가스를 이송이 쉽도록 액화하기 위해서는 영하 253℃까지 내려야 하며 액화 시 1/800 정도 부피가 줄어든다. 수소생산 방식은 크게 3가지이며 물은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 철광소나 제철소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서 수소를 얻는 방식이 있다.

수소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 수(水) 본디 소(素)라고 하여 물을 구성하는 물질이라는 의미이다. 수소를 순수한 산소와 연소 시키면 물만 남는 것이며 물을 전기로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것이다.

### 둘째, 수소연료와 수소폭탄의 차이점

수소연료는 LPG처럼 연소시켜 폭발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이용하여 열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연료전기는 수소자체를 연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수소폭탄은 중수소, 이중수소라는 완전 다른 물질이며 수억°C의 고온과 초고압에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로 태양 정도 되는 가혹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수소전기차를 언급할 때 수소폭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상온에서는 중수소와 이중수소를 구현 할 수 없어 절대 수소폭탄이 될 수 없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성인 수소저장탱크는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 외관에 철보다 10배 강한 탄소 섬유를 특수한 패턴으로 감아서 만든 것으로 만약 탱크가 파열될 정도로 부위가 찢어지면 수소가 새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고 무게 7,300톤에 전될 수 있는 등 15개 인증시험을 통과해 사고로 인한 폭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 셋째, 연료 전기의 원리

연료전지는 3차 전지이며, 1차 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하는 장치로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건전지며 2차 전지는 외부전기를 통해 내부에너지를 축적하는 휴대용 배터리, 3차 전지는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에너지를 열과 전기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구성으로는 연료극과 공기극, 전해질로가 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료극에서 수소가 들어오고 공기극에서는 산소를 품은 공기가 들어온다. 수소가 중간에 전해질을 통해 공기 극으로 이동하여 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생산하고 이때 열과 전기를 생산하며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를 이용하여 전기 모터를 구동하여 이동하는 방식으로 LPG자동차처럼 가스엔진에 LPG를 폭발시켜 에너지를 얻어 구동하는 것이 아닌 연료전기를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로 수소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 넷째, 수소전기자동차 vs 배터리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성으로 연료전지 발전기, 수소연료 공급 장치, 수소저장탱크, 전기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를 구동하려면 수소탱크의 수소가 연료전지 안으로 들어가 공기와



수소가 만나 전기를 만들고 전기모터를 구동하면서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배터리 전기자동차 구성으로는 충전식 배터리 전기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충전된 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이다.

공통점은 엔진이 없고, 소음이 없고, 연소를 하지않아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이 없고, 온실가스인 CO<sub>2</sub>배출이 또한 없다. 차이점은 수소전기자동차는 충전시간이 3~5분 정도로 짧고 주행거리는 길며, 유지비는 디젤보다 비싸고 휘발유보다 싸다. 충전소가 전국에 14개 정도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충전소 건설시 민원문제와 비용이 30억 정도로 신규건설이 쉽지 않다. 수소전기자동차 부품이 2만4,000개 정도로 사업적 파급력 및 일자리는 많아진다. 배터리 전기자동차는 충전시간이 30분~40분정도 길고 주행거리가 짧으며 휘발유에 10배정도 싸다. 하지만 배터리 전기자동차 부품은 1만 5,000개 정도로 수소차에 비해 파급력 및 일자리가 적고 자동차 배터리 수명이 있다. 또한 충전시간이 길어 주차 갈등처럼 충전기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갈등이 있을 수 있다.

#### 다섯째,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는 수소공급방식, 구축방식, 입지조건에 따라 종류가 있으며 수소공급방식으로는 수소를 트럭에 싣고 와서 탱크에 저장해 판매하면 저장식, 수소원료를 가져와 판매처에서 만들어 팔면 제조식으로 구분된다. 구축방식에 따라서는 수소파이프라인 연결방식으로 수소거점에서 파이프라인을 거쳐 충전하는 방식, 도시가스 추출방식으로 도시가스 배관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 수소운반 방식은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 충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입지조건에 따라서 단독형은 말 그대로 수소충전소가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복합형은 기존 주유소, LPG/CNG에서 수소를 추출하여 충전하는 방식이 있다.

#### 여섯째, 수소사회를 선도하는 일본, 호주

일본은 수소를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 분야 특히 출현세계 1순위 나라로서 수소전기자동차와 가정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정책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민 인식 또한 수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2020년 4만대에서 2025년 25만대, 2030년 80만대를 목표하고 있으며 충전소 또한 320개 정도 건설되어 있으며 지게차, 쓰레기 트럭, 트랙터, 버스, 택시, 철도

등에 이용하고 있다.

가정용 연료전기(에너지팜)은 2009년부터 시행했으며 2020년 140만대에서 2030년에는 530만대 예상하며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여 에너지팜으로 가정용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고 국민 92%가 에너지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85%가 만족하고 있다.

호주는 수소를 생산하여 한국과 일본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호주에는 남한 면적 5.5배의 필바라 사막에서 태양광발전, 남쪽해안가에서 풍력, 조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며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여 물 분해를 통해 수소 생산하여 판매하고 현지에 남아도는 갈탄을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므로 생산원가 또한 낮게 수소를 생산한다.

결론적으로 물을 나누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고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에너지와 물이 나오고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니 무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도 없고 온실가스인 CO<sub>2</sub>도 배출하지 않는다.

지금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고 태풍과 가뭄, 극한과 폭염이 인류를 위협하는 지금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탄소가 아예 없는 에너지, 수소를 향해 가는 것이 에너지 전환에 필연적인 흐름이다.

**작품명** :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기 쉽게 수소에 대하여 여섯 가지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수소폭탄 이미지가 있어 쉽게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끔히 해소되었네요. 무한 에너지로 미세먼지도 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수소에 대하여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에이트」를 읽고...

김경준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와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 새로운 분기점의 중심에서는 그 나아갈 방향을 쉽게 짐작할 수가 없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와 부정적 파급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일반 대중은 서류에 몸을 맡길 뿐이다.

하지만 조금만 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미래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면 말이다.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자칫하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4차 산업발 혁명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그 결말이 어떻게 막을 내리고 평가될지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AI로 촉발되는 큰 고용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망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인한 사회적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강남언니(의료), 로톡(법률)같은 AI기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화이트칼라 계층의 설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때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긴 안목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고민하고 불안해하던 때 책 「에이트」를 읽게 되었다.

「에이트」는 꿈꾸는 다락방이란 책으로 유명한 이지성 작가가 쓴 책으로 AI 시대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은 통찰력으로 풀어 낸 책이다. 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와 문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나 꿈꾸는 다락방 책은 매우 유익하게 읽었다. 그 책에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라고 한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 「에이트」 책은 어떤 미래를 상상했는지 궁금하다. 소개해 달라.**

작가 빠른 속도로 AI가 발전하고 있고 그로인한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다. 앞으로 거의 모든 분야의 일자리를 AI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래는 AI의 주인이 되는 사람과 AI에 종속되는 두 종류로 나누게 될 것이다.

현재의 교육체계는 AI에게 종속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몇몇 나라는 AI가 가져올 미래를 대비해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주입식 교육으로는 더 이상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양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1년 넘게 자료를 모으고 성찰 한 것을 바탕으로 AI시대에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을 8가지로 챕터로 정리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에이트」라 지었다.

**나 음... 좀 더 짧고 쉽게 설명해 달라.**

작가 AI는 많은 부분 인간의 역량을 넘어 섰고 빠르게 격차를 벌인다. 10년 뒤 거의 모든 작업의 인력을 AI가 대체하게 된다. 이 책은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길을 제시한다.

**나 AI가 거의 모든 직업을 대체하게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작가: 세계적인 금융회사 JP모건 체이스는 “로스”라는 IBM이 만든 최초의 AI변호사인 데 인간이 36만 시간을 소요한 계약 업무를 몇 초 만에 끝낸다.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 “켄쇼”를 입사시키고 598명의 트레이더를 해고했다. 켄쇼는 598명이 한 달간 처리해야 하는 일을 3시간20분만에 끝냈다. 심지어 일을 더 잘했다. 인간 약사는 100건당 1.7건 꼴로 조제시 실수가 생긴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은 AI약사를 도입했고 조제 실수를 0건으로 줄였다. 화이트칼라의 대다수 업종이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나 아직 먼 미래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저 낫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 8가지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 듯 하니 줄여서 알려 달라.

작가 좋다. 핵심 내용만 추려 보겠다.

첫째: 디지털을 차단하라.

다섯째: 철학하라.

여덟째: 나에서 우리로 보라.(봉사하라)

나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을 차단하라니 역설적이다. 설명해 달라.

작가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내면의 힘을 길러 줄 능력이 길러진다. 이는 창조적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IT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기르면 새로운 IT기기를 창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실제 실리콘밸리 가정에서는 IT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아날로그적 삶을 사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들은 IT기기의 종속자가 아니라 주인이자 창조자로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IT기기를 발명한다.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잡스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들은 IT기기로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결국 IT기기에 종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중독이 된다는 것은 의지와 관계없이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면 점차 공감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상실되고 공감, 창조력이 상실되면 결국 AI의 능력을 쫓아 갈 수 없게 된다.

나 한편으로는 무섭게 느껴진다. 하지만 IT기기를 통해서도 인간의 공감, 창조력은 여전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메타버스 내에서도 사람들은 모이고 연결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지 않은가?

작가 그런 플랫폼을 창조하는 자는 누구이겠는가?

나 아...그렇군 IT기기에서 한발 떨어졌을 때 혁신적인 발상이 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그럼 철학은 왜 해야 하는가?

작가 AI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할 해답을 내놓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철학(인문학)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거나 기존 지식과 기술에 혁신을 일으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AI빅데이터 기업이 철학자를



CEO로 앉혔고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철학에 빠졌다.

나 AI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AI가 곧 철학의 영역도 넘보지 않을까?

작가 하하하. 그렇다면 세계의 리더들이 철학 교육에 열을 올리진 않을 테지. AI가 철학을 하는 것은 기술적, 과학적으로 적어도 100년 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 당장 철학공부를 해야겠군. 마지막 키워드는 “나에서 우리로 보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작가 일본 인공지능 교육혁명의 실행자라고 할 수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 교사 양성 과정에 철학, 예술, 언어, 수학, 과학, 사회에 이어 “봉사”가 있다. 미국 최고의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빈민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 기간만큼 학업이수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적인 봉사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AI는 공감과 창의성 있는 봉사는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생 세 명이 압력밥솥을 이용해 아프리카의 식수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공감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십분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시대는 인권이 윤리도덕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문명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인간소외의 문제는 인권의 과정에서 접근할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내 안의 인간성 자체에 집중할 때 얻어진다.

나 결국은 AI는 연민, 사랑을 느끼지 못 할 테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 사색, 공감 능력이 앞으로 다가 올 세대에 인재를 가르치는 변별력이 될 것이라는 말인가?

작가 그렇다.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유무가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색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면 AI시대에 도태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즘 꼭 필요한 대처 방법을 알려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다. 이지성 작가가 제시하는 방법이 한 편으로는 다소 현실적으로 와 닿는 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다. 디지털 차단, 철학, 봉사 이런 것들이 당장 내 일자리를 보장해 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좀 더 긴 안목으로 그리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인간의 다양한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인간의 내부에 알려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이 차단된 된 곳에서 사색하고 성찰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에 놓여져 있다. “나”의 관점을 “너” 그리고 “우리”로 돌리게 된다면 지금의 시간은 다가 올 미래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시대가 다가오더라도 자신의 운명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 새로운 형식의 독후감을 통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작가와의 문답 형식이라 핵심을 잘 찾아 질문하고 답하며 요약도 잘했습니다. 한발 더 들어가는 질문도 좋습니다.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할 무기가 철학(인문학)이군요. 인문학으로 내면을 탄탄하게 만들어요.

---

“독후감”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





## 노래사연 보내기

이정만

누구라도 막 올수 없고 아무나 막 올수 없는 곳에서 보내는 금요일 오후 12시. 늦게 들어와 누구도 말을 건내지 않는 독거실에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되어 오자마자 인사를 먼저 한 것은 스피커에 나오는 예쁜 목소리 방송국에서 들려주는 재소자의 사연방송이 혼자 있는 시간 마음도 어수선 몸도 천근만근 되어있는 지금 재소자의 사연이 어찌나 구구절절 하던지 나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 사연을 노래에 실어 띄어 보낼까 용기 내어 사연을 담고 있는 노래 적어 봅니다.

저 어릴 적 추석 전에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너희들 중에 이번에는 누가 아버지랑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갈려나” 우리는 서로서로 눈치 보면서 갈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느라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면 어린 저를 꼭 껴안고 올해는 “너가 당첨이다” 하시면서 껄껄 웃으시면서 한손에는 낫을 들고 또 한손에는 산소에 올일 과일과 포 같은 것을 들고 앞에 가시면서, 하시던 말씀 “아가야.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서 쓸 막걸리 송방에 가서 한 병만 가져 온나” 하시면서 산소 길을 재촉하시면서 “아가야 우리 부지런히 하고 얼른 집에 가자” 하시던 말씀이 귓전에 맴 돌아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명절이 되면 온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추석은 지났지만 해년마다 찾아뵈던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를 드려야만 할 산소에 올해는 못 갔으니 내년에는 꼭 참석하여 아버지께서 좋아 하시던 막걸리 한잔을 큰절과 함께 올릴려고 합니다.

일하시다 새참으로 막걸리 한잔 드시면서 구슬땀을 닦으시던 아버지, 어머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지금쯤이면 부모님 산소에 가다보면 아버지께서 항상 따주시던 개복숭아 한입물면 단맛신맛이 어울리면서 맛나게 먹으면서 아버지 뒷발걸음 밝으면서 가던 산소길 이제는 제 아들과 다시 한 번 찾아 가려합니다.

“아가 오느라고 수고했다” 하시면서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보고 싶었다 하실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청할 곡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막걸리! 막걸리 한잔으로 할까 합니다.

**작품평** :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잔이라는 노래에 어릴적 아름다운 추억들을 되새기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군요. 꼭 아버님 산소에 가셔서 이 노래를 크게 불러보세요. 마음이 따뜻해 질것이니깐요.







수기



## 번데기 너~어..

조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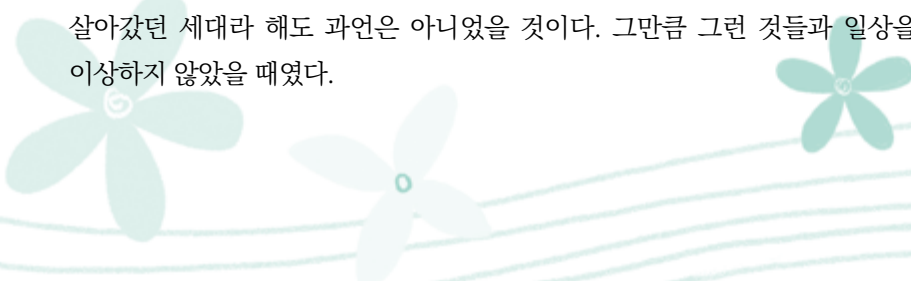
요즘의 날씨는 가을 단풍의 경계선도 없이, 겨울로 성큼 넘어가는 희한한 10월이다. 아마도 지구촌의 심한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현상이 주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가뜰이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2년여 동안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상기온까지 생겼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나는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설거지를 끝내놓고 달달한 커피한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때마침 라디오에서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애절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타연주와 하모니카를 부는 솜씨는 그 노래에 푹 빠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듣는 이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었다. 아마 7080세대에서 만큼은 단연 으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분위기에 흠뻑 취해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문득 학생시절의 추억 하나가 스치듯 지나갔다. 재미는 없겠지만 오늘을 그 애길 한번 해볼까 한다.

때는 바야흐로 비포장 길이 흔했던 80년대 었다.

그 당시는 상점에서 쏘다기도 팔고 있었고, 요즘 오징어 게임 영화에도 등장한다는 달콤한 「달고나」역시 버젓이 맛있게 만들어먹던 시절이었다. 어찌면 그 시대는 불량식품과 더불어 살아갔던 세대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런 것들과 일상을 함께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때였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느새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드디어 졸업여행을 떠나는 아침을 맞았다. 엄마는 이른 새벽부터 여행준비물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느라 무척 분주한 모습이셨다.

내가 좋아하는 마른 오징어 반찬에 김밥까지 많이도 만들어 놓으셨으며, 또 여행 가방 속엔 며칠 동안 먹고 사용할 맛있는 과자들과 옷가지 등 가방 지퍼가 터져나갈 정도로 엄마의 사랑까지 듬뿍 담아 챙겨주셨다. 거기에 두둑한 용돈까지...!! 우와~돈 ♪내려온다!♪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매일 오늘만 같아라 하며 주문까지 원다.

그렇게 부모님께 작별인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향해갔다.

중간쯤 가고 있었을까!! 길가 한쪽에선 연탄불위에 양은솥을 올려놓고 번데기를 팔고 있는 아저씨가 보였다.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지나가랴!! 나는 그 꼬소한 냄새에 이끌려 어느새 번데기를 사서 먹고 있었다.

가벼운 발걸음은 벌써 학교 앞에 도착했다. 이미 버스들은 운동장 한쪽으로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친구들은 반별로 줄을 지어 서 있었는데, 나도 반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네 얼굴 왜 그래.. 얼굴에 울긋불긋한 반점들이 많이 생겼어.. 얼른 선생님한테 가봐” 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친구가 농담하는 줄 알았었는데, 차츰 놀란 듯 얘기해 주었던 친구를 생각해보니,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아까부터 기분이 나쁠 정도로 아랫배가 살살 아팠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이었을까!! 은근히 신경 쓰이고 이내 마음이 걸렸다. 나는 급히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얼굴을 보여 드렸더니 즉시 양호선생님한테 데리고 가셨다.

양호선생님은 진료를 마치신 후에 엉덩이 주사를 놔주셨고 약도 지어주셨다. 선생님께서 “이젠 괜찮을 테니 아무걱정하지 말고, 여행 잘 다녀와라”하셨다. 나는 그 말씀이 어찌나 안심이 되고 편했는지 모른다. 기분도 금세 좋아졌다.

우야픈둥, 졸업여행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출발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랫배에서 또다시 꾸르륵 꾸르륵 거리며 설사증세를 보였고, 얼굴의 붉은 반점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여전히 불안하고 초초한 상태의

연속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친구들은 버스가 관광지에 도착할 때 마다 차에서 내려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기념품도 사면서 재밌게들 놀고 있었다. 그런 모습들이 내겐 몹시도 부럽게만 느껴졌었다. 그도 그럴 것이 친구들이 밖에서 재밌게 노는 동안, 나는 혼자 차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얼굴에 나있는 붉은 반점들 때문에 흉측하고 창피해서 도저히 밖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때만 해도 나는 부끄러움이 많았고 성격도 무척이나 소심했던 때였다.

나는 차안에 있는 동안 별의별 생각들을 다했다. 이렇게 많고 많은 날들 중에 왜 하필이면 오늘같이 기분좋은날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왜 하필이면 남들도 아닌 내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며, 절망과 좌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루가 더해갈수록, 이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전체로 번져 있었고, 심지어 두드러기 까지 나있는 상태였다. 정말 끔찍했다. 소름이 돋았다. 모두가 미웠고, 모든 게 싫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채 오직 집에만 가고 싶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간다. 행복과 불행의 연속이 곧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 행복을 부여잡는다고 해서, 불행을 밀어낸다고 해서, 그 행복이 내 것이 되고, 그 불행이 남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이나 내말처럼, 내 생각처럼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살아가다보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어야만 할 때가 있고, 또한 꼭 겪어야만 할 일도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로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살아 내다보면 살아지는 것이 인생이고 진리일 것이다.

난 어느 순간 번데기장사 아저씨를 원망했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마저도 미워하게 됐던 적이 있었다. 내 자신이 한순간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와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은 내 탓이었다.

내가 등푼길에 번데기만 사먹지 않았던들... 이처럼 추억의 졸업사진 한 장 없이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며, 더더군다나 남까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솔직히 번데기가 무슨 죄가 있으랴!!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번데기와 너무도 찢힌 경험(?)을 했었노라고...!!  
지금까지 이런 번데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번데기인가.. 뽀뽀스런 불량식품인가...!!  
낮에 들었던 김광석의 노래가 생각난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맛있는 번데기는 해(?)를 품은 뽀뽀기였음을~!!

끝으로, 잠시나마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중에 번데기를 만나, 아픈 추억일망정 그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번데기...너~~어. 그리울 꺼야.

**작품평** :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끌림, 어린아이와 같은 무한한 호기심, 삶이라는 놀이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죠. 나이가 육십을 넘었어도 열여섯살의 마음에도 이와같은 즐거운 호기심이 작자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것입니다.

---

“수기”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원정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겨울의 문턱에서 걱정되는 건 오로지 어머니의 건강입니다. 42살의 나이에 아직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그동안 편지를 제대로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한 식탁에 밥을 먹어본 게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서울로 이사 와서 낯설고 아는 것, 아는 곳,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와서 아버지랑 싸우고 나서 학교 다녀오라는 말 듣고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는 평평 울며 어머니를 찾는 날이 많아졌으며, 11살이라는 나이에 저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저와 형을 키워 보겠다고 낯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갖고 싶은 것을 돈으로 사주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고, 소풍갈 때 김밥 한줄 싸주고 학교 앞에 배웅을 해주는 아주 평범한 아이들의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사귀 친구 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뭐하시냐고 친구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혼 하셨다며 말씀 드리니 제가 갈 때 친구 어머니께서 “엄마 없는 애랑은 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전 그날 이후로 학교를 안 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형들하고 어울리면서 잘못이 잘못인줄 모르는 채 주린 배를 채운다고 시장 골목을 누비면서 과일도 훔쳐 먹고 추운 겨울바람을 피한다고 천막 쳐진 용달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새우며 지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이 되는지 사리분별은커녕 오히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구속 안 되고 풀려나길 반복하다 결국 촉법 소년 만 14세에 되는 다음날 법이라는 것을 알았고 세상을 비판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려고만 했지 모든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이 무리에서 이기려면 강해지는 방법 밖에 없구나! 힘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는 사이 소년원만 14살부터 19살까지 세 번 살았고 20살 성년이 돼 있을 땐 교도소에서 몸의 세상을 배우고 선·후배, 친구들과의 우정과 의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되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면회를 오시더니 “이제 너도 성인이다. 성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라 부모로써 도리를 다 한 것이고, 이제부터 다시는 이런 곳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며 돌아가셨고 이제는 진짜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도 선후배 친구들과 지낼 곳도 있었고 부모님이 없어도 괜찮다 생각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이모가 운영하시는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생일날 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찾아갔는데 멀리서 저를 발견한 어머니는 뒤로 숨고 이모는 엄마 없다면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아들 보는데 숨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전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연을 끊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불신과 부모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반항심은 제 가슴속 깊이 새겼고 그날 이후로는 이제부터 나는 혼자이니 강해져야 한다고 마음먹고 정식으로 선배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고 마음껏 살게 된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유년 시절은 집 밥 한번 제대로 못 먹어보고 살았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가정을 꾸렸지만 역시 살아온 길과 자라온 환경이 많은 것을 인생에서 좌우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가정은 어리석은 행동들로 잃게 되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제 자신을 비판하는 순간이 저에게 찾아오더군요. 우연히 길을 걷다 피는 통하는지 어머니를 마주쳤고 근처 카페에서 “한번만 더 마주치거나 찾아온다면 그때부터는 아줌마”라고 부를 테니 헤어지자하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웃고 떠들고 같이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건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소년원 생활을 했고 가혹한 인생에서 해매일 때 자식들에게는 미안하시다며 모처럼



집에 누웠는데 퍽퍽거리는 소리가 나서 안방 문을 여니 열릴 수 없게 돼 있었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문을 열었더니 자식에게 죄책감으로 목을 메고 천장에 매달려 계시기에 가위로 넥타이를 잘랐더니 왜 살려 놓았냐고 바지에 오줌을 쌀 때까지 맞고 다음날 지친 몸으로 누워있는데 아버지는 농약을 드셨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나셨고 두 번 다시는 반복된 일을 안 하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자식 생각을 하신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 식사? 커피? 하다못해 물 한잔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으셨고, “근역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새 어머니쪽 식구들이 아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하셔서 10년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안하고 어쩌다 만나면 돈이나 요구하시고,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중에서 월세를 빼고 모두 인출하여 드리고 “이제는 연락하지 마시고 잘 사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할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하며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거 엄마는 알거야.

정확히 따지자면 29년 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2020년 6월 29일 만기 출소하기 며칠 전에 찾아 오셔서 짧은 접견시간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습니까? 가정을 두 번 가져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용서되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미안해. 더 나이 먹고 그러기 전에 아들과 살고 싶다”라고 하셔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만기 출소하여 어머니는 사시는 영세민 아파트에 가서 어머니께서 손수 해주신 집밥을 먹고 평평 울었던 거 기억 하시죠? 제가 살아오면서 바랐던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소소한 행복으로 사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놔의 아들 29년 만에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고 힘들어도 열심히 살 생각은 안하고 그만 어머니랑 딱 한 달 살고 마약의 늪에 빠졌고 어떻게 가진 가정인데 경찰서 유치장에 와 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구속된 소식은 아셨지만 접견 오시지 못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제 몸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마비 증후군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됐고 수술을 위해 구속 집행정지로 나가서도 수술 마치고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수술실에 들었을 때 5시간 30분을 앓지도 못하시고 계시고 간병을 해주셨을 때 너무 좋으면서 어색했습니다.

몇 개월의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하고 구속 집행정지 취소 될 때까지 눈치를 아셨겠지만 마약을 또 다시하였고 96키로 그램의 몸이 64키로 그램으로 빠질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지팡이 짚고 마약을 팔고 투약하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편지 처음 보내면서 그렇게 엄마가 듣고 싶어 하는 마약 안한다고 다짐한 게 첫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약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잃어버린 42년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어머니의 늘어난 주름에서 늘 웃음이 가득하게 해줄게요, 못 지킬 약속 안하는 거 알지요? 이제는 친구분을 만날 때도 수시로 확인 전화 안 해도 되고 그저 좋은 시간 보내셔도 되니 부디 제 곁에서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저에게는 효도 할 시간은 주셔야 되잖아요.

유유자적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시간이 원망스럽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단약 한다는 말 들으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절대 두 번 다시는 29년 만에 얻은 어머니께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족들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썩어 문드러진 어머니 가슴 헤아리고 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작품평** : 불혹의 나이에 돌아보는 지난 날은 눈부신 날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많지요. 편지를 통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희망을 안고 나아가는 모습이 좋습니다. 마약을 안 한다는 약속 꼭 지키시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집 밥 먹으며 효도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지난날들에 집사람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반성의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낸지도 어느새 네 번째 겨울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현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불혹이 지난 나이에 부끄럽게도 영어의 몸이 되어서 몸이 많이 편찮으신 장모님께 옥중서신을 올리게 되어 정말 송구합니다.

네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 동안, 지난날 집사람에게 더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지 못하고 더 열심히 살아오지 못해서 장모님께서 금지옥엽 귀하게 키운 큰딸 고생만 시켜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로도 지금 이 상황 용서가 되지 않으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년의 징역형을 받은 저의 소식을 전해 들으신 장모님께서, 어리석고 못한 사위 때문에 걱정하시다 몸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집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 이 못한 사위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25년 전 장모님께 귀한 따님을 평생동안 고생시키지 않고, 호강만 시켜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드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5명의 독수리 오형제를 키운다고 많은 고생을 시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송구합니다.



장모님!

제가 이곳에서 보내는 혹독한 시련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출소 후에는 “무른 감도 쉬어 가면서 먹어라”는 속담처럼 틀림없는 일이라도 잘 알아보고 조심하며 가족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오. 너무나 염치가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며, 좀 더 성숙된 사람, 큰 그릇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제 걱정은 이제 그만 하시고 장모님 편찮으신 몸이 빨리 쾌차하시는 데만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장모님!

이곳에서 제가 얻은 것 중 가장 큰 기쁨은 부처님을 더 가깝게 알게 되었고 그 부처님께서 주시는 지혜, 참회, 용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돌아오지않을 시간 살아 있으며 행복을 느끼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매 순간순간 오늘을 잊지 않으며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민영이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살겠습니다.

제가 더 독수리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장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머지않아 기쁨을 주겠다는 삶의 눈물겨운 약속이라 했습니다.

장모님!

묻고 가는 것은 아픈이고 품고 가는 것은 연정이다 했습니다. 소중한 마음에서 비롯된 서글픈 두 갈래 길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못난 사위를 용서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하나뿐인 장모님

**작품평** :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사랑을 많이 받으셨지요. 25년 전 장모님께 한 약속이 마음에 걸리시는군요.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 장모님께서도 우리 든직한 사위라고 믿고 의지하실 거예요. 모든 아픔은 묻고 가고 모든 사람은 품고 가는 따뜻한 길을 만드세요.

---

“서간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

## 2021 새길 가을호를 읽고

서정기

### 작품평

아무리 지엄한 어명도 몸은  
가둘 수 있어도 생각과 상상은  
가둘 수 없다지요. 새길과  
함께 떠오르는 지난 추억과  
값지고 귀한 시간에 대한  
되돌아봄 등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따뜻한 마음이  
보이네요. 추억여행  
즐거우셨죠?

새길지 2021 가을호는 내게 추억으로의 여행이었다.

오랜만에 생각을 담장 밖으로 보내 먼 과거로까지  
여행하며 추억을 더듬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현재도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송편은 누구에게나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추억이고,  
사랑이고 그리움일 것이다. 송편에 얽힌 추억 하나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나 또한 많은 추억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송편을 빚으며 구박받던 생각이 먼저 난다.

남자들은 밤을 까고 여자들은 송편을 빚는데 나는  
밤까는게 싫어서 할머니와 어머니 누나들과 여동생,  
큰누나보다 어린 고모까지 여자들이 송편을 빚는데 끼어  
송편을 빚겠다고 하다가 설탕이나 팔 송편은 다 터져 빚기  
쉬웠던 콩 송편을 할당해주어 혼자 앉아 빚었던 기억이  
먼저나 웃음짓게 한다.

직원의 시와 수형자의 시를 보면서는 운율에 맞추어 어린  
시절 추억이 눈앞에 그려진 듯한 현실감에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와 작은 어머님도 만나고 건강한 어머니 모습도 보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직원의 시와 수행자의 시를 같이 보면서 관리자와 수행자의 입장에 있어 모한 기분도 들었지만, 그 추억만은 모두 같음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수필에서는 송편에 대한 아픈 추억을 보았는데 나는 조부모님부터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여 북적한 명절을 보냈고 시골이지만 먹고 싶은 것들 싹껏 먹으면서 같이 놓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나에게는 평범했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행복이란걸 느낀다. 이곳에 와서야 평상의 일상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시간이였는지 새삼 깨달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이 하나하나가 혜택받은 것이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 이곳에서 내가 누리는 있는 것들인 보일러 나오는 신건물에 수행자를 배려하는 직원들, 화목하게 지내는 방사람들, 가족과 지인들의 접견과 서신 그리고 관심과 사랑,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여건 등등, 시각을 바꾸어보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현재에도 누리고 있는 또 하나의 행복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

‘용서를 구합니다’를 보면서도 구속된지 얼마 안된 분들이 진정으로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참용서와 나의 반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이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인 우리에게 대한 죄값은 실은





## 2021 새길 가을호를 읽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할 대상은 가족임을 깨닫는 계기도 되었다.

나도 구속전부터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며 구속된후 모든걸 내려 놓고 죄값을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생각에 판결 결과에 쉽게 승복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구속된지 얼마안된 분들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인다.

나는 14년 2월로 구속되어 8년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반성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나간 사람들이 자력에 이끌리듯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봐왔다. 그럴때마다 지금의 나의 각오와 노력으로는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수용생활을 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면접견은 자존감 밧데리의 충전시간이다. 코로나로 오랜기간 접견이 중지되어 섬에 홀로 갇힌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 새길호는 따뜻한 글들로, 자존감을 충전하고 가슴을 덥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다른 분들도 따뜻한 추억 여행으로 가슴을 덥히고 충전하여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시길 기도드린다.

## 새길 가을호를 보면서

김종철

### 작품평

가족에 대한 의미, 그리움, 추억, 용서와 반성,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 새길에 대한 정확한 표현들입니다. '송편'에 대한 추억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곱씹게도 하네요.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믿음이 갑니다.

이 곳에서 수용생활을 한지 어느덧 20여년 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변치 않고 내 곁을 지켜준 새길.

제가 이곳에서 있는 동안 '새길'이라는 존재를 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그리움과 추억도 그리고 용서와 반성을 깨닫게 해주는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송편'이라는 주제로 실어진 새길 가을호를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그리움이 떠올라 못 쓰는 글이지만 마음 이끄는 대로 한 장의 새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 그리듯이 펜을 들어 그리움을 달래 봅니다.

고석규 교감님의 "엄마"라는 시에 「차가운 철창 속에 갇힌 내 기억은 잘 펼쳐지지 않아 두꺼운 사전 속에 밀줄 친 옛글 귀를 다시 찾아내는 것처럼 힘겹다」라는 글 귀속에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송편에 얽혀있는 추억 등 좋았고 행복했던 지난시간을 떠올릴 수 있어서 제 마음이 무척이나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재윤님의 "못난이 송편"과 최현욱님의 "콩 송편" 등 송편에 대한

## 새길 가을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 어린 시절 추석명절 때만 되면 아버님과 함께했던 지난 추억과 함께 아버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족에 대한 사랑표현 방식을 알 수 있었던 가슴어린 추억이 생각납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 약 50여 년 전 일이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 때문에 집에 계시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안 계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추석명절 때만큼은 아무리 일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아버님께서 송편에 필요한 솔잎을 따러 산에 가셨는데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럴때마다 솔잎을 사서 하면 편한데 왜 산에 가서 고생하며 솔잎을 따야하는지 왜 나를 데려가는지 불평을 하였고 중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 아버지께서 솔잎을 따러가자고 할때마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하는 등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피하곤 하였는데 그러던 어느날인가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왜 아빠따라 산에 가지 않냐”고 하시길래 그냥 가기 싫어서 그랬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왜 너를 데리고 산에 가는 줄 아느냐”고 하시면서 아빠는 일 때문에 집에 있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해 가족들과 아들인 너한테 미안한 마음에 마음의 짐이 되어서 추석 명절 때 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신해 아빠의 자리를 지켜주는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런것인데 너가 아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않으니 아빠가 그때마다 서운한 모습을 보이는게 안타까워 말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산에 같이 가지않자 그 후론 아버님도 산에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추석명절 때 제가 아버지께 “산에 솔잎따러 가자”고 용기내어 말씀을 드리니 그때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님의 웃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그 후로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송편에 필요한 솔잎을 따러 가는 추석명절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에는 잘 몰랐지만 아버님과 저만의 추억이었고 가족에 대한 아버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추석과 송편을 생각하면 아버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은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아픔을 저는 드렸지만 가족들은 그래도 못한 저도 가족이라고 지금까지 저를 잊지 않고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생각하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픈 마음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매년 추석때가 되면 온가족이 모두모여 함께 송편을 만들며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리며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가족들과 다시 송편을 만들어야겠다는 희망을 가져보며 이번 “새길 가을호”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약속을 해 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의미를 되새기며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아끼고 헌신하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최선을 다 해냈다고 부족한 저지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니 저의 어리석은 행동과 과오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분들께 용서의 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면으로나마 다시한번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시시오. 피해자 가족분들께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린일에 있어서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 밖에는 없지만 사죄드리는 이 마음 만큼은 잊지않고 새겨 두어 살아가는 동안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 새길 가을호를 보면서

이현우님 외 다른 동료들의 용서의 글을 보며 이곳에서 보낸 20여년의 시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지난 지나온시간에 있어서 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사소한 것이 제일 크고 작은것이 큰 것을 만든다」라는 말에 다시한번 제 마음을 추스릴수 있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한다면 충실히 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되돌아 온다는것을 되새기며 저 자신도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는 “따스함”을 저를 지켜봐주시는 계장님과 직원분들께는 “믿음”을 가족들에게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희망”을 줄수 있는 내자신이 되겠다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번 “새길”가을호를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송편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었으며 또한 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더 좋은 앞날을 위해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두손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상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



